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o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한인들의 특별한 보스톤 마라톤 이야기

119회 보스톤 마라톤
96명 한국 선수들 참가
일부 참가자는 신혼여행 차
제주관광 홍보 공무원도



대구마라톤에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달린 방현철, 김현미 부부가 신혼여행으로 보스톤 마라톤에 참가한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올해 보스톤 마라톤을 달리는 3만명의 참가자들은 모두 각기 다른 삶의 배경과 이야기들을 갖고 있다. 그중 96명의 한인 참가자들도 그들의 이야기를 안고 달린다. 마라톤을 시작하게 된 동기와 달리는 목적은 각기 다르지만 이 사람들이 동의하는 한 가지는 “달릴 때 행복하다” 는 것이다.

마라톤 여행을 통해 보스톤을 방문하는 한국 참가자들은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다. 결혼 기념일을 맞아 함께 달리는 부부와 신혼 여행으로 보스톤 마라톤에 참가하는 신혼부부, 제주 관광을 홍보하기 위해 마라톤을 달리는 공무원도 있다. 이들과 다르지만 이 지역 한인으로서 지난 11년 동안 빠짐없이 대회에 참가했던 한인도 있다.

시합 전 선수들의 컨디션을 체크하듯 전화 인터뷰를 통해 흥미로운 한인 참가자들을 만나

봤다. 지면을 통해 이들만의 특별한 마라톤 이야기를 소개한다.

보스톤 마라톤이 신혼여행 방현철, 김현미 (부부)

신혼 여행으로 보스톤 마라톤에 참가한다는 방현철, 김현미 부부는 대단한 마라톤 애호가들이다.

지난해 김현미 씨는 대구 마라톤 클럽에 가

입하며 처음 마라톤에 입문했다. 당시 방현철 씨는 페이스 메이커로서 김 씨의 트레이닝을 도왔다. 1년 남짓 되었을까, 훈련을 통해 좋은 감정을 키워나간 두 사람은 지난 5일 열린 대구 마라톤대회에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뛰기로 약속했다.

화려한 마라톤을 완주한 방현철, 김현미 부부는 곧바로 결혼식을 올렸다. 수많은 휴양지

▶▶2면으로 계속

아시아 여성 우울증 심각 70%는 치료받지 않아

함혜옥 BU 교수, 아시아 언먼 포 헬스
혁신리서치상 수상
8주간 그룹 심리치료 제공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아시아 아메리칸 여성이 미국내 인종 그룹 중 우울증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비율이 아메리칸 인디언 다음으로 가장 높다. 하지만 이중 70%는 어떠한 치료도 받지 않는다.”

지난 7년간 아시아 아메리칸 여성들을 직접 만나면서 그들이 안고 있는 심각한 우울증에 대한 연구를 이어온 함혜옥 보스톤 대학 사회사업학 대학원 교수의 말이다.

함혜옥 교수는 “우울증과 자살 기도로 고통받는 아시아 여성들의 심각한 문제가 전체 인구의 6%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지 못하는 점이 안타깝다” 고 전했다.

함 교수에 의하면 아시아 여성들은 우울증은 크게 가정과 사회에서 받는 1, 2차 스트레

▶▶9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부동산 매매·부동산법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지금, IACE 를 통하여 미주지역에서
한국으로 가시는 왕복항공권을 구매하시면,
체류기간 동안,
인천 ↔ 도쿄 나리타 항공권
+ 동경 2박3일 호텔숙박권
이 믿을수없는 가격,
\$1에 모십니다!

Japan. Endless Discovery.
*미국과 인천공항의 왕복편은 지정된 항공사의 티켓입니다.
*도쿄 내 호텔, 이코노미 호텔 기준
*예약상황과 좌석상황에 따라 프로모션 가격에 변동이 생길수 있습니다

IACE TRAVEL Korean Line
CONNECT TO THE WORLD
24H ONLINE BOOKING
WWW.IACE-KOREA.COM

1-866-619-4223
info@iace-korea.com
3655 Torrance Blvd, Suite 100,
Torrance, CA 90503

NEWSTAR REALTY OF BOSTON
에나정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NH Licensed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jung@newstarrealty.com

MORTGAGE MASTER
Ezer Lee
NMLS #859995
Mortgage Loan Originator
P (781) 591-2722
F (617) 395-6865
Kakao Talk ID: ezerlee
elee@mortgagemaster.com
www.mortgagemaster.com/elee
MA LIC # ML0859995
Languages: English + Korean
44 Trapelo Road, Belmont, MA 02478
loanDepot.com, LLC d/b/a Mortgage Master, 102 Elm Street,
Walpole, MA 02081. Telephone 508-850-4100. Fax 508-
850-4200. All rights reserved. NMLS ID #174457 (www.
nmlsconsumeraccess.org) Massachusetts Mortgage Lender/
Broker License MC174457

Premier Realty Group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나원태 Realtor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3156 Direct: 617.642.5670
won@bostonpremierrealty.com jas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 마라톤 관중 이것만큼은 지켜야

드론 반입 및 스트리트 파킹 금지 대중교통 이용 권장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119회 보스톤 마라톤이 오는 20일로 다가옴에 따라 보스톤 경찰은 관중들이 지켜야 할 안전 규정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줄 것을 요청했다.

티모시 알벤 매사추세츠 주 경시감은 지난 13일 월요일 기자회견을 통해 “보스톤 마라톤은 축제가 되어야 한다”며 “안전 규정은 관중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다. 모두 나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3만명이 선수로 출전하며 50만명이상이 관중으로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마라톤에는 3천 5백여명의 경찰이 마라톤 코스를 따라 보안을 지킨다. 구간마다 소지품 검사도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드론(Drone) 및 조종 비행물체 사용이 금지가 올해 안전 규정으로 새롭게 추가되었다. 이외에도 칼 등의 무기, 백팩, 캐리어, 콜러, 유리병이나 캔, 1리터 이상의 음료병, 담요, 얼굴을 가리는 가면복장 등은 소지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가방 대



신 속에 비치는 비닐봉지를 지참하는 것이 권장된다.

한편, 모바일 앱 ‘매사추세츠 앨러트(Massachusetts Alert)’를 통해 마라톤 관중들이 지켜야 할 안전 규정을 찾아볼 수 있다.

출발지점인 홉킨튼(Hopkinton)은 당일 오전 7시부터 차량 운행이 중지되며 스트리트 파킹 또한 금지된다. 피니쉬 라인이 있는 보스톤의 파킹 미터도 작동되지 않을 예정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할 듯하다.

보스톤 마라톤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마라톤으로 오는 20일 119회를 맞이한다. 홉킨튼에서 시작하는 마라톤 코스는 애쉬랜드, 프래밍턴, 네틱, 웰슬리, 뉴튼, 브루클라인, 보스톤에 이르는 26.2마일 코스로 피니쉬 라인은 보스톤 백베이 카플리 스퀘어에 위치해 있다.

dyoo9146@bostonkorea.com

한국 출신 참가자 총 96명 "달릴 때 행복하다"

▶▶1면에 이어서

를 제치고 신혼 여행지로 결정된 곳은 바로 보스톤. 관광도 아닌 마라톤에 참가하는 것이 그들만의 특별한 신혼 여행인 것이다.

보스톤 출신 12년 연속 참가자 박귀남(61세, 여)

선수들이 마실 물을 지키는 자원봉사자로 10여년간 보스톤 마라톤



을 구경해오던 박귀남 씨는 ‘50세가 되는 해에는 스스로에게 주는 생일 선물로 꼭 마라톤에 도전해야지’라는 다짐을 했다고 한다. 그러던 그녀가 어느덧 12번째 출전을 앞두고 있다.

수하기 너머로 들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한껏 들떠 있었다. “마라톤을 위한 펀드레이징에 \$1,600이 모였다. 원래 목표였던 \$1,500을 훌쩍 넘겼다”는 박 씨는 “너무 행복하다”며 소녀 같은 웃음을 지었다. 기분 탓인지 올해는 왠지 잘 달릴 것 같다는 것이 박 씨의 말이다.

“옛날에 약간의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박 씨는 지난 12년간 마라톤을 뛰며 몸과 마음을 치유해왔다. 완주를 하지 못한 적도 세 번이나 있지만 달리면서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어 마냥 행복하다.

“달리다가도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은 매번 찾아온다”는 박귀남 씨는 “절대 무리하지는 않지만 완주하고 나면 새 사람이 되는 기분”이라고 전했다. 이 기분을 다시 한번 느끼기 위해 그녀는 오늘도 보스톤 마라톤을 준비한다.

제주도 관광 홍보 대사 이성래(58세, 남)

이성래 씨는 돌하르방과 태극기를 온 몸 에 붙이고 달릴 예정이다.



‘Visit Korea’, ‘Welcome to Jeju’라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쓰여진 유니폼과 태극기가 휘날리

는 모자를 쓰고 달린다는 그를 멀리서도 단 번에 알아볼 수 있을 듯하다.

제주도청에 소속된 이성래 씨는 세계자연문화 유산인 제주도를 홍보하기 위해 이번 마라톤에 참가한다.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등재, 세계지질공원 인증,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등 유네스코 자연환경 분야 3관왕을 달성한 제주도는 그에 크나큰 자량이 아닐 수 없다.

한국시간으로 새벽 6시부터 인터뷰에 응하겠다는 이 씨는 “드디어 꿈의 보스톤에 간다”며 기대감을 보였다. “세계 국민이 모이는 자리에서 제주도를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 그의 말이다.

영화 ‘페이스 메이커’를 보고 마라톤에 대한 열정을 키워온 이성래 씨는 ‘제주도 홍보 전사’로서 한국과 일본, 중국의 다양한 마라톤에 참가하며 풀코스를 무려 110회나 완주했다. 현재 그는 제주도청 마라톤 동호회와 57년생(닭띠) 꼬꼬마라톤 클럽의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dyoo9146@bostonkorea.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신경 치료 *보철 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www.gracesalonsboston.com
영업 시간 월요일~금요일:10시~7시
토요일: 9시~8시
예약을 하시면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각종 헤어 컷과 펌 그리고 스킨 케어
젊음과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곳!

매직 스트레이튼	Magic Straightening
브라질 케라틴 트리트먼트	Brazilian Keratin Treatment
Threading	Threading
디지털 펌 & 셋팅 펌	Digital Perm & Setting Perm
아이론 펌	Iron Perm
헤어 칼라링	Coloring (GOLD WELL 사용)
헤어 메니큐어 (코팅)	Hair Manicure
메니큐어 & 페디큐어	Manicure & Pedicure
왁싱	Waxing
얼굴 마사지	Facials
웨딩 서비스	Wedding Services

Grace Salon
프리미엄 토탈 헤어 살롱

그레이스 컷팅 클럽

617-623-2430

56 Union Sq. Somerville, MA 02143
한국중합식품 옆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홍석천 “한 때 내겐 꿈을 갖는 것도 사치였다”

보스턴대학 청춘 토크콘서트
고민 많은 20대 “위로 받았다”

(보스턴=보스턴코리아) 유다인 기자 = “대한민국의 99%가 나를 욕할 때, 내 목표는 ‘30대만 살아남자’ 였다. 당시 꿈을 갖는다는 것은 사치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의 나는 꿈이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맛있는 45살이 되는 것이고 재미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방송인이자 외식업계 큰손인 홍석천

방송인 홍석천이 지난 10일 금요일 보스턴 대학을 찾아 20대 청춘을 위한 토크 콘서트를 가졌다.

4시간 가까이 진행된 긴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날 참석한 220여명의 학생 및 보스턴 한인들 대부분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금요일 밤인데다

입장료도 \$30(당일 구매는 \$40)인 행사로서는 상당한 인파가 몰렸다는 평이다.

홍석천은 “보스턴에 처음 와보는데 이렇게나 많이 와주셔서 놀랐고 굉장히 감사하다. 보스턴의 학생들 앞에서 강연을 한다는 생각에 계속 긴장했다” 는 말로 이날 토크 콘서트를 시작했다.

이날 강연에서 홍석천은 커밍아웃 후 오랜 공백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 “감독 세 명, 작가 세 명만 내 편으로 만들자” 라는 각오를 했다고 전하며 주저 않았던 자신을 일으켜 주었던 사람들에 관한 일화를 털어 놓았다.

한편, 이태원 외식업계 큰 손이 될 수 있었던 성공비법으로는 “새로운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갖고 남다른 사고 방식을 갖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처럼 젊은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며 에너지 충전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날 홍석천은 꿈과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꿈을 두루뭉실하게 가지면 조각해나갈 수 있다” 는 조언을 주며 “지금의 홍석천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다방면으로 관심을 갖고, 1등이 되고자하는 욕심을 버리고 재밌게 살기를 원했기



지난 10일 보스턴 대학에서 열린 홍석천의 재치있는 강연에 한인 학생들이 웃음을 터뜨리고 있다

때문이다” 라고 전했다.

강연 후 질의응답이 이어졌고 특별히 학생회 측에서 대독한 익명의 질문이 이날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동성애자로서 커밍아웃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된다, 부모님과 의견이 심하다” 는 익명의 질문에 홍석천은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며 “굳이 커밍아웃하지 않아도 된다” 는 위로와 공감의 말을 건넸다.

보스턴대학교 생명공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김하람 학생은 이날 콘서트 가 많은 학생들에게 힘이 된 것 같다는 소감을 전했다.

김 씨는 “많은 특권을 누리는 유학생들이지만 가족의 품에서 떨어져 있으면서 학업이나 진로, 인간관계 등으로 어른이 되어가는 성장통을 겪으며 많이 아파하고 있다. 마음고생이라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만큼 해본 홍석천 씨의 ‘두루뭉실해도 좋다’ ,

‘확실하지 않아도 좋다’ , ‘너는너대로인 게 제일 너다운 거다’ 라는 말이 학생들의 마음에 많은 도움과 위안을 준 것 같다” 고 전했다.

이날 홍석천의 토크 콘서트는 보스턴 대학 한인학생회(회장 염승헌)가 주최한 행사다. 보스턴 대학 한인 학생들의 다음 행사로는 한인 음악 동아리 소리안의 봄 콘서트가 오는 22일 GSU 에서 열릴 예정이다.

dyoo9146@bostonkorea.com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SAT Plus

Saturdays

Class	Time
SAT II MATH IIC	9:00 AM - 11:00 AM April 4 - May 30
SAT II / AP Chemistry	11:30 AM - 1:30 PM March 21 - May 30
SAT II / AP Biology	2:00 PM - 4:00 PM March 21 - May 30

SAT Plus Summer Schedu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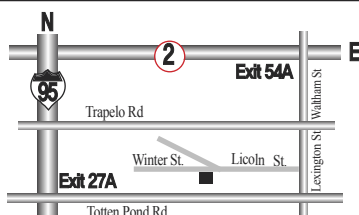
July 6 - July 24

Class	Time
SAT I (old) prep	8:00 AM - 12:00 PM Monday - Friday
SAT I (new) prep	1:00 PM - 5:00 PM Monday - Friday

August 4 - August 21

Class	Time
SAT I (old) prep	8:00 AM - 12:00 PM Monday - Friday
SAT I (new) prep	1:00 PM - 5:00 PM Monday - Friday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H마트 경품대잔치 당첨자 발표, 1등 상품 당첨자 잭 마이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H마트 경품대잔치 추첨 결과 1등 상품인 2015년형 도요타RAV 4는 한인이 아닌 잭 마이클(Zack Michal)에게 돌아갔다.

지난 14일 월요일 오후 4시 벌링턴 H마트에서 진행된 당첨자 추첨은 캠브리지와 벌링턴 매장의 응모권을 한 데 모아 매장 직원들과 가족들이 참여해 직접 뽑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당첨자 확인은 H마트 웹사이트(hmart.com)나 매장 내 설치된 당첨자 게시판에서 할 수 있다. 상품 수령은 5월 31일까지 매사추세츠 매장(벌링턴 또는 캠브리지)에서 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H마트 스마트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당일 추첨 게시판에 표기된 당첨자는 아래와 같다.

- 1등(2015년형 도요타 RAV 4 XLE) - Zack Michal
- 2등(코코 화장품 선물 세트) - Thadsayaporn
- 3등(아모레 화장품 선물 세트) - Ying Gan
- 4등(H마트 푸드코트 상품권) - Nancy Sok, Jane Kang, Rachel Hwang, CHIEN Wu CHIANG, Jennifer Kao, JaeEun Park, Vivian, Myong Kim, Dami Han 외 11명
- 5등(정관장 홍삼 라떼 박스) - Bo Shin, Kyoungyoun Min, Yumi Kim,



H마트 경품 추첨이 지난 13일 벌링턴 매장에서 진행되었다

- Grace Fung, Sujung Chai, Lee, Glenn Badillo, Goh Eun Park, NHIEMDINH, 이윤아, Min-Hui Tieng 외 2명
- 6등(하루하루 햅쌀15lbs) - Sorim Lee, Yu Moon Chang, Jung hyun dyoo9146@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세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유다인 Dain Yoo

Graphic Designer
정완용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완용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 백린 Rin Paik
- 신영각 YoungGak Shin
- 공정원 JungWon Gong
- 김은한 EunHan Kim
- 백영주 YoungJoo Paik
- 성기주 KiJoo Sung
- 신영 Young Shin
- 윤희경 HeeKyung Yoon
- 이명덕 MyoungDuck Lee
- 앤드류악 Andrew Koak
- 앤젤라엄 Angela Um
- 정준기 JoonKi Jung
- 이선영 SunYoung Lee
- 소피아 Sophia
- 홍하상 HaSang Hong
- 오승준 Albert Oh
- 이명원 Myung Won Lee
- 장동희 Donghee Jan
- 김하옥 HwaOk Kim

& TV 사업국
617-955-9459

제휴업체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영화 <스물> 17일 리비어 쇼케이스 개봉

김우빈, 준호, 강하늘 주연
스무살 청춘 그려낸 유쾌한 코미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다인 기자 = 김우빈, 준호, 강하늘 주연의 코미디 영화 '스물(Twenty)'이 오는 17일 금요일 리비어 쇼케이스 시네마에서 개봉한다.

'스물'은 연애, 경력력, 진로 등 스무살 청춘의 고민을 유쾌하게 다

룬 영화로 인기만 많은 놈 '치호'(김우빈), 생활력만 강한 놈 '동우'(준호), 공부만 잘하는 놈 '경재'(강하늘), 이들 스무살 동갑내기 세 친구의 이야기를 그린다.

스무살의 낭만과 아름다움, 아픔이나 시련보다는 '찌질함'에 포커스를 맞추고 시종일관 웃음 폭탄을 터뜨린다. 그 찌질함을 완벽히 표현하기 위해 김우빈, 강하늘, 이준호

가 제대로 망가진다. 보기 좋은 포장이나 억지감동 없이 스무살을 앞두고 거나 지내보낸 많은 청춘들의 공감대를 자극한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한국 개봉 5일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 지난 11일 250만 관객을 돌파한 '스물'은 오는 17일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카고 등 북미 25개 극장에서 동시 개봉할 예정이다.

개봉일정
일시: 2015년 4월 17일 금요일
장소: 리비어 쇼케이스 시네마 (565 Squire Rd, Revere, MA 02151)

dyoo9146@bostonkorea.com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617.871.1482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www.yasuboston.com



야수 레스토랑

자녀를 위해 요리하는 엄마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야수는 작은 나물에서부터 요리 하나하나까지 자녀들을 기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만듭니다. 직접 만들어 손맛이 들어있는 야수의 음식 - 맛과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야수를 찾아주세요.

YASU RESTAURANT
Telephone 617.738.2244
1366 Beacon Street, Brookline, M A02446



단체예약
주문음식

끼 많은 아시안 아메리칸들의 무대 펼쳐진다

한인 2세 대상 재능발굴 오디션
한국인 커뮤니티 넘어
아시안 아메리칸 모두의 무대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한인 2세들의 숨은 재능을 발굴하기 위해 만들어진 오디션 콜라보레이션(Kollaboration)이 한인 커뮤니티를 뛰어넘고 아시안 아메리칸 모두를 위한 무대로 진화했다. 미주 14개 도시에서 진행되는 이들의 무대가 보스톤에서 오는 17일 금요일 펼쳐진다.

콜라보레이션의 스폰서십 디렉터를 맡고 있는 베키 김은 이날 무대에 앞서 “예술과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는 아시안들을 위한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며 “동양인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당당히 미디어에 진출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30여명의 보스톤 지역 도전자 중 본선에 진출한 6명, 엘리스 고, 에스터 정, 해리슨 김, J. Dep Juice, EastSide가 이날 무대를 장식한다. 특별히 옛 시즌 우승자들인 데릭 수와 DANakaDan, Unofficial Project의 특별 무대가 함께 열린다.

지난해 우승자인 중국계 미국인 데

릭 수는 자유자재로 요요를 다루는 기술을 선보여 600여명의 관중과 심사위원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으며 당당히 보스톤 우승을 거머쥐었다.

보스톤 지역 우승자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콜라보레이션 스타 2015’에 진출하는 기회를 얻으며 최종 우승자는 \$10,000의 상금을 획득하게 된다.

이날 무대의 티켓은 \$15이며 애프터 파티까지 포함하면 \$25이다. 티켓 구매는 티켓플라이(https://www.ticketfly.com/purchase/event/823079?utm_medium=bks)에서 구매할 수 있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콜라보레이션 웹사이트(kollaboration.org), 기타 문의는 bostonkollab@gmail.com으로 하면 된다.

콜라보레이션(Kollaboration)은 할리우드에서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 활동 중인 폴 김(Paul Kim, PK)이 2000년 설립한 오디션 쇼케이스다. 그는 캘리포니아에서 자란 한인 2세로 미주내 한인 2세들의 미주류 미디어에 진출하기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콜라보레이션을 기획했다.

콜라보레이션은 현재 애틀란타,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뉴욕, DC 등 14개 지역에서 열리며 배출한 아티스트로는 덤파운드데드(Dumbfoundead), 데이



지난해 보스톤 콜라보레이션 우승자 데릭 수

비드 최, 파 이스트 무브먼트(Far East Movement) 등이 있다.

행사일정
일시: 2015년 4월 17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장소: 로얄 나이트 클럽 (279 Tremont St, Boston, MA 02116)
dyoo9146@bostonkorea.com



명품 보이스 임형주, 하버드대 미니콘서트 갖는다

세월호 헌정곡 '천 개의 바람' 다시금 화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최연소’’, ‘세계 최초’ 수식어의 주인공인 팝페라 가수 임형주가 오는 23일 하버드 대학교 나펠 센터(Knafel Center)에서 보스톤 한인들과의 특별한 만남을 준비한다.

팝페라 가수 임형주는 1998년 만 12세의 나이로 첫 독점 음반이자 기념 음반을 발표해 당시 음악계의 큰 주목을 받으면 데뷔했다.

만 17세의 나이로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에서 역대 최연소의 나이로 애국가를 선창한 임형주는 지난해 6월 유니버설뮤직과 국내 독점 및 매니지먼트 협력 계약을 체결하며 세계 4대 메이저 음반사(소니, EMI, 워너, 유니버설)와 모두 독점

음반 유통계약을 체결한 최초의 한국인 뮤지션이 되었다.

한편, 기부천사로도 알려진 임형주는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허동수)의 1억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Honor Society)의 800번 회원으로 가입되었다. 최근에는 세월호 참사 헌정 추모곡 ‘천개의 바람이 되어’의 음원 수익금 5천 700만원을 전액 기부하기도 했다.

팝페라 가수 임형주의 미니콘서트는 오는 23일 하버드 대학교 나펠 센터에서 개최되며 다음날인 24일에는 보스톤 대학교에서 토크 콘서트가 개최된다.

행사는 선착순 무료이며 예약이 필요할 경우 djentusa@gmail.com이나 347-757-0639로 문의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 샤부샤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얼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1시~ 밤11시까지 입니다.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상쾌한 봄맞이 운동으로 굳은 몸 깨우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겨우 내 추위에 움츠렸던 몸을 펴고 봄기운이 완연한 밖으로 나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특히 여름을 위한 다이어트 혹은 몸 만들기 프로젝트가 한창인데, 체계적인 워크아웃(Workout)을 시작해보려는 사람들을 위해 보스톤의 헬스 클럽을 소개한다.

▶BSC
mysportsclubs.com

BSC(Boston Sports Club, 보스톤 스포츠 클럽)는 다운타운, 캠브리지, 뉴턴, 렉싱턴, 윌덤 등 30여곳에 스튜디오가 위치해 있는 보스톤의 대표적인 헬스 클럽이다. 개인 트레이너를 신청할 수도 있으며 소그룹으로 다양한 운동 레슨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렉싱턴과 웰슬리 스튜디오에는 야외 수영장도 구비되어 있어 여름철 아이들과 함께 운동하기에 적합하다.



보스톤 스포츠 클럽의 한달 이용료는 \$19.95(가입비 \$149.95, 연회비 \$49.95) 또는 \$39.95(연회

비 \$49.95)이다. 모든 지역의 BSC스튜디오에서 운동할 수 있는 회원권은 한 달에 \$69.95부터 \$89.95까지 다양하다. 지역마다 약간씩 가격에 차이가 있으며 이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해 1주일 게스트 무료 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으니 유용하게 참고하면 되겠다.

▶YMCA
ymcaboston.org

YMCA는 어린 아이부터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스포츠 센터로 헬스장뿐 아니라 수영, 농구, 요가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회원은 줘바, 요가, 사이클링 등 600여 종류의 교실을 즐길 수 있으며 첫 수업이 오전 5시 30분에 시작해 회사나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도 부지런히 운동할 수 있다.

YMCA이용료는 29세 이하는 한 달에 \$40, 30세 이상은 \$50이지만 이 또한 지역별로 다르다. 멤버십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YMCA 보스톤 멤버십 문의 작성지 (<http://ymcaboston.org/membership-inquiry-form>)로 하면 된다.

▶에퀴녹스 피트니스
equinox.com/regions/boston

다운타운 보스톤 및 체스트넛 힐에 위치한 스포츠 센터 에퀴녹스(Equinox)는 세련되고 깔끔한 내부 시설로 각종 트레이닝 및 스와 등을 즐길

수 있다. 한 달 이용료는 \$165이며 등록비가 \$100이다. 모든 센터에서 운동할 수 있는 멤버십은 한 달에 \$225이며 등록비는 \$200이다.

한편, 개인 트레이너 없이도 최신 모바일 앱을 통해 체계적으로 운동할 수 있다. 운동량을 기록하는 기능뿐 아니라 각종 운동법이나 식단도 알려주는 앱이 다양하게 존재해 자신에게 맞는 앱을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 안드로이드와 iOS에서 모두 사용 가능한 무료 앱을 소개한다.

▶7 미닛 워크아웃 앱

7 미닛 워크아웃 앱(7-Minute Workout App)은 7분 동안 할 수 있는 36가지 운동법과 13종류의 워크아웃을 소개한다. 바닥, 의자가 있는 장소라면 어디서든 운동할 수 있으며 휴식 구간(Rest Interval)이나 특정 구간 반복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개인 음악 라이브러리에 있는 음악을 들으며 운동할 수 있다.



▶아거스

아거스(Argus)는 깔끔한 디자인으로 사용자의 움직임 추적, 음식 칼로리, 수면량 등의 신체리듬까지 기록해주는 유용한 피트니스 앱이다. 이



모든 정보를 낱알이 기록해주기 때문에 작성삼일에 그치지 않고 꾸준하게 운동하게 된다는 것이 많은 사용자들의 평이다.

▶런키퍼

런키퍼(RunKeeper)는 운동 페이스, 거리, 시간 등을 측정해주며 초보 단계부터 전문 마라톤 단계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다.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특히 유용하지만 바이킹, 등산 시에도 유용하게 쓰인다.



▶데일리 요가

50가지 종류의 다양한 요가 교실과 400여 가지의 워크아웃 자세를 알려주는 데일리 요가(Daily Yoga)는 HD 비디오와 요가에 걸맞는 음악을 재생한다.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수준별 요가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다.

dyoo9146@bostonkorea.com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niboston.net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한인간호사협회, 신장 및 식이요법 세미나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한인간호사협회가 주최하는 신장 및 식이요법 관련 세미나가 오는 26일 일요일 보스톤 메디컬 센터에서 개최된다.

뉴잉글랜드에 거주하는 모든 간호사 및 간호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날 세미나는 영어로 진행될 예정이다며 동료 간호사와 함께 참석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날 세미나의 강사로는 하버드 밴

가드의학협회 신장전문 영양사이자 신장영양의학의 에디토리얼 보드 멤버인 한해욱 박사가 참석한다.

한인간호사협회는 “세미나 후에 교제의 시간이 있을 것으로 비슷한 입장에 있는 다른 간호사들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참석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음식도 제공될 예정이다.

행사에 관한 문의는 한인간호사협회(info@koreannurses.org)로 하면 된다.

행사일정
일시: 2015년 4월 26일 오후 4시~6시
장소: 보스톤 메디컬 센터 1층 컨퍼런스 룸(725 Albany St, Boston, MA 02118)

bostonkorean@hotmail.com

세월호 참사 1주기 다이빙 벨 상영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 다이빙벨’의 무료 상영회가 오는 19일 일요일 우번 소재 보스톤 한국도서관에서 열린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전세계에서 진행되는 추모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날 상영회에는 영어 자막이 합 입장은 무료이며 영어자막과 함께 상영된다.

이날 행사를 마련한 임 옥 씨는 “세월호에 대해 잊지 않고 있다

는 의미로 보스톤 한인들이 많이 와서 보면 좋겠다”고 전했다. 임 씨는 보스톤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및 한국뉴스를 번역하는 뉴스프로(Newspro)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다.

행사일정
일시: 2015년 4월 19일 일요일 오후 5시
장소: 보스톤 한국도서관(76 Winn St, Woburn, MA 01801)

dyoo9146@bostonkorea.com

애머스트 한국학교 교사 사은회 '풍성'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애머스트 한국학교(교장 김인경)가 주최한 ‘1학기 애머스트 한국학교 교사 사은회’가 지난 10일 금요일 학교 강당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학교 수업이 마친 후 이어진 이날 사은회에는 담임 및 보조 선생님들 세 명과 가족들이 초대되었으며 학교 측에서 직접 준비한 만찬이 제공되었다.

김인경 교장 선생님은 “애머스트 한국 사회와 한국학교를 위해 봉사해주어 감사하다”며 “함께 계속 같이 봉사해 달라”는 부탁의 말을 전했다.

특히 이호준 운영위원장이 “고맙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랑합니



지난 10일 열린 애머스트 한국학교 교사 사은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다”라는 문구를 붓글씨로 썼으며, 이주미 학부모 회장은 소품을 준비해 행사 의 멋을 더했다.

애머스트 한국학교의 남은 행사로는 5월 운동회와 6월 종업식 및 학습 발표회가 있다. 애머스트 한국학교 행사 후원과 각종 문의는 이메일 koreanamh-erst@gmail.com 혹은 전화 413-313-9149로 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이화여고 동창회 2015년 첫 모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이화여고 동창회(회장 김혜경)가 지난 11일 토요일 김유경 동문 자택에서 2015년 첫 모임을 가졌다.

14명의 동문들이 모인 이날 모임에는 1970년대 한국에 평화봉사단으로 6년간 봉사했던 나노열(Neil Landreville) 화가가 참석했으며 70년대 한국 사회의 풍물을 직접 그린 동양화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2016년 토론토에서 열리는 총동창회 참석을 위한 준비 모임이 오는 6월 20일 토요일 케이프코드(Cape Cod)에 위치한 김혜경

회장 자택에서 열릴 예정이다.

가을 정기 모임은 오는 11월 이경해 동문 자택에서 열린다.

보스톤 이화여고 동창회 모임은 1996년에 시작되었으며, 뉴잉글랜드 근교에 40여명의 동문들이 거주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문들은 동문회를 통해 교제의 시간을 갖고 모교와 동포 사회를 위한 기금을 모아 보내는 활동을 하고 있다.

동창회에 관한 문의는 김혜경 회장 (508-965-7632 혹은 hkweir@gmail.com)에게 하면 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안병원 작곡가 별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통일의 노래’의 안병원 작곡가가 투병 끝에 지난 5일 향년 89세로 뇌졸중으로 별세했다. 이어 지난 8일과 9일 양일에 걸쳐 캐나다 토론토에 위치한 성 김대건 기념 성당에서 그의 장례식이 진행되었다.

이날 장례식에는 500여명이 참석했

으며 ‘통일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것으로 예식을 마쳤다. 고인은 장례식 후 토론토 교외 메도우메일 묘지에 안장되었다.

고 안병원 씨는 봉선화동요회를 창설해 회장을 맡는 등 동요 창작 보급에 힘썼다. ‘송알송알 싸리잎에 은구슬’로 시작하는 동요 ‘구슬비’ 등 300

여 곡의 동요를 작곡했다.

고인은 캐나다 이주 후에도 평화통일을 염원하며 문화예술 지도자와 민주평통 상임위원을 역임했다. 특별히 이날 장례식에는 민주평통 보스톤협의회 김성혁 회장이 참석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이화여고 동창회 2015년 첫 모임이 지난 11일 김유경 동문 자택에서 열렸다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사고 상해
파산 보호
비즈니스/리스

IRS/DOR/UI
민/형사 소송
이민법

전화: (781)712-1706 CHANG & ASSOCIATES, P.C.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행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1,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창업 블로그 비플, 게임창업의 선두주자 서재우 대표를 만나다

창업인의 자세,
전문성 갖고 진지한 고민해야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자 주 = 서재우 엔진스튜디오 대표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온라인 게임 '카트라이더'의 개발자 중 하나다. 창업 블로그 비플(칼럼니스트 이미현)은 지난 4월 1일 서재우 대표와 인터뷰를 가져 게임창업에 대한 솔직한 견해를 들어보았다.

서 대표는 칼럼니스트 이미현 씨의 가까운 지인으로 "학부 시절부터 무언가를 푹푹딱딱 만들기를 취미처럼 하면서 그로 인한 수입도 종종 창출하던 모습이 강한 인상으로 남아있다"는 것이 이 씨의 말이다.

이미현 씨는 "한국에서 게임창업은 아무나 다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어느 스타트업이든 '하기 쉬운 창업이란 없다'는 점도 확인시켜 주었다"고 전했다.

다음은 서재우 씨와 이미현 씨의 인터뷰 일부다. 인터뷰 전문은 비플 블로그(<http://bpblog.com/2015/04/14/bpp17-jaewoo-seo-engine-studio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플 이미현 칼럼니스트는 창업인 인터뷰를 통해 한미 간 창업공동체를 지원하는 사명을 가지고 스타트업 블로거 겸 컨설턴트로 활동 중이다. 전 보스톤 총영사관 혁신기술 및 경제통상 정책 연구원으로 2013년에 열린 제 1회 창조경제 포럼을 기획을 맡았다.

Q. 엔진스튜디오를 설립하게 된 계기는?

A. 워낙 게임개발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기존에 근무하던 회사(J2M소프트) 시절부터 마음이 맞던 동료와 공동창업을 하게 되었다. 창업을 결심하고 투자를 받아 설립하기 까지 대략 6~8개월이 걸렸다. 한 순간에 창업 결심이 들었다기보다 예전부터 게임을 좋아해왔고 그러한 열정이 오랜 시간 쌓여서 나온 결과이다.

좀 더 어린시절로 돌아가보면 학부 시절 선배

가 차린 보안회사에서 병특을 하면서 스타트업계에 우연히 발을 들여놓은 이래, 넥슨에서 운 좋게 카트라이더를 만들었고 그때 돈도 벌고 재미를 느끼면서 일확천금을 노리게 된거다 (웃음).

Q. 게임 콘텐츠 사업의 특성은 어떠한가?

A. 게임은 특성상 히트 기반이라서 다른 비즈니스랑 미묘한 차이점이 있다. 대부분의 모바일 앱, 온라인 서비스를 포함한 IT 서비스 벤처는 일단 출시 후에도 고객 피드백 기반에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서비스보다는 영화나 필름에 가깝다. 즉, 최종 상품으로 한번에 평가를 받아야 하는 점에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다.

Q. 우리나라 게임산업이 이른 출발을 했다는 점에서 게임이 다른 IT창업에 비해 수월한 측면이 있나?

A. 게임업계 초창기에는 MA가 종종 일어났었다. 최근에는 스타트업 중심으로 인수합병 및 상장(IPO)이 활발히 일어나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 게임업계가 많이 발전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창업인 입장에서 고생길을 걸으며 힘든 것은 다들 똑같다고 생각한다.

국내외를 불문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이라고 본다. 채용할 때도 (대기업형 인재에 가까운) 교과서 방식의 엔지니어링 역량보다는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에 포커스를 둔다.

Q. 창업 생태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남다른 것 같다.

A. 최근 정부에서 주도하는 창조경제 사업은 '창업을 빙자한 취업'에 가까운 느낌이다. 창업이 좀 더 진중하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최종 가치 실현(delivering final value)을 위한 팀워크가 중요하다. 예전보다는 창업을 하는데 있어서 리스크가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실패하면 다른 데 취직하지'라는 생각이 가능해졌다



비플 창업 블로그는 지난 1일 서재우 엔진스튜디오 대표를 인터뷰하며 게임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기회를 가졌다

는 것만 봐도 그렇다.

Q. 개인적으로, 팀웍 외에도 어떤 자질이 창업인으로써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A. 자신이 무엇을 증명하고 싶은가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할 것을 다시금 강조하고 싶다.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해당 분야의 직간접적인 경험과 지속적인 검증은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토의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Q. 창업인으로서 가장 힘든 위기상황이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극복했는가?

A. 매 투자 라운드와 퍼블리싱 라운드로는

허들을 넘어야 회사가 지속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힘들었다. 특히 투자 라운드에서는 초기에 투자한 소프트뱅크벤처스코리아의 심사역(투자 심사 담당관)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고 아직 게임 출시 전이지만 회사가 3년을 지나는 시점에서 어쨌든 적절히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후 게임 런칭을 위해서 달리고 있다.

Q. 게임 출시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

A. 올해 하반기 오픈베타를 앞두고 있으니 출시일정이 확정되면 알려주겠다. (넥슨과 협약으로 신작 RPG 게임 '프로젝트AX'가 출시될 예정이다)

bostonkorean@hotmail.com

엔티비(NTV)가 티보 플레이(TBO Play)로 새롭게 도약합니다. 더 좋은 서비스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Welcome, TBO 한국 방송 3사 케이블 TV 무제한 시청

원하는 한국 방송 원하는 시간에
내 마음대로 무한대로 시청하다

티보 플레이만의 특별한 장점

- 화질을 비교해 보세요. HD TV의 선명한 화질
- YTN 과 아리랑 방송 24시간 실시간 방송 시작! 라이브 생방송도 즐기고 원하는 시간에 무한대 시청도
- 방송3사와 케이블 합법 계약. 끊김없이 티비를 시청하세요

문의 및 연락처: 보스톤코리아 TV 사업국 617.955.9112 지금 연락하세요

시니어 특별 할인! 무제한 시청 월 \$ 29.99 (4월 30일까지(2년 약정시))

KBS, MBC, SBS, SBS Plus, tvN, XTV, O'live, DCN

Century 21 SHAWMUT PROPERTIES

1274 Washington Street Newton, MA 02465

송 운주 Realtor Yoon Song

Direct: 857-636-0429
Email: Yoonjoo@centry21.com
Web: YoonBoston.com

주택 매매, 콘도, 수익성 부동산 투자, 렌트 전문 고객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Newton, Needham, Brookline, Belmont, Boston, Wellesley, Weston, Cambridge, Lexington 전문

惠民 Park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

혜민한의원

817-787-0789 www.acupark.com
60 Lo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함혜옥 보스턴 대학 사회사업학 대학원 교수

가정과 사회에서 오는 스트레스 심각 한국사회 '성형 스트레스'는 덤

▶▶1면에 이어서

스에서 기인한다. ABCDG 양육 이론에 따른 1차적 스트레스는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받는 학대(Abusive)와 부담감(Burdening), 문화적 괴리감(Culturally Disjointed), 방치 (Disengaged), 성 규범 강요 (Gender Prescriptive) 등에서 온다.

2차적 스트레스는 사회적으로 성공해야 한다는 극한 압박과 경쟁심이다. 한국 여성들의 경우, 예뻐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으로부터 오는 성형에 대한 스트레스 또한 만만치 않다는 것이 함 교수의 말이다.

아시아 여성들이 더욱 위험한 이유는 우울증을 겪으면서도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함 교수는 이 같은 여성들을 위해 심리 테라피를 제공하는 AWARE(Asian Women's Action for Resilience and Empowerment)를 진행하고 있다.

NIH(National Institute of Health)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이 연구 프로그램은 18세에서 35세까지의 미혼 아시아 여성을 대상으로 8주간 일주일에

한 번 그룹 정신테라피를 제공한다.

다음 세션은 올 9월에 시작될 예정이다. 심리 치료를 원하는 여성은 ss-waware@bu.edu로 연락 하고 AWARE 웹 사이트 (www.bu.edu/awship)에서 자세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아시아 여성들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과 지역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아시아 우먼 포 헬스(Asian Women For Health)는 함혜옥 교수의 연구를 높이 사 올해의 혁신리서치 상을 수여했다.

함 교수는 “이 상을 받아야 하는 건 내가 아니라 솔직하게 아픔을 털어놓아 준 아시아 여성들일 것이다. 그들의 목소리가 될 수 있어 감사할 뿐” 이라는 겸손한 소감을 전했다.

혁신리서치상 수여식은 오는 30일 목요일 유매스 클럽 오브 보스턴(UMass Club of Boston)에서 열리는 아시아 우먼 포 헬스의 어워드 갈라(Awards Gala)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dyoo9146@bostonkorea.com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 드벌 패트릭 투자 전문 베인 캐피탈 합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드벌 패트릭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보스톤 소재 투자회사인 베인 캐피탈에서 합류할 예정이다.

올 1월, 8년간의 주지사 생활을 끝낸 드벌 패트릭이 취업하게 될 베인 캐피탈은 그의 전임자였던 미트 롬니 전 주지사가 창설한 회사로 특별한 인연이다. 특히 드벌 패트릭은 차기 잠정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등 정치권 내에서 여러가지 예측을 나왔던 유명 정치인이었으므로 상당한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는 게 보스톤 언론들의 지적이다.

드벌 패트릭은 80억불 대규모 투자회사인 베인 캐피탈에서 지금껏 다루지 않았던 기후변화, 빈곤 등 “사회적 영향력” 이 있는 분야에 투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올해로 58세인 패트릭은 흑인으로서의 최초로 베인 캐피탈의 매니징 디렉터를 역임한다.

베인에서 드벌 패트릭의 첫번째 임무는 새로운 투자 펀드를 위해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자금을 모으는 것이다. 드벌 패트릭은 건강, 환경, 에너지와 교육 지역 사회 개발을 다루는 투자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이 새로운 펀드는 단순히 인위애적인 것이 아니며 사회적 필요성을 충족시켜주면서도 이득을 창출하는 강력한 투자처를 발견하는 것이 드벌에게는 커다란 압력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과거 코카콜라와 텍사스코에서 대표 변호사로 일했던 드벌 패트릭 전 주지사는 그동안 민간 기업으로 돌아갔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그는 학교의 교직원도 고려했고, 회사운영 또는 자신의 벤처 캐피탈까지 생각해 된 것이다.

드벌의 새로운 직책에 대한 핵심 아이디어는 지난 2013년 겨울에 고안됐다. 드벌 패트릭이 도쿄에 무역 증진차 방문했던 당시 버텍스 제약회사 CEO인 조슈아 보저와 보스톤 벤처 캐피탈의 마이클 그릴리는 드벌 패트릭에서 사회적 의미를 낼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벤처 회사를 시작할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드벌 패트릭은 자신의 회사를 시작하기 보다는 베인을 선택했다. 패트릭은 보스톤 2024년 올림픽 추진위 활동 중 베인 캐피탈의 공동 소유주인 조나



드벌 패트릭 주지사가 한때 냉혹한 고용축소 등으로 비난을 받던 베인 캐피탈에 합류했다

단 레바인과 스티브 패글루카를 만나게 됐다. 드벌은 이들과 접촉하며 협상을 시작했고 그의 합류는 빠르게 성사됐다.

한편, 드벌 패트릭은 올림픽 추진위로부터 외국 홍보사절로 활동하며 하루당 \$7,500의 거금을 받기로 해 많은 주민들의 원성을 사자 무료 봉사기로 한 바 있다.

베인 캐피탈은 한 때 과도한 부채와 인원 축소 등으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2012년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베인 캐피탈과 당시 대선후보 롬니의 역할을 두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우연일 수도 있지만 드벌 패트릭은 이런 민주당 의원들과 거리를 두었고 오히려 MSNBC에 출연해서는 “완전히 건전한 회사” 라고 칭하기도 했다.

베인의 투자펀드는 일반적으로 수백만달러에 달하며 자금 동원이 그리 어렵지 않다. 베인 캐피탈의 중역들은 일부 개인 재산을 이 투자펀드에 투자기도 한다. 점차적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팬션 펀드, 엔다우먼트 그리고 빌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과 같은 비영리 펀드 투자에도 관심을 돌리고 있다.

베인 캐피탈에 합류한 패트릭은 당분간 다시 정치계로 돌아갈 계획이 없어 보인다. 오히려 민간 캐피탈 회사에서 어떻게 일해야만 향후 정치적 이력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모양새다. 향후 정치 활동에 득이 될지 해가 될지는 그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에 달려있다.

hsb@bostonkorea.com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은혜한의원

Grace Acupuncture & Oriental Medicine

원장 **백승희**
(경희한의대 42기)

각종 상해, 의료보험 취급 / 편리한 주차

781.862.1842

442 Mar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21
www.graceaom.com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름답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DongWon Kim DMD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매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BOSEC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Educational Consulting Department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Academic Tutoring Department

SAT, SSAT, TOEFL, Writing 전문 학원

대표 강사 부원장: James Kim, Harvard, Yale 철학 전공

책임 강사: Robin Burns,
Stanford Univ. English Major, MS, BA, 수석 졸업,
SAT Verbal 800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Math, Essay Writing, Physics, Chemistry, Biology, History, Spanish, French, Latin, TOEFL, SSAT, ISEE SAT, ACT

\$70-100/hr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집중반	7월6일-8월 20일, 월, 수,	10 AM-1PM	\$1250	실전 테스트 5회
개인 지도	학생이 지정		\$60-\$80 여름 특별가	전 과목

단 주 1회 실전 테스트 일은 10 AM-1:30 PM, 최소 인원 3명

여름 방학 특강 (서울)

개인지도 혹은 4인 이하 소 그룹: 문의 02-579-9731

지도과목: SAT, ACT, AP US History, AP English, SSAT, TOEFL, Reading/Writing

기숙학교 연중 프로그램(안전한 홈스테이, 항공, 교통편 제공)

Program	기간	그룹 지도	개인 지도	제공서비스
추수 감사절	11월 중순-말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성탄 휴가	12월 중순-말	SAT, SSAT,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봄방학	3월중 3주간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이 프로그램 들은 2001년 부터 6년 째 제공되고 있는 정평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학부모가 이 기간 중 한국에서 오시는 경우 편안한 장기 투숙 안내 제공.

- 주말 교통편, 홈 스테이, 학업 지도, 봉사 활동 제공 - 학생이 필요한 과목별 개인 지도, 유학생을 위한 집중 영어 쓰기 지도 제공
- 한 학교에서 3명 이상이 같은 프로그램으로 오는 경우 할인 혜택
- SAT는 CR과 Writing점수목표가 650-750사이인 학생을 목표로 함. SSAT는 80-99%를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한 클래스임.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402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전도유망 풋볼 스타 살인죄로 무기 징역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촉망 받는 타이틀엔드였던 아론 헤르난데즈가 1급 살인죄에 대한 유죄 판결과 함께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주목 받는 스포츠 스타에서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죄인이 된 것이다.

올해 25세인 아론 헤르난데즈는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패트리어츠와 4천만 달러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할 정도로 뛰어난 스포츠 선수였다. 대학 시절 플로리다 게이터스를 우승으로 이끌었으며 NFL 데뷔 이후에도 전천후로 활약이 가능한 리그 최고의 타이틀엔드 중 한 명으로 꼽혔다.

헤르난데즈는 2013년 6월 17일, 자신의 약혼자 언니의 남자 친구였던 오딘 로이드(27세)와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다툼을 벌였다. 정원으로 일하면서 주말에 아마추어 풋볼 선수로 경기를 하던 로이드는 다음 날 시체로 발견되었다.

경찰은 로이드의 살인 용의자로 헤르난데즈를 지목하고 즉각 체포했다. 로이드의 옷 주머니에서 NFL 선수가 렌트한 자동차의 열쇠가 발견되었고 살해 장소가 헤르난데즈의 집 근처였기 때문이다. 헤르난데즈의 체포 소식이 알려지자 패트리어츠는 바로 그를 팀에서 제명했다.

사건 담당 검사는 헤르난데즈가 살



한때 NFL 최고의 타이틀엔드로 꼽혔던 아론 헤르난데즈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던 집의 CCTV 기록과 통화 내역, 목격자의 증언 등을 통해 로이드가 살해 당시 헤르난데즈와 함께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로이드는 6발의 총격을 당해 사망했다.

헤르난데즈는 범행 당시 친구 2명과 함께 있었다. 이들은 헤르난데즈의 살인 행위에 충격을 받고 어찌할 줄을 몰랐다고 증언했다.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친구들에 대한 재판은 차후에 열릴 예정이다.

헤르난데즈는 로이드 외에도 2012년에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사람을 죽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로이드가 헤르난데즈의 2012년 살인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살해 당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헤르난데즈의 2012년 살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로이

드 살인 사건과 별개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헤르난데즈는 2012년에 차를 탄 상태에서 2명을 총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헤르난데즈의 변호인은 경찰이 헤르난데즈의 유명세를 이용하여 표적 수사를 했고, 성급한 수사로 선부른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사 측은 헤르난데즈가 시체를 운반할 친구 2명을 미리 부른 점을 들어 사전에 범행이 계획되었다고 밝혔다.

헤르난데즈가 살던 집 CCTV에는 로이드가 살해 당한 직후 헤르난데즈가 총을 들고 지나가는 모습이 찍혔다. 그리고 살인을 저지른지 불과 몇 시간 뒤에는 같이 범행을 한 친구들, 사건 당시 아직 아기였던 자신의 딸과 함께 수영장에서 파티를 즐기는 모습도 CCTV에 찍혔다.

jsi@bostonkorea.com



샘 아담스 매출 증가해도 경영진 연봉 삭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맥주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 증가로 보스톤 비어(Boston Beer Co.)의 매출이 급성장했지만, 보스톤 비어는 샘 아담스로 유명한 보스톤의 대표적인 맥주 회사다.

보스톤 비어는 작년에 전년 대비 매출이 22퍼센트 증가해 9억 3백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고, 그에 따라 주주들에 대한 배당도 증가했다. 그러나 보스톤 비어의 최고 경영진 5명의 연봉은 8퍼센트 줄어 들었다.

보스톤 비어의 사장인 짐 코치는 스타 옵션을 제외한 작년 연봉이 91만 8천 달러였고, CEO 마틴 로퍼는 120만 달러를 받았다.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최고 경영진의

연봉이 삭감된 이유는 회사가 정한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스톤 비어는 지난 15일에 발표한 연례 재무 보고에서 "전반적으로 회사의 매출은 증가했지만, 2014년에 2013년보다 더 높은 매출 목표를 설정했다. 그에 따라 2014년 성과에 따른 보너스 역시 더 공격적으로 설정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보스톤 비어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맥주 제조 회사로 매사추세츠 자메이카 플레인에 본사를 두고 있다. 보스톤 비어는 샘 아담스라는 맥주 브랜드로 다양한 맛을 가미한 맥주를 다수 출시하며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다.

jsi@bostonkorea.com

정관장

정관장 정품은 정관장만 취급하는 "브랜드스토어"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하루 2번,
면역력을 지키는
습관

진한 홍삼파워 **홍삼정**

6년근 홍삼을 최적의 조건으로 달여 그 진액만을 농축시킨 고순도 상품으로, 한국인삼공사의 대표적 홍삼상품입니다.

240g / 120g / 30g

기력회복
감기예방
당뇨 합병증 예방
간 및 신장 기능 개선
항암효과
혈액순환 개선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기억력 개선

홍삼에도 격이 있습니다. 가족과 자신을 위해 최선을 드세요.



미주 한인의 힘 대한민국 뿌리에 있습니다



순수 홍삼의 품미
홍삼 추출액

고품질 6년근 홍삼을 사용하여 110여년의 축적된 기술로 뿌리삼 내용 성분을 그대로 추출하여 담아낸 100% 순수 홍삼 제품입니다.

30포 (한달분)

전화주문 서비스

FedEx 로 주문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781-238-0303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Burlington점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매사추세츠 하원 예산안 발표 한인들에게 어떤 영향?

2016년도에 예상되는 18억달러에 달하는 예산 적자를 보전하는데 집중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찰리 베이커 주지사가 지난 1월 2016 회기연도 예산안을 내놓은 이래 하원 예결위가 15일 자체 예산안을 발표했다. 하원의 예산안은 일부 특정분야의 예산을 증액했지만 주요 목표는 2016년도에 예상되는 18억달러에 달하는 예산 적자를 보전하는데 집중했다.

하원 예결위는 일반적인 적자 해소 방법인 지출 축소, 증세 또는 수수료인상 등의 방법을 거치지 않고 단기적인 땀질 식의 예산 편성으로 예산 적자를 메우는 정책을 선택함으로써 2017회기연도 역시 커다란 예산 적자에 직면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발표된 예산은 예결위가 작성한 것으로 대부분은 주지사의 원안과 큰 차이가 없다. 주지사가 제안했던 여러가지 단기처방이 다시 등장하며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노력들이 보인다. 대표적인 방법이 다음 세가지다.

- **비상 보유금으로 저축될 예정인 자금을 현재 사용하는 것.**
- **건강보험료 지불을 2016년 회기연도가 마감될 때까지 연기**
- **과거 세금을 보고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금보고 사면을 제공한다.**

하원 예산 편성은 세금을 어떤 분야에 얼마만큼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특히 교육과 대중교통, 건강보험 등의 예산이 중요하다. 예산의 편성에 따라 한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달라진다. 예산편성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하원예산과 주지사 예산의 다른점은 하원과 주지사의 제안예산이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일부 분야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다. 특히 주지사의 예산 발표 후 여러 비판이 집중되는 곳의 예산을 증액한 흔적이 역력하다.

주지사가 사법부의 예산을 대폭 축소하면서 주 대법원장이 이 같은 예산 상황하에서는 법원직원들의 대량해고 사태를 감당해야 한다며 비난하자 하원은 사법부에 대한 예산을 늘렸다. 또한 윌리엄 겔빈 주무장관이 2016년 대통령 예비선거를 치르기 어려울 정도의 적은 예산이라고 주무부 예산의 축소를 지적하면서 이곳 또한 예산이 늘어났다. 여타 저소득층과 관련된 예산도 일부 변경됐다.

• **주택 -** 주지사와 하원 모두 홈리스 지원 예산을 늘렸지만 주지사와 하원은 집중 지점이 달랐다. 하원은 이를 렌트비 보조를 늘리는 방법을 택했다. 아파트 렌트비 보조 바우처에 대한 예산을 늘린 반면 주지사는 집을 잃을 위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조를 늘리는 방법을 택했다.

• **조기 유아 교육 -** 아동들을 위한 교육부의 조기교육 보조 프로그램의 대기자 명단이 대폭 늘어나면서 드벌 패트릭 주지사의 경우 이에 대한 예산을 늘려 이 대기자 명단을 줄이는데 집중해 왔다. 그러나 베이커 주지사는 이 분야를 우선시 하지 않았다.

하원은 대신 5백만달러를 증액시켜 833명의 어린이를 대기자들에게 보조를 줄 수 있도록 했고, 또한 조기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키 위한 비용 8백만달러를 추가로 배정했다. 흑 자녀들의 프리 스쿨 또는 데이케어 보조를 위해 신청한 부모들에게는 희소식이다.

• **필름 텍스 -** 지난 예산에서 논란의 중심이 됐던 영화제작사 세금 감면 프로그램을 종료하겠다고 밝히고 대신 이 자금으로 저소득 근로자들의 세금 감면을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하원은 이를 예산에 포함하지 않고 기존의 영화제작사 세금 감면프로그램을 유지시켰다.

향후 예산안 일정은
다음주 하원은 본회의를 통해 예결위의 제안을 표결하고 수정안을 제시하게 된다. 이후 상원이 자체 예산을 내놓게 된다.

예산이 크게 바뀔 가능성이 있나?
상원예산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예산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며 더구나 증세를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하원도 크게 변화하지 않는 상황에서 커다란 예산변경을 할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다.

예를 들어 하원이 800여명의 대기자 명단에 있는 아동들에게 조기교육 바우처를 발급할 수 있는 예산을 배정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주내 대기자 명단은 무려 1만 6천여명으로 실제적으로는 거의 아무일도 하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결국 예산은 10-20년 앞을 내다보고 배정해야 하지만 현재처럼 적자에 시달리는 이상 이 같은 대형 예산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hsb@bostonkorea.com

프랭클린 동물원 사자 크리스토퍼 인락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프랭클린 동물원이 지난 9일 명물 사자였던 크리스토퍼를 안락사시켰다.

프랭클린 파크 동물원의 유일한 사자이자 미국에서 가장 나이 많은 노의장 사자였던 크리스토퍼는 올해 21살로 플로리다 사파리에서 태어나 지난 2001년 프랭클린 파크 동물원으로 이송해 왔다.

일반적으로 사자의 수명인 17년을 훨씬 넘어 생존했던 크리스토퍼는 2년전부터 급격한 노쇠화를 겪어 왔으며 낮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양지바른 곳에 누워 시간을 보냈다.

동물원 수의사인 존 라인한은 “최근 크리스토퍼는 급격히 식욕을 잃고 때로는 제대로 의식을 찾지 못했다”고 상태를 전했다. 의료진은 지난 1월 혈액검사, 엑스레이, 초음파 등을 통해 그의 상태를 확인했으며 신장기능 악화, 만성 간염, 관절염 등의 질환을 발견했다. 그 같은 질환을 발견하면서 동물원 측은 크



지난 2011년 따뜻한 바위 위에 올라가 포효하던 크리스토퍼의 모습

리스토퍼의 전신을 중단했었다. 크리스토퍼는 하루에 몇번씩 가장 높은 바위위에 올라가 동물원을 썰렁썰렁 울리도록 포효해 사람들을 몰려들게 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심지어는 바로 옆에 있는 프랭클린 파크 골프코스에서도 그의 포효를 들을 수 있었을 정도였다. 이제 그의 포효는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됐다.

hsb@bostonkorea.com

MBTA 야간 운행 시간 단축 운영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주 교통부는 심야 대중교통 운행서비스를 현재 상태로 운영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보고 규모를 축소해 계속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MBTA를 감독하는 주 이사회는 15일 심야 대중교통 수요에 따라 심야운행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했지만 시간은 현재의 2:30분에서 새벽 2시로 30분 단축키로 했다. 현

행 15개이던 버스노선도 10개로 축소키로 했다. 축소되는 보스톤 시내 5개 노선은 15번, 22번, 71번, 73번 그리고 77번 버스 등이다.

야간 운행 프로그램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시작해 금요일 및 토요일 밤 새벽 2시 30분까지 주요 노선의 운행을 연장토록 시범적으로 운행해 왔다.

hsb@bostonkorea.com



NEWSTAR Realty of Boston **NEWSTAR BOSTON** **미주 전체 New Star Realty 금탑수상**

Gina Choi
Realtor, MBA
978-866-3248
ginachoi@newstarrealty.com
<http://blog.naver.com/newstargina>

안녕하세요. New Star Realty의 지니 최입니다. 1997년에 보스턴 지역으로 유학을 와서 학부과 대학원(MBA)을 마치고 다년간 BOSTON과 CAMBRIDGE 지역에서 직장 생활과 각 지역에서의 각종 단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급도 상업용이며 플랜지에도 10년 이상의 가족 비즈니스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자리에 집과 사업체 매매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xington Office
40 Weltham St., Lexington, MA 02420
Tel. (781) 259-4989

Newton Office
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55
Tel. (617) 869-4989

EXCLUSIVE : ALLSTON



24 Glenville Ave, Allston, MA 02134
For Sale: \$ 420,000 방 4개 화장실 1, 1,330 sqft
Harvard Ave 전철역, 미림, 한마루, 서울 설령탕, 한진택배 걸어서 1-2분 거리
내년 9월까지 학생들이 계약되어 있음.
현재 올스턴 지역의 CONDO 가격이 오르는 추세라 투자 가치가 높음.

EXCLUSIVE : ACTON



For Sale: \$ 229,000 3 BEDS, 2.5 BATHS, 1,594 SQ FT
학군 좋은 ACTON 지역의 타운 하우스입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10만점에 10점 일 정도로 학군이 좋습니다. 보스톤 다운타운에서 서쪽으로 약 19.5 마일입니다.
더 자세한 집 정보와 동영상은 아래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newstargina/209766588>

가족의 정착, 내집 마련, 투자이민 및 사업매매 978.866.3248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카카오톡 ID: jusrangnim

'원더 애플워치', 구글 군단 1년 이룩한 성과를 단 하루만에

(로이터=뉴스1) 국중환 기자 = 애플의 첫 스마트워치인 애플워치의 돌풍이 시작부터 거세다. 예약판매 시작 6시간 만에 모든 모델이 매진되더니 미국내 하루 판매량이 라이벌 구글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워치들의 1년 판매량을 가볍게 뛰어넘었다.

미국 리서치 전문 업체 슬라이스인 텔리전스와 투자은행 코웬앤코의 추산에 따르면 애플워치는 미국에서 온라인 선주문을 받기 시작한 지난 10일 하루에만 약 100만개가 팔렸다.

애플워치는 이날 1차 출시국인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등 9개국 애플 매장에서 애플워치를 전시함과 동시에 온라인 예약 판매를 시작했는데 모든 모델이 6시간 만에 품절됐다.

현지 언론들은 케이스가 알루미늄인 '애플 워치 스포츠' 10개 모델, 케이스가 스테인리스 스틸인 '애플 워치' 20개 모델, 케이스가 18K 금인 '애플 워치 이디션' 8개 모델 등 모든 모델이 6시간 만에 품절됐다고 전했다.

리서치업체는 미국에서 추산한 예약 판매량만 약 100만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100만개라는 수치의 크기는 안드로이드 군단의 실적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드러난다.

시장조사업체 캐널리스의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워치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소니, LG전자, 모토로라 등이 제작한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워치 출하량은 지난 한 해 총 72만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드로이드 측이 1년간 판매한 스마트워치보다 애플이 하루 동안 미국



내에서 예약 판매한 양이 40% 가량 많은 것이다.

한편 애플은 폭발적인 제품 주문에 맞서 공급량을 맞추기 위해 비상이 걸렸다. 애널리스트들은 애플이 신속하게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애플워치 예약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 애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일부 모델들의 경우 6월이나 돼야 배송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모델들도 물건을 받기까지 4주에서 6주 정도 걸린다.

애널리스트들은 2분기 가 끝나는 6월말까지 애플워치의 판매량이 230만대에서 400만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파이퍼제프리의 애널리스트 진 먼스터는 "전반적으로 우리는 애플의 지난 주말 예약 판매에 대해 강력한 수요와 매우 제한된 공급이 짝을 이룬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제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애플워치의 4월~6월 판매량이 230만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며 애플이 공급량을 맞추기 위해 5월 중순에서 6월 사이 생산량을 늘리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퍼시픽크레스트증권의 애널리스트들은 이에 대해 애플이 올해 2000만대의 애플워치를 생산할 수 있는 부품 주문에 나선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UBS증권은 올해 9월까지인 2015 회계연도 애플워치 판매량이 1600만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으며 2016 회계연도에는 4000만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BofA 메릴린치는 올해 6월까지 애플워치 출하량이 400만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코웬 증권은 300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한편 지난 9월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가 공개된 당일 예약 판매 실적은 약 400만대를 기록한 바 있다.

jhkuk@news1.kr



WSJ "삼성 스마트폰, 디자인부터 이윤 전략까지 애플 따라한다"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삼성의 새로운 스마트폰 갤럭시 S6엣지가 애플의 아이폰 디자인을 따라 했다는 일부의 지적을 받는 가운데 모양뿐만 아니라 이윤을 내는 전략까지도 애플을 모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삼성의 갤럭시S6 시리즈가 내장형 메모리를 탑재해 메모리 용량이 올라갈 때마다 100달러씩 휴대전화 가격을 높이는 것은 애플이 쓰는 이윤 전략이라고 보도했다.

시장조사기관 IHS에 따르면 낸드(NAND) 메모리칩을 자체 생산하는 삼성이 32기가의 메모리칩을 추가하면 13달러, 64기가를 추가하면 26달러 정도의 비용이 더 든다. 소비자들이 갤럭시S6엣지6를 살 때 32→64→128기가로 한 단계씩 용량을 늘리면 각각 100달러씩 가격이 비싸진다.

이로써 삼성은 32기가 갤럭시 S6를 판매할 때보다 64기가는 87달러, 128기가는 160달러 정도를 원가보다 더 벌게 된다고 WSJ는 전했다.

WSJ에 따르면 이는 과거 수년

간 애플이 아이폰 판매에서 이윤을 남겨온 방식이다.

디자인의 경우, 삼성은 갤럭시 S6에 배터리와 메모리카드를 갈아 끼우는 방식 대신 일체형 디자인을 채택하면서 아이폰을 따라 했다는 일부의 의견이 있었다고 WSJ는 보도했다.

WSJ는 "갤럭시S6엣지가 갤럭시S6보다 100달러가 더 비싸지만, 이들의 원가 차이는 24달러밖에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IHS가 추산한 64기가 갤럭시S6엣지의 제조원가는 290.45달러(약 31만6천원), 64기가 아이폰6플러스의 제조원가는 240.05달러(약 26만1천원)였으나 판매가격은 64기가 갤럭시S6엣지가 799.99달러(약 87만1천원), 64기가 아이폰6플러스는 849달러(약 92만4천원)였다.

WSJ는 "IHS 추산 결과에 따르면 64기가 아이폰 6의 제조 원가가 64기가 갤럭시 S6보다 50달러 더 낮았지만, 오히려 판매가격은 더 비쌌다"고 전했다.

dylee@yna.co.kr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Newton, Brookline, Boston, Cambridge, Belmont, Lexington, Waltham, Wellesley

보스톤에 처음 오시거나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스톤 일대의 아파트/콘도/주택 매매 렌트를 성심 성의껏 세심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통해 고객들의 희망사항에 맞춰 찾아드립니다.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Coldwell Banker Residential Brokerage

1261 Centre St. Newton, MA 02459
Office: 617.969.2447 Cell: 857.919.3055
Email: SeongAe.Kim@NEMoves.com

고객의 편의를 위해 주 7일 오픈

Bliss Image

FULL SERVICE DIVERSE SALON AND SPA

- 남녀헤어 (컷, 펌, 케라틴 트리트먼트, 하이라이트, 칼라, 코팅)
- 피부관리 (All types Facials and Microdermabrasion)
- 네일 (Manicure, Pedicure, Gelnail and Spa)
- 제모 (Waxing 원하시는 어느 부분이든 됩니다)
- 속눈썹 연장 (Lasts up to 3 months, Water Resistant)
- 바디 마사지 (Swedish and Deep Tissue massage)
- 영구화장 (눈썹, 아이라인, 입술, 점 등등...)

영구 화장
자연스럽고 영원한 아름다움 영구화장으로 결점을 줄이고 자신감은 높이고...

속눈썹 연장 지도해 드립니다
클래스 종료후 수료증 드립니다

11A Corinth St. Roslindal MA 02131
SHOP: 617.323.0023
CELL: 617.818.5596

Business Hours:
Mon-Sat: 9am - 7pm
Sun: 9am - 6pm
미용사 구함

엔티비 (TBO)가 티보 플레이(TBO Play)로 새롭게 도약합니다. 더 좋은 서비스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Welcome, **TBO** 한국 방송 3사 케이블 TV 무제한 시청

원하는 한국 방송 원하는 시간에 내 마음대로 무한대로 시청한다

티보 플레이만의 특별한 장점

- 화질을 비교해 보세요 HD TV의 선명한 화질
- YTN 과 아리랑 방송 24시간 실시간 방송 시작! 라이브 생방송도 즐기고 원하는 시간에 무한대 시청도
- 방송3사와 케이블 합법 계약 끊임없이 티비를 시청하세요

문의 및 연락처
보스톤코리아 TV 시업국
617.955.9112
지금 연락하세요

시니어 특별 할인!
무제한 시청 월 \$ 29.99
4월 30일까지(2년 약정시)

KBS, MBC, SBS, SBS Plus, tvN, XTV, O'live, OCN

The Best OnDemand. TBO

힐러리 '대세론' 형성하나... 벌써 지지의원 89명 확보

대권도전 일성
"개헌해서라도 정체를
선거자금 유입 막아야"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대권 도전을 선언한 미국 민주당의 유력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초반부터 '대세론'을 형성할 조짐이다.

출마 선언 불과 사흘만인 15일 현재 당내에서 89명의 지지의원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08년 대선 경선에서 최종적으로 확보했던 93명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지지의원은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미 의회전문지 더 힐(The Hill)이 자체 집계를 해 이날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하원의원의 3분의1 가량이 62명과 상원의원의 60%에 달하는 27명이 클린턴 전 장관의 대권도전에 찬성했다.

특히 클린턴 전 장관은 하원 민주당 여성의원 65명 가운데 21명의 지지를 얻어냈다. 그는 2013년에는 상원 민주당 여성의원 전원으로부터도 자신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편지를 받

은 바 있다. 더 힐은 "클린턴 전 장관이 지난 일요일 공개된 영상을 통해 공식 대권도전을 선언했지만, 오랜 기간 민주당의 1위 주자로서 지지를 구축해왔다"며 '대세론' 형성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들 중 상당수는 클린턴 전 장관의 정치자금 모금단체인 '레디포힐러리'(Ready for Hillary)에 합류해 사실상 지난해 초부터 지지활동을 펼쳐왔다고 더 힐은 전했다. 이 매체는 클린턴 전 장관에 대한 지지의원 명단을 계속 업데이트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거물 정치인' 중 한 명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해리 리드(75·네바다) 의원도 이날 CNBC 인터뷰에서 난립하는 공화당의 대선 잠룡들을 "모두 루저들(losers)"이라며 꺾아 내리면서 클린턴 전 장관을 "매우" 좋아한다고 밝혀 사실상 지지를 선언했다. 이처럼 클린턴 전 장관에 대한 대세론 형성이 가시화함에 따라 당내 경선 주자군으로 분류되는 마틴 오말리 전 메릴랜드 주지사나 버니 샌더스 버몬트 상원의원 등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기류를 바탕으로 클린턴 전 장관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출

마 선언 이틀만인 14일에는 정체 모를 자금의 정치권 유입을 막기 위한 개헌을 주장하고 나서며 주목받았다.

지난 12일 대선 출마를 공식으로 선언하고 뉴욕 주에서 미국 대선의 초반 풍향계 역할을 하는 아이오와 주 첫 유세장까지 1만마일(1천600km) 거리 유세에 뛰어들고서 내놓은 일성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클린턴 전 장관은 전날 아이오와 주 동쪽의 작은 마을인 몬티첼로의 커쿠우드커뮤니티칼리지에서 한 원탁회의에서 "우리는 고장 난 정치시스템을 고칠 필요가 있다"며 "헌법을 고쳐서라도 정체를 자금을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이러한 제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모금체제 개편을 자신의 캠프가 주력할 '4개의 큰 싸움'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이와 관련, 미 의회전문지 더 힐(The Hill)은 선거자금과 위원 결정을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클린턴 전 장관의 구상도 이와 대동소이할 것이라는 관측인 셈이다. 이를 통해 정치자금 모금단체인 슈퍼팩의 무제한 선거자금 모금에 제한을



대권 도전을 선언한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

가하고 선거자금 내용의 공개범위도 확대하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안은 미 의회에서 번번이 좌절된 것이어서 현실성에는 의문이 따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거자금 모금이 제약받을 수 없는 정치적 발언의 한 형태라고 주장하는 공화당의 반대 때문이다.

이 때문에 클린턴 전 장관의 이날 개헌을 통한 선거자금 모금체제의 개편 주장은 이른바 '편의 전쟁'으로 변질될 미국 선거에 대한 비판 여론을 고려한 '클린 정치' 선언으로 풀이된다.

이들 전 아이오와 주에서 대선 대장정의 첫 유세 테이프를 끊으면서 '대중 속으로'의 유세를 표방하고 서민의 대변자가 되겠다고 선언한 연장선에서 나온 차별화 전략이라는 것이다.

한편, 더 힐은 유력 주자인 클린턴 전 장관의 자금 동원 능력과 더불어 선두 주자가 없는 후보가 공화당에서 난립하면서 2016년 대선 비용은 최대 50억 달러로 4년 전의 배에 육박할 것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그렇다면, 역대 최고의 돈선거가 될 만한 수준이다. yy@yna.co.kr

힐러리 클린턴 대선행보 시작... 남편 '빌'은 뭘 할까?

정치력·지지율 여전히 높아
다양한 역할 가능
자칫 걸림돌 우려도
없지 않아

(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 2016년 미국 대선에 가장 유력 후보로 꼽히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역할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통령 출신인 그가 뛰어난 선거운동원이자 힐러리 캠프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는 부분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런 남편의 존재가 오히려 힐러리 전 장관의 빛을 바라게 하거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나는 군대의 한 보병일 뿐이다. 나는 무엇이든 지시받은 대로 행할 것"이라며 백의종군할 뜻을 밝혔지만 정치 전문가인 그가 적들이 득시글거리는 대선판에 부인을 혼자 보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많은 미국 유권자들은 클린턴 전 대통령이 이끌었던 1990년대의 경제

적으로 부강하고 국제적으로도 위엄 있던 미국을 기억하고 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최근 NBC뉴스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과거 모니카 르윈스키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추문에도 불구하고 긍정평가에서 56%를 기록했다.

이는 44%의 긍정평가를 받은 힐러리 전 장관에 앞서는 수치이다. 그는 부정평가에서도 26%로 36%를 얻은 힐러리 전 장관보다 나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과거 약점으로 손꼽히던 흑인 유권자들과의 좋지 못했던 관계도 2012년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적극 지원하면서 많이 해소했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부인의 선거운동에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참신하고 새로운 이미지라는 측면만 놓고 보자면 힐러리 전 장관에게 이번 대선은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68세이며 공인으로 생활한지 35년이 된 그가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69세, 한국 나이로는 71세에 첫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이는 과거 공화당 출신 보수파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취임 첫해 나이

와 같은 것은 물론 남편인 클린턴 전 대통령이나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으로 임기를 시작한 나이보다 20세 이상 많다.

이미 20여년 전에 대통령에 취임한 클린턴 전 대통령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클린턴 전 대통령은 지난 2008년 민주당 경선에 나섰던 힐러리 전 장관을 한 차례 도왔지만 민주당의 새로운 얼굴로 등장한 오바마 당시 후보에게 패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이번 대선의 당내 경선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같은 강력한 경쟁자는 아직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2008년 대선 때보다 8세나 나이를 더 먹었으며 본선에서 맞붙을 공화당에는 젊은 경쟁자들이 즐비하다. 13일(현지시간) 대선 출마를 선언한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43) 상원의원(플로리다) 보다는 무려 25살이나 많다.

힐러리 전 장관이 그간 남편의 지원사격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던 점도 클린턴 전 대통령의 역할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힐러리 전 장관은 지난해 자신의 재정과 관련한 비판 여론인 것에 대해 클린턴 전 대통령이 옹호하고 나서자 "오늘 남편이 매우 다정한 모습을 보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오른쪽)이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 귓속말을 하고 있다

여했다. 그러나 누군가 내 재정기록을 두둔해줄 필요는 느끼지 못한다. 기록 자체가 스스로를 변호한다"며 달갑지 않은 입장을 나타냈다.

브랜던 니한 다투머스대 정치학 교수는 AFP통신을 통해 "클린턴 전 대통령은 분명 재능있는 정치인이다. 그러나 그가 선거운동을 지원했던 다수의 후보들은 결국 좋지 못한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생존에 실패했다"며 "지난 2008년 힐러리 전 장관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지적했다.

니한 교수는 "힐러리 전 장관의 상황이 악화됐을 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말할 수 있는 마법의 언어는 없으며 오히려 도우려다가 스스로가 상처를

받을 수 있다"며 "그가 부인의 위기상황에서 등관할 수 있는 구원투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클린턴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도나 날카로운 분석력을 살려 기금모금책을 맡거나 막후 조연자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다만 아직 대선까지 570여일이 남은 만큼 오바마 대통령의 대선후보지명식에서 "설명 장관"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탁월한 달변가로 꼽히는 그가 어떤 식으로 부인의 백악관 입성을 도울 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findlove@news1.kr

TASTE OF KOREA

코리아나

KOREANA RESTAURANT

코리아나에서 **블랙앵거스 비프** 를 시작합니다

최상의 품질의 바베큐를 제공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BEST OF BOSTON
2006

BEST OF BOSTON
2001

BEST OF BOSTON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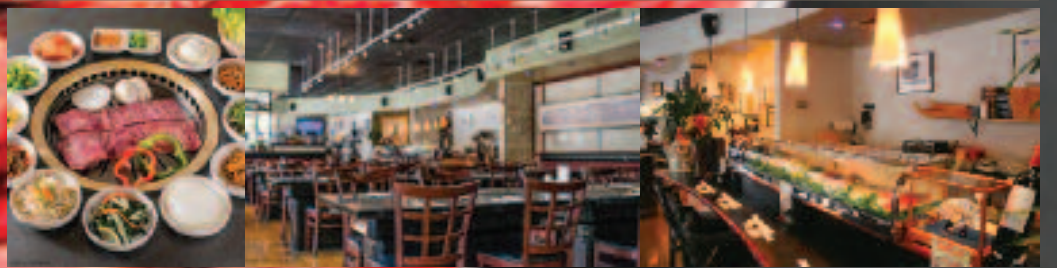


Parking Information

1. 주유소주차, Broadway Gas Station (Mon~Sat: After 6pm), (Sun, Holiday: All Day)
2. 건물 뒤 주차장, Drive Way(Behind Building) (Lunch: 4 Cars), (Dinner: 2 Cars)
3. 도로주차, Broadway Play Ground 옆 (2 Hours Free Parking: 8am~6pm), (After 6pm: Free) (Sun: All Day Free)

*이외에도 Free Parking 가능한 곳이 Restaurant 가까이에 여러곳이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최상급 블랙 앵거스 비프를 사용한 코리아나의 바베큐를 맛보세요



617.576.8661
www.koreanaboston.com

영업시간
일요일-목요일(11:30AM~10:30PM)
금요일-토요일(11:30AM~12:00AM)
158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헤어 앤드 그레이스 살롱
처음 고객님 20% 할인

**무코다
트리트먼트**

헤어컷
컬러, 하이라이트, 코팅
트리트먼트
Up-Do
메이컵
악싱
각종 펌

예약문의 **508-879-7777**
Natick Mall에서 **3분 거리**
914 Concord St.
Framingham, MA 01701

박 대통령 "누구도 용납 않을 것" 현재에 과거 씩워 '사정 광풍' 예고

사과·입장 표명 없이 세월호 회의서 강조

이완구 거취 등은 일절 언급도 안 해

(서울=경향) 이용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성완중 리스트' 파문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책을 밝혔다. 리스트가 공개된 이후 처음 공식 회의에서 내놓은 입장이었다. 핵심은 "부정부패에 책임 있는 사람은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었다.

지난 12일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전한 '측근' 이라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부패 척결 발언의 연장선이지만, 범위는 더 넓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한번 완전히 밝힐 필요가 있다" 고 대대적인 '사정 광풍' 을 예고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세월호 1주기 관련 현안점

검회의에서 "최근에 어떤 극단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안타깝다" 고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의 죽음을 거론한 뒤 "그렇다고 이 문제를 여기에서 덮고 넘어간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보이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성 전 회장 자살과 무관하게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 비리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성완중 리스트' 는 "최근에 새로운 의혹" 이라고 언급한 뒤 "문제는 정치개혁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잡고 넘어가야 할 일" 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이 굳이 세월호 관련 회의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은 여론 악화를 더 이상 방지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를 두고도 "쌓이고 쌓인 부정부패와 비리, 적당히 봐주기 등으로 이런 참극이 빚어진 것" 이라고 했다. 16일 중남미 장기출장을 떠나면서 국내를 비우게 되는 만큼 여론을 진정시킬 필요도 느꼈을 법하다.

하지만 전·현직 대통령 비서실장 모두와 정권 핵심들이 비리 의혹에 휩싸인 '현재' 에 대한 유감 표명은 없었다. 집권여당 새누리당에서도 사퇴론이 제기된 이완구 국무총리 거취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정치개혁을 명목 삼아 "과거부터 현재까지" 부패에

대해 "국민 앞에 낱알이 밝히고, 뿌리 뽑아야 한다" 는 등 사정을 예고하는 구호와 다짐만 있었다.

정치권에선 박 대통령 발언을 '대대적 사정' 으로 현재 위기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했다. 과거 문제까지 거론한 것이 이명박 정부는 물론 노무현 정부 문제까지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지금 정권의 과오를 과거의 과실(過失)로까지, 그리고 여권 권력 심부의 문제를 정치권 전체의 문제로 확대한 셈이다. '성완중 리스트' 파문이 불거지자 "성 전 회장이 노무현 정부 때 실세들에게도 광범위하게 로비활동을 했다" 는 여권 주류의 몰타기 시도와 맥락을 같이 한다.

현재 상황을 자신과는 무관한 일처럼 이야기한 박 대통령 화법도 논란이 됐다. 리스트에 지목된 인사들은 박근혜 정부 탄생 주역들이고, 이들이 금품을 수수했다면 대선 등 정권 탄생 과정에 쓰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런데도 과거 정부까지 포괄하는 부패 척결을 거론하면서 '남의 일' 처럼 말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 첫 공개 발언은 위기 수습책론 역부족으로 보인다. 대대적 사정 예고는 했지만 국민



들에게 스스로 과오를 뿌리 뽑겠다는 자성과 다짐으로 들리기보다는 또 다른 정치적 사정으로 국면을 모면하려

는 의도로 비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woody@kyunghyang.com

Cheap or Quality?

ASC : Boston's #1 ESL School

Fall class starts on September 2nd!



1 ESL or TOEFL 10% Off

Speak to an advisor now!
10% off total tuition for at least 4 months of enrollment. Limited Offer. Book by **September 2nd** for this discount.

2 What makes us different? These colleges accept...

The **Level 5** "TOEFL/IELTS Waiver" applies for

- Northeastern Univ. Pre-MBA Program
- Cambridge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 Lasell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 Lesley University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 Merrimack College Undergraduate (lv. 5) Graduate (lv. 6)
- Boston Architectural College

The **Level 4** "TOEFL Waiver" applies for

- Benjamin Franklin Institute of Technology
- Quincy College
- Middlesex Community College

The **Level 6** "TOEFL Waiver" applies for

- Southern New Hampshire University



Main: 1106 Commonwealth Ave. Boston, MA 02215 T. (617) 730-3705
Downtown: 65 Harrison Ave. 6th Fl., Boston, MA 02111 T. (617) 338-5288
Website: www.ascenglish.com

H MART

Yes, We are **OPEN 365** days a year!
SALE WEEK APR. 17TH - APR. 23RD, 2015
ONLY FOR HMART BURLINGTON STORE

STORE HOURS: SUN.-THU. 8:00 AM - 9:00 PM | FRI.-SAT. 8:00 AM - 10:00 PM
 All prices are based on availability. Typographical errors may be present in the prices and descriptions.
 수량에 따라 세일이 일찍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광고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인쇄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the start of Hmart
BBQ SEASON
thrill with your Grill.

Enjoy the fun and food with your family & friends as Hmart officially kicks off BBQ season.

드디어! 기다리던
 허마트 BBQ시즌!

USDA ORGANIC
 유기농 새송이 버섯
ORGANIC KING OYSTER MUSHROOM
 8oz./pkg. **\$3.99**

BBQ TONGS FOR BBQ LOVERS! GRILL TONGS ARE A MUST FOR ANY BBQ GRILLING.
BBQ TONG 한국산 코팅 바베큐용 집게 Medium/ea. **\$3.49**

바베큐용 냉동 삼겹살 SLICED PORK SINGLE BELLY FOR BBQ **\$5.99** lb.

MARINATED TENDERIZED SLICED BEEF RIB EYE STEAK 양념 벌집 등심 스테이크 **\$6.99** lb.

KYS-863A/ea. 헬로홈 전기 그릴 HELLO HOME ELEC. GRILL **\$42.99**

Congratulations to all the lucky winners!

MASSACHUSETTS CUSTOMER APPRECIATION SWEEPSTAKES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1st PRIZE
Zack Michal
 781XXX1967

2015 RAV 4 XLE

2nd, 3rd, 4th, 5th and 6th Prize Winners can be checked online at www.hmart.com or in-store List of the Winners Board. (Winners must pick up their prizes with proper ID and Smart Card by May 31st, 2015 at local Massachusetts Hmart locations.)

중가집
 무료 증정 이벤트
 PURCHASE SELECT CHONGGA ITEMS AND RECEIVE A FREE GIFT!

APR. 18th - APR. 19th at all Hmart MA Stores

중가집 총각김치 2.2 LBS. 구매시, 중가집 볶음김치 6.7oz. 무료 증정!
 PURCHASE CHONGGA'S CHONGGAK KIMCHI (2.2 LBS) & TAKE HOME A FREE CHONGGA'S STIR-FRIED KIMCHI (6.7oz.)

중가집 전라도 포기김치 4.18 LBS. 구매시, 중가집 옛맛 무말랭이 7.05oz. 무료 증정!
 PURCHASE CHONGGA'S JEONLADO POGGI KIMCHI (4.18 LBS) & TAKE HOME A FREE CHONGGA'S SEASONED DRIED RADISH (7.05oz.)

HMART'S SPRING BEST SELLERS SALE-A-BRATION
 허마트 봄맞이 인기 상품 모음전
 Just like a spring breeze there's only one feeling that's just as good. And that's savings!

APR. 17TH - APR. 19TH, 2015 AT ALL HMART MA STORES

Clementine 클레멘타인 lb. **\$1.49**

Fuji Apple 후지 사과 lb. **\$1.49**

FRI./SAT./SUN ONLY 17/18/19 ONLY Champagne Mango 삼페인 망고 박스 box \$10.99	Koimo Sweet Potato 코이모 고구마 lb. \$1.49	Smoked Duck 훈제 오리 lb. \$16.99	Sliced Pork CT Butt for Bulgogi 불고기용 냉동 돼지 목살 lb. \$5.99	Sliced Beef Short Plate 냉동 삼겹양지 슬라이스 lb. \$7.99	FRI./SAT./SUN ONLY 17/18/19 ONLY Uni 성게알 (우니) 2.11oz./pkg. \$6.99
Yellow Croaker 냉동 참조기 200-300's/lb. \$3.99	Cooked Snow Crab 스노우 크랩 10up/lb. \$8.99	Salted Mackerel 자반 고등어 lb. \$3.49	TONGTONGBAY Fish Tofu 통통배 두부 어묵 8.46oz. \$3.99	HARU HARU Milled Rice 하루하루 쌀 15 lbs. \$15.99	CJ Barn Barn Mee (Brown & Brown Sweet Rice) CJ 반반미 15 lbs. \$14.99
KWANGCHUN Greed Tea Seasoned Laver 광천 녹차김 선물세트 0.7oz. x 10ea./box \$9.99	HARU HARU Premium Sesame Oil 하루하루 프리미엄 참기름 56fl.oz. \$14.99	GOMPYO Wheat Flour 곰표 다목적용 밀가루 5.5 lbs. \$3.99	CHG Cooked Seasoned Loach Soup 춘향골새콤들 남원 추어탕 15.8oz. \$7.99	HARIM Instant Ginseng Chicken Stew 하림 즉석 삼계탕 28.21oz. \$9.99	OSAKI BRAND Fish Cake 오사끼 게맛살 1.1 lbs. \$5.99
DONGWON Canned Tuna w/ Hot Pepper Sauce 동원 고추 참치 5.29oz. x 4ea./pkg. \$7.99	CROWN Jollypong/ Corn Chips 크라온 조리퐁/콘칩 5.85 - 6.5oz. \$1.99	HORMEL FOODS Spam 스팸 Classic/25% Less Sodium/Lite - 12oz. 2\$6 ea./for	SCOTT Bathroom Tissue 스캇 화장지 20rolls/pkg. \$14.99	KOMAX Green Pastel Lunch Box Set 코맥스 그린 파스텔 도시락 ea. \$3.49	조지루시 실내용 전기 그릴 ZOJIRUSHI Indoor Elec. Grill EB-CC15/ea. \$69.99

세월호 1주기 전국에 추모 물결... "잊지 않겠습니다"

국민대책회의 "국가로부터 위로받지 못한 희생자와 가족들의 아픔에 오늘 대통령 담화문은 참담"

(서울=뉴스1) 류보람 기자 =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은 16일 서울과 전남 진도, 경기 안산, 인천, 광주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각계각층의 추모 행사가 이어졌다.

이날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행진과 문화제들이 거리와 광장을 메웠다.

저녁 8시 서울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범국민 국민행동' 추모 문화제에는 유가족들과 시민단체, 종교단체, 학생 등 각계각층에서 2만여명(주최측 추산·경찰 추산 1만여명)이 모여들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정부에 진상규명과 인양을 촉구했다.

이들은 밤 9시쯤부터 광화문광장으로 행진을 시작했지만 미리 पुलिस라 인과 차벽을 치고 일대를 통제하는 경찰과 대치하며 충돌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오후 6시에는 서울 중구 명동 성당에서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실종자의 넋을 기리는 추모 미사가 열렸다.

염수정 추기경과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제단의 공동집전으로 열린 미사는 고 박성호군의 어머니 정혜숙씨 등 세월호 유가족과 12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한 시간 가량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염수정 추기경은 강론에서 "1년 전 오늘 우리는 평생 잊지 못할 참담하고 통을 겪었다"며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실종자 9명이 하루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회원 60여명은 오후 4시 16분에 맞춰 서울역광장에서 춤과 음악으로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기도 했다.

이들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노래 가사에 맞추어 세월호를 들어올리는 손짓을 선보이는 등 플래시몹을 벌였다.

서울 소재 대학 학생들도 서울 도심 곳곳을 행진하며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화여대, 경희대, 숙명여대 재학생 등 950여명은 이날 오후 대학로 등에서 4개 대열을 이뤄 "세월호를 인양하라", "책임자를 처벌하라", "진상을 규명하라"고 구호를 외치며 청계광장까지 행진했다.

전남 진도 팽목항에서는 유가족들이 참석을 거부한 가운데 전라남도도와 진도군 주최로 추모행사가 열렸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은 16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악숙의 밤' 행사에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추모행사에는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과 이낙연 전남도지사, 이동진 진도군수 등 정부와 지자체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했다.

오후부터 팽목항 방파제 등대에서는 진도불교사암회의 추모법회와 천주교 광주대교구의 추모미사, 추모음악회 등이 열렸다.

경기도 안산에서는 세월호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에서 열릴 예정이던 합동 추모식이 취소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성명을 내 "참담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4·16 가족협의회와 국민대책회의

등은 이날 오전 진도 팽목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와 선체 인양 공식 선언을 해달라는 유족들의 요구에 어떤 대답도 주지 않았다며 오후 2시로 예정된 합동 추모식을 취소했다.

국민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지난 1년 국가로부터 위로받지 못한 희생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이 통곡의 바다를 채우는 오늘 대통령이 발표한 담화문은 참담하다"고 밝혔다.

인천에서는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가 중구 해양광장에서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식'을

개최했다.

추모식에는 장종열 위원장을 비롯해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들과 유정복 인천시장,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유정복 시장은 추모사에서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 그리고 형제자매들을 차갑고 황량한 먼 세상으로 보낸 것에 대해 죄송하다"며 "일반인 희생자들의 명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추모문화제와 촛불집회를 열고 세월호의 의미를 되새겼다.

padeok@news1.kr

이런 행사 뭘하러 하나? 추모 없는 '국민안전 다짐대회'

'국민안전의 날 국민안전 다짐대회' 참석찬 세월호 유족 "보여주기식 행사·내용도 없어"

(서울=뉴스1) 조재현, 황라현 기자 =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은 16일 정부 주도의 '제1회 국민안전의 날 국민안전 다짐대회'가 열렸다.

대형사고 재발을 막고 유사시 신속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다지는 자리였지만 '국민'이 빠진 관변 성격이 짙어 일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세월호 피해자 유가족과 일반 시민은 배제된 채 행사는 정작 세월호 사고 이후 변화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소개, 안전관리현장 낭독과 다짐 등으로 채워졌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을 비롯해 각 부처의 차관급 인사 13명과

시군구청 소속 안전담당 공무원, 군인, 해경, 소방관 등 각 단위에서 추천을 받아 초청된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이완구 국무총리를 대신해 대회사 낭독한 박 장관은 "국민안전처는 지휘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초기대응능력을 강화해 골든타임에 구조가 가능한 시스템을 확립했으며 지난달에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수립을 완료해 안전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회는)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기 위해 제정된 제1회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열렸다"며 "힘과 지혜를 모아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야말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뜻을 받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행사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성격이 아니었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중 '안전세월호유가족대표단' 7명이 참석했지만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참여하

거나 발언하지는 않았다.

국민의례 묵념 때 안전현장에서 순직한 소방·해경 공무원과 세월호 사고 희생자가 언급됐을 뿐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별도의 추모식이나 추모공간도 마련돼 있지 않은 채 25분 만에 끝났다.

참석자들은 안전관리현장을 낭독하며 사전에 배포한 머플러를 머리 위로 들어올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안전관리현장의 문구가 하나씩 낭독될 때마다 참석자 전원은 자리에 일어나 현장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안전한 대한민국, 우리가 만들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머플러를 흔들었다.

이와 관련 장종열 인천세월호유가족대표단 위원장은 행사 후 "세부적인 행사 내용은 모르고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 '다짐결의' 대회 정도라면 알았다"며 "그래도 1주기에 유가족을 불렀으니까 희생자에 대한 추모 내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국민안전의 날' 기념 국민안전 다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안전한 대한민국, 우리가 만들겠습니다"라고 쓰여진 수건을 들고 안전관리현장을 낭독하고 있다

이어 "그러나 유가족이 지켜볼 때는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추도가 부족했다"며 "이날 참석한 어린이 참관단에게 헌화를 하게 한다든지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어른들이 와서 '으샤으샤'하는 수준이었고, 내용상으로 아무것도 없었다. 보여주기식 행사였다"고 지적했다.

이재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은 "추모·애도를 하는 것이라면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들과 같이하는 게 맞다. 유가족과

피해자는 상관없이 '안전의 날' 행사를 한다는 것은 어쨌든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안전처를 만들었다고 해서 안전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이런 행사 정도로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면피하고 공식 추모행사도 하지 않는 것은 황당하다"고 덧붙였다.

cho84@news1.kr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여러분의 "디스크"를 수술 없이 치료해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DRX-9000

최첨단 무중력 감압 디스크 치료기로, 디스크 내부를 무중력 상태로 만들어 감압환경을 조성, 밀려난 디스크를 원상태로 복구하는 무통증 치료로 정상적인 디스크를 해하지 않으며, 근육 및 신경 또한 손상시키지 않는 디스크 치료의 필수장비입니다.



원장 윤창 교수

책임 진료

닥터스 통증병원은 28년 경력의 물리치료 전문의와 척추신경 전문의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물리치료 및 교통사고 재활치료 전문 병원으로 최신 장비와 의술로, 모든

환자분들의 환부가 손상되기전의 최고 기능을 회복하며, 신체적인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진료 장소(브룩라인, 월섬)



닥터스통증병원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DOCTORS MEDICAL PHYSIO GROUP

닥터스통증병원

GOODPT.com

브룩라인 지점(Brookline)

617-731-1001

44 Washington St, Suite 104
Brookline, MA 02445

월섬 지점(Walth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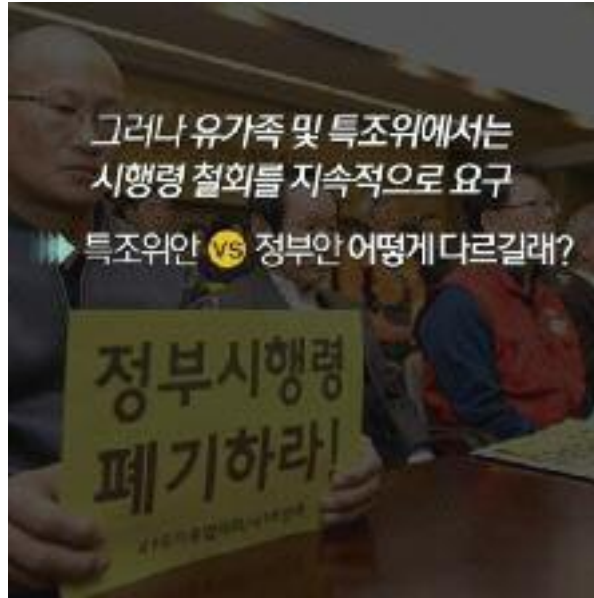
617-731-1004

221 Moody St.
Waltham, MA 02453

'시행령' 왜 유가족들이 반대하나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세월호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박근혜 대통령은 "진상규명 특별법(세월호특별법)에 따른 시행령도 원만히 해결되도록 신경을 많이 쓰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직 구성과 인력, 예산 규모 등의 내용을 담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를 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위원회와 참사 희생자·실종자 유가족 측에선 정부의 입법예고안 폐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특조위의 안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dakbom@news1.kr



Chapter 1. 활동 범위

특조위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 마련 등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정부안
 4·16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재해·재난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사항,
 4·16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사회 건설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정부안은 세월호 참사로 특별법의 적용 범위를 한정하려 한다는 이유로 반대



Chapter 2. 조사 범위

특조위
 V 4·16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 즉 사고 구조구난 작업과 정부 대응의 적절성에 대한 조사

정부안
 V 4·16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정부조사결과, 구조구난 작업에 대한 정부조사자료 분석과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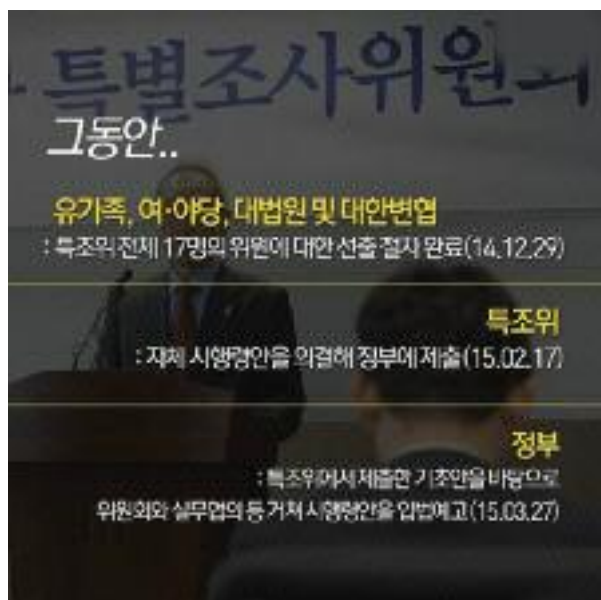
▶▶ 정부가 조사한 결과와 자료에 대해서만 조사를 한정했다는 이유로 반대

Chapter 4. 특위 인력 규모

특조위
 120명 (일반직 공무원 50명·별정직 공무원 70명)

정부안
 90명 (위원장·상임위원 등 정무직 5명·일반직 공무원 42명·별정직 공무원 43명)
 + 추가 정원시 시행령 개정

▶▶ 공무원과 민간조사관 비율을 1:1 수준으로 낮춘다는 이유로 반대



Chapter 3. 직제 구성

특조위
 V 진상규명소추 + 안전사회소추 + 지원소추 설치
 V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 채용을 우선

정부안
 V '업무(피해자 지원 분야 업무)와 사무(행정지원 사무처)의 분리 조영 식재
 V 기획전방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에 파견공무원

▶▶ 위원회 독립성 훼손과 공무원이 주도하는 직제 구성이라는 이유로 반대





서울설렁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다가오는 봄,
서울설렁탕의 파전,
족발, 보쌈, 수육과 함께
가족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렁탕
서울 on Beacon Hill

서울설렁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Seoul
155 Cambridge St. Boston
617.873.8880
SeoulFoodBoston.com



Dedicated to Your Health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PROSPECT DENTAL GROUP, LLC

Advanced Restorative Dental Clinic

프로스펙트 덴탈의 진료는 미래의 당신을 위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Eugene Khang DMD(강유진)

- 한국어 가능
- 응급환자 당일진료
- 주말 진료
- Walk-ins Welcome
- 각종 보험

원장: Eugene Khang DMD (강유진)
진료시간: 월-금: 9AM ~ 6:30PM
토: 9AM ~ 5PM



TEL: 617.576.5300
30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Redline Central Sq.역)
www.prospectdental.com



Salon Sabrina

헤어스타일리스트 영

염색과 파마로 손상된 머리결을
복구시켜 드립니다

전자 모락 트리트먼트



남자컷 25불/여자컷 30불/파마 70불 부터
디지털 130불 부터/케라틴 매직 220불 부터 시작합니다.

경력 압구정 김영남 미용실, 롯데호텔 마리 미용실, 송내 부천 박준 오픈 스텝
뉴욕 Fox헤어 스튜디오, SALON LOFTS sunny 운영

617.947.6840

25 church St. Watertown MA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 경향신문 인터뷰 전문

지난 9일 오전 숨진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이 같은날 오전 6시 경향신문 이기수 정책사회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약 50분 동안 나는 대화 내용이 15일 모두 공개됐다.

경향신문은 이날 밤 인터넷 기사를 통해 "성 전 회장의 '꼭 보도해달라', '세상에 알려 달라'는 뜻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인터뷰 전문을 지면에 실기로 했다"며 "유족도 동의 했지만 유족 측은 고인의 육성 녹음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것은 반대했다"고 녹취록 공개 배경을 설명하며 녹음 육성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녹음된 통화 전체 분량은 48분 14초로 200자 원고지 84장 분량이다.

다음은 경향신문이 공개한 성 전 회장과 경향신문 간 이뤄진 마지막 인터뷰 녹취록 전문.

-여보세요
"접니다"
-어디 지금 서산에 계신 거예요. 아니면 어디 계신 거예요.
"아니, 서울에 있어요"
-오늘 10시 반이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서, 내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너무 억울해요"
-예, 제가 어떤 상황에서 막 피를 토하는 심정인지 알겠어요. 잠깐만요. 제가 혹시 녹음되는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구요. 잠깐만요.
"예, 예"
-여보세요. 제가 아무래도 이런 거에 서툴러 갖고요. 옛날 저기(사략)여 가지고요. 어제 뱅크스클럽에서 (기자회견) 한 얘기는 잠깐 봤어요. 인터넷에 떠 있는 거는, 제가 딱 보니까 만약에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00일보 같은 데는 '시위성 매시지였나' 막 이런 얘기도 질문한 게 있던데, 그런 거를 좀 넘어서서. 팩트를 좀 얘기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예"
-그래서 그거 아침에, 어제 얘기한 걸 꼭 보면서 만약에 300억, 뭐 1조원, 그다음에 성공불용자 이런 얘기는 꼭 그냥 얘기를 풀어 가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어떤 내용이었고, 왜 그런 부분들은 검찰에서도 소명은 하셨죠.
"예, 그럼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왜 물고 늘어지는지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00일보에도 그렇게 돼 있던데, 그 2007년에 허태열 당시에 직능총괄본부장이요. 허태열 의원 만나서 박(근혜) 대통령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고 도왔다 그렇게 얘기했고,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은 공소시효 지난 게 좀 있는 거고요, 내용적으로는.
"네, 네"
-2012년에 이제 표현대로 '배지(국회의원)' 다시고요, 그때도 하신 게 뭐 있었던 거예요. 팩트로 얘기해야 되었던데, 하시려면.
"어제 기자회견은 다 보셨으니까 보시면 참고가 되실 거고요. 중요한 거는 어느 나라나 정치집단이라는 게 의리와 신뢰 속에서 서로, 어떤 때는 참 목숨까지 걸고서 정권창출 하잖아요. 신뢰를 지키는 게 정도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나는 내가 희생됨으로써 앞으로 의리와 신뢰를 지키는, 이거는 시장이 되고 정치권이 돼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간도 별로 없고 요점만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우리가 2007년부터 모시고 했고, 또 뭐 공소시효가 지나고 안 지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덕성이

중요한 거잖아요,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국민들이야 대통령이 사람이면 좋다 저 사람이면 좋다, 그분들은 신뢰를 존중하고 깨끗하게 해다오, 그게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여망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신뢰를 헌신짝 같이 버리는 그런 입장이 돼서는 안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나 하나가 희생됨으로써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사실 첫째는 개혁하고 사정한다고 그러는데 사정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사정 대상이, 사정을 해야 될 사람이, 당해야 될 사람이 거기 가서 사정한다고 소리지르고 있는 우리 이완구 총리 같은 사람, 사정 대상 사실 1호입니다. 1호인 사람이 가서 영똥한 사람. 성완중이 살아온 거하고 이완구 살아온 거하고 꼭 보시면,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청문회 자료하고 성완중이 자료하고 조사한 거 다 해서,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국민들이 다 알고 있잖습니까. 저는 아주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뭐 제가 볼 때는 이게 당에서도 성완중이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의견이 대체적으로 지배적입니다. 뭐 그거는 알아보시면 알 텐데, 어쨌든 지금 인제 청와대하고 하여튼 총리실하고 주도를 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뭐 그게 말발이 안먹히고, 아니 내가 나쁜 일을 했으면 괜찮겠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왜 그런 거 같아요, 청와대하고 총리실이.
"글쎄 뭐 언론에 보도된 대로 여러 가지 보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난 보도 보고 아는 내용인데, 왜 그런가. 어저께 (JTBC) 손석희 9시 뉴스엔가 하듯이 뉴스에 뭐 나도 봤는데, 반기문(유엔 사무총장)하고 뭐 반기문 쪽에서 그렇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신문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건 좀 웃긴 것 같구요.
"그게 말이..."
-제가 볼 때 팩트더라도 그건 웃긴 거고.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완구 총리가 사정한다 그래 가지고 충청도에 있는 회사, 쪼그만 회사, 그것도 그런 회사를 지칭을 하는지 도대체가 나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렇게 쪽 울려놓은 것들 보면서, 저는 사실 어저께 인터뷰한 것도 몰랐어요. 사실 죄송한데요. 쪽 보면서 그 만약에 어제 00일보 같은 데는 약간 김빠기식으로도 정리를 해놨던데.
"네, 네, 네"
-김빠는 거죠. 그걸 보면서 이제 중요한 거는 도왔다, 뛰었다, 누구보다도 뛰었다. 중요한 거는 회장님 판단하실 때 오늘 10시 반에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을 때는 아마 성공불용자, 그다음에 300억, 1조원 (보식회계)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셔야 할 거예요. 소명을 하셔야 할 건데, 그건 좀 이따 또 물어볼게요,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근데 그 앞서서 이제 만약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을 때, 그때 오히려 2007년에 공소시효를 진짜 떠나서 박(대통령)을 누구보다 열심히 도왔다, 그럴 때 그 팩트 얘기할 수 있으세요, 어떻게 도왔는지요.
"있죠"
-그 얘기 좀 풀어가지고.
"우선 그 우리 허태열 실장, 국회의원 당시에 제가 만났잖아요. 물론 뭐 공소시효 같은 거 지나지만, 2007년 대선 캠프때 제가 많이 도왔어요."
-도운 게 주로 그 당시에 직접 많이 뛰시는 않았을 거고.
"경선 때니까, 잘 아시다시피 기업하는 사

람들이 권력의 핵심에 있을 사람들 얘기하면 무시할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많이 도왔는데 그때 내가 한 7억, 현금 7억 주고."
-그냥 현금으로 주셨어요, 바로.
"네 그럼요. 현금으로. 우리가 그저 리베라호텔에서 만나서 몇 차례 걸쳐서 7억을 주고, 사실 그 돈 가지고 경선을 치른 겁니다."
-그때 여러 사람들이 했겠죠. 그당시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쪽 해서 한 일이 있구요."
-그걸 먼저 연락하셨어요. 아니면 예컨대 허태열 실장이 이렇게 저렇게 다 연락올 때 그 응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아니 어떤 사람이 뭐 그렇게 지저분하게, 어떤 사람이 뭐,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거 뭐 갖다주면서 할 놈 누가 있습니까."
-연락이 오면서 다 됐던 거죠? 그당시에.
"허태열 실장한테요."
"(주변 새소리)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내가 참 뉘, 다 압니다. 그쪽에서도 메인 쪽에서는, 그렇게 해서 내가 경선에 참여해서 했는데, 그리고 떨어지고 나서 두번째는 또 합당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고, 또 우리 김기춘 실장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깨끗한 사람으로 돼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진 않고요. 근데 어쨌든네.
"그 양반도 2006년 9월달에."
-이천몇년이었? 2006년?
"2006년 9월, 9월달에. 벨기에하고 독일하고 가셨잖아요. VIP(박근혜 대통령) 모시고, 그때 그 갈 때, 이 양반 그때 아인으로 놓고 계셨죠. 그 양반 이제 모시고 가게 돼서, 그 양반한테도 내가 10만불, 달러로 바꿔서 롯데호텔 그 헬스클럽에서 내가 전달해드렸고, 뭐 수행비서도 따라왔습시다만. 결과적으로 이제 신뢰관계에서 이제 오는 일이잖아요. 서로서로 돕자 하는 이런 의미에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당시에는 성심성의껏 마음의 표현 하셨던 거고요.
"그럼요. 그렇게 해서 서로가 여건이 되는 데까지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해서 이 양반이 이분 모시고 갔다 온 거고요. 또 대선 때도 우리 흥문종 같은 경우가 그 본부장을 맡았잖아요."
-대선 때라고 그러면 2012년이요.
"예, 예. 대선 때, 우리 흥문종 같은 경우도 본부장 맡았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때는 이제 회장님도 의원 되셨을 때고.
"그럼요. 통합하고 이렇게 같이 매일 움직이고 뛰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한 2억 정도 이렇게 줘서, 조직을 관리하니까."
-그랬을 거예요. 2억 주셨어요.
"예, 제가 해줬고."
-그때도 현금으로 주셨나요.
"그렇죠. 현금으로 줬죠. 줬고 그 사실 이완구도 이완구도 지난번에 보궐선거(2013년 4.24 재·보선) 했잖습니까. 근데 그 보궐선거 나온다면 머리도 크신 분이고 아무한테나 처신할 수 없고, 다 선거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다 주고받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성심성의껏 했어요."
-그때는 부여 나왔을 텐데, 부여·청양 그죠.
"예, 예. 그때도 내가 참 그 양반 공천해야 한다고 내가 서명수한테, (새누리당) 서명수 사무총장한테 많이 얘기하고, 나도 많이 거 들고, 이 양반은 참 앞으로 큰일 하실 그러한 분이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때는 얼마나 도우셨어요.
"선거사무소 거기 가서, 내가 만나질 정도



지난 9일 숨진 고 성완중 전 경남기업 전 회장

거기 있으면서 내가 이 양반한테도 한 3000만원 주고, 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인간관계를 형성해서, 무슨 뭐 조건이 있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참, 이게 참 회사 돈 빌려다가 이렇게 하고, 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잖아요. 저는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 참 내가 선진당으로 됐지만 그 이전에 내가 한나라당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 그렇게 하려고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아주 힘들게 하고 있고,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한나라당을 옛날부터 신한국당 때부터 사랑하고 아꼈잖아요. 솔직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런 심정을 서로가 이해를 하고 그래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너무너무.
-저도 어제 인터뷰할 때 나는 'MB(이명박 대통령)맨' 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 하셨던데, 실제로는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MB맨들도 많이 아시고 했던 거잖아요. 옛날에.
"아 알죠. 대통령도, MB도 알고 잘 알죠. 다 잘 알انه."
-왜 그 만약에 저도 그 부분은 묻고 싶더라고요. 그 당시에 성공불용자도 그렇고 자원의외교도 그렇고, 그 당시에 많은 기업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지금 갑자기 왜 경남기업을 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는 일단은 어제 인터뷰할 때는 나는 MB맨은 아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예컨대 인수위원회에는 2012년에 들어가셨죠.
"아니 그거 안 했어요."
-2012년에 인수위원 이름에는 올랐잖아요. 처음에는.
"어제 그거 내가 발표했잖아요. 안 들어갔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부장님한테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이런 거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조사하도록 해주시고요, 저 하나가 희생이 됨으로써 해서, 희생이 됨으로써 해서 다른 사람이 더 희생 안되도록, 다른 사람들이 나같이 희생이 안되도록."
-근데 왜 회장님을 겨냥한 겁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검찰에 충분히 소명은 하셨을 텐데 액수는 1조원이나, 300억이나.
"1조원은 말이 안되는 거고요. 이야기가 안되는 겁니다."
-계속 언론플레이를 하잖아요, 막 흘리듯이.
"예, 계속 흘리지 않습니까. 그건 말이 안되죠."
-그 300억, 1조원 부분도 설명을 할 수 있으세요. 간단하게라도 압축적으로.
"아니 300억은 어제 기자회견 때 설명 했어요."
-근데 기사를 보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내가) 쓴 걸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분석은, 분석 부분은 그거는 그 회계사나 이런 사람한테 따

져보면 그건 압니다, 내용을, 어떻게 된 건지. 검찰이 어떻게 무리하게 수사하는 건지를 다 아실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묻게 되는 게 2007년 것은 00일보에서는 김빠기식으로 했던데, 왜 이렇게 자원의외교나 이런 걸 털면서 회장님을 왜 문제 삼고 걸고 들어가는지 더 느낌이 있는 건 없으세요.
"글쎄 아가 말씀드린 대로."
-네. 특별히 밍보일 것은 없었잖아요. 밍보일 것도 없고, 그렇다고 MB맨도 아니고.
"나는 사실 대통령한테 밍보일 것도 없고, 대통령이 저를 그렇게 나쁘게 생각 안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크는 게 배아픈 거죠 뭐."
-그걸까요? 만약에 이 자들이 왜, 어떻게 표현하면, 찍어서 들어가는데 터는지, 지금 전체적인 수사는 MB맨들 아니면 MB쪽 수사를 시작하면서 나온 얘기라서. 근데 MB 때 뭐 하신 건 없죠, MB맨들을 아는 거지.
"아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워키아 웃당해 가지고 고생만 하고, 설명 어제 드렸잖아요. 제가 뭐 검찰에서 털라 그러는데 뭐 내가 줄게 있나요?"
-아 더 얘기하러요?
"딜을 내놔라 이런 얘기인데 달할 게 있어 야지요."
-저기 좀 알고 그런 부분들 아닌가요. 만약에 이상득 큰형이나 이런 쪽에.
"아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돈을 받습니까. 그 사람 나보다 돈이 수십배, 수백배 많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왜 돈을 받으려 그러겠어요."
-옛날에 회장님이란 거기서 빈 적도 있었어요, 이상득 의원은. 근데 친했던 것 이상으로 그분들을 털고 싶은 거예요.
"아 저를 털어야 뭐 나올 게 있나요"
-작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기업도 하고 정치도 하고 선진통일당 이끌면서 그런 역할 하셨잖아요, 충청도에서. 그런데 왜 이분을 이 시점에 터나, 지금 (영장실질심사)는 김도 안 좋으신 거죠, 소명은 다 하셨지만.
"그럼요. 그러니까 영장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딱 자르고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전부 다 지방신문도 그렇고 이완구 작품이다, 이완구하고 청와대 작품이다 그렇게 다 얘기를 합니다."
-이완구하고는 좀 사이가 나빠질 계기가 있으셨어요. 아가 선거 때도 좋았고 얘기를 하셨는데.
"옛날엔 좀 그랬었지만 지금은 그렇지도 않은데 갑자기 그렇게 하네요."
-그러니까 전에 안 좋았다고 그럴 때는 이완구 한나라당하고 선진당하고 이럴 때 같듯이 좀 계셨던 건가요.
"그때는 없었어요."

-근데 왜 그런지. 난 진짜. 그거예요. 결국.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장하는 거 배 아파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정치적으로요?

"네."

-근데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완구가 자기 원래 꿈이 컸잖아요. 그냥 내놓고 기자 들한테는 그러면서 관리도 한다고 그랬다가 지난해에 청문회 때 털리기도 하고 근데 정치적으로 회장님을 견제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그래서 반기문을 거기다 의식해 가지고 계속 그렇게 나왔잖아요. 계속 그렇게 나왔지 않느냐."

-이건 꼭 쓰고 안 쓰는 상관이 없는데, 반기문 쪽에 적극적으로 많이 하신 게 있으세요.

"아니, 다 알잖습니까. 내가 반기문을 대통령 만들어야 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지난해에도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그거 가지고 내가 반기문하고 가까운 건 사실이고 동생이 우리 회사 있는 것도 사실이고 우리 (총청)포럼 창립 멤버인 것도 사실이고, 사실이잖아요? 그런 요인이 제일 큰 거 아닌가."

-조직 같은 거 주도하시는 것 있으세요.

"많잖아요. 우리 부장님 아시지만 포럼도 많잖아요. 많죠."

-제가 그 전에 ○○○ 사람 만난 적도 있는데, 저도 그냥 얘기만 들었어요. 반기문 총장 할 때 국내에도 조직들이 많이 생겨 있다, 충청권에는, 그런 조직들이 실제 있는 겁니까.

"아니 나는 다른 조직은 모르겠고 우리 포럼 조직이나 재단 조직 이런 것들이 전국적인 조직으로 돼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같은 것이 큰 요인이 있었던 것 아닌가 싶고요."

-뒤에 되고 나서 이완구 총리하고, 지금 이야 총리지만 당시에는 의원이죠, 의원하고 그런 부분 대화 나누면서 빼 있게 까칠하게 얘기하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세요?

"그럼요, 그럼요."

-어떻게 이 총리가 뭐라 그러던가요. 그런 거 너무 하지 말라던가.

"아니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나요. 그렇게까지 얘기는 않죠."

-근데 어쨌든 느낌이 오게 하잖아요. 정치인들은, 그런 표현이 어떤 거였어요. 만약에 생각해보시면.

"그 뭐 프로끼리, 프로들끼리 그거 뭐 뻔히 보면 아는 것 아닙니까. 뻔히 보면 아는 거고, 너무 욕심이 많아요 그 양반은."

-자기 욕심이 많다는 거죠.

"네. 자기 욕심이, 너무 남들을 이용을 나쁘게 많이 해요. 너무, 너무 이용을 많이 해서. 그렇게 하면 안되는데 그렇게 이용을 많이 해서 사람을 많이 죽이고 그러네요."

-이완구 총리도 뭔가 맘 품었다고 느끼는 거죠. 성완중 죽이기 이런 거.

"그 사람은 제가 뭐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박근혜 대통령한테 너무 실망을 했고, 아마 나 같은 사람이 앞으로 계속 나오지 않겠나. 나같이 이렇게 희생되는 게 나 하나로 희생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국민이 여망하는 개혁을 제대로 해야죠. 부장님 나가셔서 제 회견문 쪽 보시면 거기에 제가 이렇게 한 것들 쪽 나오고요. 저는 이번 수사에 있어서 제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페이퍼컴퍼니 만들어서 처제한테 18억인가를 해줬다. 페이퍼컴퍼니 만들어서 위장모 용역계약 해줬다 그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난 전혀 몰랐지만 문제가 있다면 내가 책임을 져야죠. 사실 서민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나라 제

벌들이 자회사 만들어서 50억, 30억 만들어서 몇조씩 다 만들어 놓은 게 우리나라 큰 회사들 현실 아닙니까. 저는 땅 한평 아파트 한 채 사본 일이 없거든요. 오직 주식만 갖고 있지, 전 현금이 없어요.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모함받으니까, 세상을 살고 싶은 생각이 없고, 나 같은."

-아니요. 마음은 강하게 두세요. 너무 저기하지 마시고.

"나 같은 사람이 하나 희생됨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거고, 정치는 신뢰를 중시하는 거 아닙니까. 가족도 신뢰관계 직장도 신뢰관계인데, 그냥 이렇게 이용이라고 그럴까 완전히 병신 만드는 거잖아요."

-예컨대 희생양을.

"아니 내가 무슨 잘못된 게 없는데 이렇게 하나까 이런 말이 안되는 거죠. 말이 안되는 겁니다."

-하여간 검찰한테 소명했을 때 안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도.

"안 받아들여지니까 영장을 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영장 치겠습니까."

"그리고 2000... 흥준표가 당 대표 나왔을 때, 경남지사 하는 흥준표 있잖아요."

-그게 2010년, 2011년쯤 됩니까?

"응, 11년쯤 될 거예요. 내가 흥준표를 잘 알아요. 잘 아는데, 내가 얼마나."

-그때는 새누리당 그때는 한나라당이죠. 합당했을 때인가요.

"아니예요. 그때는 출마도 안 할 때고, 2011년도일 겁니다. 5월, 6월달쯤되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도 한나라당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내가 1억을, 내가 윤승모 있잖아요. 동아일보, 윤승모를 통해서, 윤승모가 그때 캠프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윤승모를 통해서 1억을 전달해줬고."

-저거 때인 거요? 대표 경선했을 때.

"예, 내가 뭐 그때 공천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 하나가 너무 배신감이 들고 내가 합당하면서도 백의중군한 사람 아닙니까. 뭐 장관을 달라고 했습니까. 누구 사람을 취직시켜달라 했습니까. 그런 것 안 했는데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죠."

-여권에 흑시 주유 인사들, 지금 나간 사람들한테 성완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성의배분계 많은 거죠.

"네, 그러므로, 제가 다 일일이, 왜 그러냐면, 이 뭐 저 같은 경우 수사한다고 하면 대통령 재가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조그만 기업인도 아니고 정치인인데, 내가 참여해서 정권 창출한 것은 온 시민들이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지. 제가 하나 희생양이 됨으로 해서 깨끗한 정부, 박근혜 정부가 깨끗한 정부가 돼야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희생양 삼아서요.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번에 검찰 조사도 아니 자원이 없으면 그만뒀어. 마누라, 아들 오만 생긴 것 다 해가지고 다 뒤집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가져가서 해봐도 없으니까, 가족까지 다 뒤져서, 이념을 달리하는 사상범도, 아주 요즘 무슨 뭐 뭐 마약이나 폭력범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런 마약이나 폭력범보다 더 나쁜 행위를 지금 전방위로 이렇게 하고 있고, 언론에 띄우고."

-주변을 다.

"검찰청법에 가지치기 수사(틀)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안 한다고 자기들도 술하게 발표했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수사)하면 되나. 말이 안되는 거지요."

-대개 검찰 가보면 이것저것 엉뚱한 것 많이 털어놓은 것 느끼시잖아요. 수사받으

실 때.

"그래서 이런 분야는 충분히 깨끗한 정부를 만들고 박근혜 정부가 성공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제대로 하셔야 돼요. 억울한 사람 있게 하지 말고, 신뢰와 의리 지키고, 이런 사람이 저 하나겠어요. 기업인들도 이런 사람이 저 하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되죠."

-지금 어쨌든 처음 저도 그래도 계속 보게 되는 게, 왜 경남기업을 터는지, 하나가 아니고 뭐 검찰 오랫동안 준비해온 대로 시 작을 했겠죠, 자기들 내부적으로 그런 것 보면서 포스코하고 경남기업 이렇게 세워서.

"아니 포스코는 비지금만 하잖습니까. 우리는 자원 하다 없으니까 가족관계다, 압력이다, 분식이다, 비지금이다 뭐 생길 것 다 하잖아요. 그게 말이 되나. 포스코하고도 우리하고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자원외교 쪽에는 아까 팔 날 수도 있고, 성공불용자 받은 거 이런 거에 대해 법적으로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나가는 것은 없어요. 그 부분은 소명이 되는 건가요.

"그게 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분식으로 걸어서 신용평가 좋게 해서 대출받았다 이리는데,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쪽 다 알아보니깐, 그렇지도 않아요. 충분히 다 소명이 됩니다. 분식 부분에 대해서."

-느낄 때 이완구 말씀도 하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결국은 쪽 돕고 의리 있게 하셨던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딱 자르고 희생양 삼는 느낌이 있으신 거 같아요.

"그렇죠. 솔직히 말해 청와대하고 이완구하고 짜짜공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부장님 보셨잖아요. 부장님도 언론사 간부지만 1조 분식이라고 ○○일보 1면 앞에 표지로 내놓은 거,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잘 아시지만 이거는 다 우리가 다 떨어진 거거든요, 작업진행률로, 현대중공업도 3조 이상 떨어졌고 GS건설도 한 1조 떨어내고, 현대엔지니어링도 1조 떨어내고, SK건설, 대림산업 다 그렇게 떨어졌거든요. 떨어졌는데, 그거를 다른 놈은 괜찮고 어째 우리만 그중에 제일 적은 우리만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야. 너무 졸렬하고 치사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완구나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완구는 반기문이나 다 의식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고, 정치적으로 보실 때.

"제가 제일 많이 느끼는 거지요. 어쨌든 제 작품은 너무 치졸하고, 대통령이나 청와대도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설령 이완구나 그런 사람이 그런다고 하더라도 부도덕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이게 기획수사이지 않습니까. 몇년 전부터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지요. 제가 워크아웃을 현역 의원 때 들어갔는데, 현역 의원이 워크아웃 들어간 회사가 있나 대한민국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정권에 부담을 줄까봐 내가 조용히 은행에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간 거거든요. 말이 안되는 이런 짓을 하나가. 이거 뭐 다른 길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희생되면 사회를 바로잡아주는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보도는 하시더라도 보안을 지켜서 사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오늘 하지 말고 내일자로 해주시든지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의리 없이 배신하고 그런 사람들은 사회 발전을 위해서 적절치 않다. 여러 사람 많이 있습니다."

-또 더 이 사람이다 생각나는 사람 없으세요. 아까 흥준표까지 얘기하셨고.

"이것만 해도 여러 사람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뭐 내가 스스로 국민들 앞에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내가 무슨 대가를 바라라고 내가 출세를 바라라고 그랬으면 왜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형편에 맞는 선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견 아니지 않나. 도덕성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도덕성이 제일 중요한데,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이병기 실장, 흥성 사람이고 착한 분이예요. 그분도 참 처신을 잘해야 됩니다. 이 양반도 참 나하고도 개인적으로 가깝게 지내는, 다 여기가 가까운 사람이죠. 이병기 실장이나 하태열 실장, 김기춘 실장 다 가깝게 지내는 사람인데, 이분도 처신 잘해야 해요."

-이병기 실장한테도 개인적으로 뭐 도움 주셨던 게 있으세요.

"난 그 양반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신뢰하고 의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참 잘해야지요."

-잘해야지라는 게 실제로는 청와대나 총리실이나 이렇게 정리하는 거 보면서 이번엔 실망하셨거나 화난 게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안되지요. 신뢰를 중시해야지요.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거기서 좀 팩트 있으세요. 더 얘기하고 싶은.

"아이고 뭐 뭐 하면 그 사람 물러날 텐데"

-얘기하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정치인들이야 회장님이 뭐라고 하셨을 때, 이완구가 3000만원 받아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겠지만.

"뭘 처리예요. 지가 팔려 먹었지."

-얼마든지 되칠 텐데.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탁박 느낌이 올 텐데요. 해명하기 어렵고.

"아이고 내가 얘기하면 그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건 좀 그러네요."

-일본 가 있고 그런 때문가요.

"아니예요. 그 사람은 안지 오래됐으니까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아 보여요. 하여간 맑은 사회를 부장님이 앞서서 만들어주시고 꼭 좀 이렇게 보도해주세요."

-아까 중요한 부분들에서요.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 팩트를 롯데호텔 헬스클럽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고, 하태열 실장한테 7억 주실 때 이견 몇차례 나눠준 것인가요. 리베라 호텔 얘기하셨고.

"그렇죠. 서너차례 나눠 줬지요"

-매번 직접 주셨나. 누구를 통해서 주셨나요.

"내가 직접 주었지요. 거기까지 (돈을) 가져간 것은 심부름한 사람은 우리 직원들이 있고요. 이게 그것보다도 더 훨씬 많지만 그거 뭐 7억이나 10억이나 15억이나 의미가 뭐가 있어요."

-어쨌든 의미로는 다 남아 있는 거죠. 흥문종 본부장 2억 줬을 때는 그때는 어디서 줬는지 기억하세요.

"같이 사무실 쓰고 그랬으니까요. 어울려 다니고 했으니까요. 흥문종 아버지하고 잘 알아요."

- (국회의원 지역구) 의정부잖아요.

"이 양반은 국회의원 되고 알았지만, 잘 알거든요. 아버지하고 친하고. 지방선거 때도 자기는 사무총장하고 나하고 같이 선거도 치르고. 그런데 이렇게 의리 없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이 사람도 자기가 썼겠습니까. 대통령 선거에 썼지. 개인적으로 먹을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돈은 있는 사람이고요.

"그런 거 다 신뢰를 갖고 해야 하는데. 신뢰가 안되니까 참 말을 다할 수 없어요. 말을 많이 하면 너무 지저분한 사람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실질심사 받고 안 좋은 결과 나오고 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마지막에 그냥 더 이상 나 같은 사람 아니면 이런 희생양 찾지 마라 하는 메시지일 텐데. 그런 메시지는 써도 되는 거죠.

"오후 한 5시 이후에, 한 7시 이후에 쓰실

시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부장님 부탁드립니다."

-팩트들을 적어놓고 안에 가서 보고할게요.

"저도 제일 마음이 아픈 게 제가 장학금을 2만8000명 이상 줬는데 이 장학생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장학생들이 얼마나 실망을 많이 하고, 어제도 내가 발표문에 발표했습니다만, 사회를 3만명 가까운 사람이 가족이 세 가족이어도 10만명 아닙니까. 그런 사람한테 이렇게 충격을 주고, 25년 동안에 내가 그런 사업까지 해왔는데 이런 사람을 매도해 가지고 하루아침에 잡범으로 만드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냥 그제 제일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내가 희생이 되고 죽는 한이 있어도 내 목숨으로 내가 대처를 하려고요."

-마음은 강하게 갖고 계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자기의 진실과 진실의 교백이 남들에게 인정이 안되지 않습니까."

-회장님 마음은 강하게 드셔야 됩니다. 세상 막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이 드시더라도.

"(잠시 침묵) 예, 진실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김기춘씨 거는 조선일보 9월26일자 보면 가서 VIP랑 사진 찍은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건 뭐요 9월26일자.

"2006년 9월26일자 벨기에, 독일 다니면서 활동한 것 나와요. 인터넷 들어가보면, 그거 보면 나오니까."

-다른 것보다 회장님 마음 강하게 갖고 계시어야 해요.

"네, 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나, 나중에 아실 테니까. 잘 좀 다뤄주세요. 깨끗한 정부, 진짜 박근혜 대통령이 깨끗한 사람을 앞으로 내세워서 깨끗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도와주세요."

-안에다 보고하고 정리는 할게요. 저는 그냥 어떻게 하여간 마음 강하게 잡수시라고 그 말씀드릴게요.

"분식 같은 거 이런 거, 우리 ○○○ 보좌관이 있어요. ○○○ 보좌관 아실 겁니다. 변호사들이 만든 자료가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보내드리라 할 테니까, 그걸 좀 한번 보시고 참고해주시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검찰 기자들한테도 다 전달을 할게요. 하면 되고, 지금 얘기하고 싶었던 것들은 이렇게 신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희생양 찾는 식의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정치.

"나 하나로 희생하고 끝내야죠. 내가 시장에서 부도덕한 놈, 나쁜 놈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마음 강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 보좌관에게 자료 좀 보내드리라고 할게요."

-10시반 (영장실질심사) 뒤로는 좀 더 바빠지시겠소. 줘.

"예, 예. 해해해. 새벽에 일찍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얘기 듣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어제 뱅크스클럽에서 (기자회견) 하신지도 몰랐어요. 사실은.

"그렇죠. 사회정책부 계시니까."

-노사정위 깨지는 것 때문에 정신없어서요.

"그러셨구나. 우리 장학재단 관련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잘 재단을 지켜주길 바라. 또 우리 장학금 받은 학생들이 성완중이란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꼭 좀 인식시켜 주도록 써주세요. 네, 네. 들어가십시오."

-하여간 회장님 마음 강하게 갖고 계시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답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은유, 인내, 사랑, 용납,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 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턴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 경 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보스톤은혜장로교회

BOSTON GRACE PRESBYTERIAN CHURCH

7 CLEMATIS ROAD, LEXINGTON, MA 02421
(in the Trinity Covenant Church)

주일 예배: 오후 2:00 **금요 모임: 저녁 7:30**

이 작은 살아있는 하나님서 집이요 진리의 기둥이 러니바 (8편 3:18)

담임목사: 우시창
 안 교회: (781) 715-0571 팩스: (781) 645-0407
<http://bostongracechurch.org>

뉴햄프셔한인교회

New Hampshire Korean Christian Church

주일예배 • 오후 1시30분
담임목사 • 장계은

12 Station Rd. Bedford, NH 03110 (GPS주소: #Stowthorne Dr. Bedford
 603-264-6799 • 603-264-6798 • www.newkcc.org



성암푸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Andrew's Holy Trinity of Korea Church

주일미사(한국말)

오전 11시30분 (교중미사)
오후 4시30분 (청년주관)

영어미사

오전 10시

평일미사

(화) 오전 10시30분
(목) 오후 7시30분

고백성사

미사 시작 30분전

세들어비스(요청시)

(<http://stdaveluychurch.org/오시는길>)
11:15 am. 리버사이드역 → 성당
미사 30분 후, 성당 → 리버사이드역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85
 office.kccb@gmail.com
www.stdaveluychurch.org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동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9



보스톤 남부지역 보스톤 새힘교회

주일예배 11:00 AM

617-622-5225
5 Cabot Pl, Stoughton, MA 02072
www.bostonrenewal.org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LOVE FIRST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권중상
 Faith Theological Seminary, M.Div.
 New York Univ. M.E.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총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2시
전도인 공부	오후 4시
화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역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ittleton, MA 01460 Tel: (978) 696-3293, (978) 844-2404
www.lovefirstchurch.com



“보스톤에는 보스톤코리아가 있습니다”

지난 10여년간 보스톤코리아는 보스톤 언론으로서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항상 공정하고 바른 길을 견도록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십시오. 앞으로도 보스톤 한인 역사를 공정하게 기록하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보스톤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617.792.6876
 bostonkorean@hotmail.com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토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HURAM
Medi Tour Travel Company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고국방문 검진&성형&전문치료&피부관리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휴람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Mix-it
SUSHI WOODLE GRILL

617.547.0212
Mixitrestaurant.com



FREE SPICY TUNA ROLL
with purchase of any sushi \$30 or more

WE DELIVER lunch and dinner

Mix-it Sushi Noodle Grill | 1678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8

나에게 노안이 왔다면?

박성진 원장님이 제안하는 40~50대를 위한 라식/라섹 수술
이제 휴람을 통해 눈의 불편함을 해결하세요!

1	안 종합검진 (ASA만 1시간 정도) 700만원/ 4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20만원	25만원 - 20만원
2	4050라식/라섹 / 노안 수술 레이저 노안교정	200만원 - 170만원
3	백내장 수술 (단안) 일반 백내장 근시 + 백내장 동시교정	150만원 - 110만원

속(?) “좁은 여자가 아름답다”

5% OFF

질 이완, 불감증, 요실금... 한번에 해결!

• 양귀비 수술 (시술시간 15분/ 회복시간 1시간)	150만원
• 요실금 수술 (시술시간 20분/ 회복시간 1시간)	150만원
• 이쁜이 수술 (3D리타이팅/임플란트/명품수술)	300만원
• 그 외 수술 : 음핵수술	100만원
소음순 수술	200~400만원

남성 비뇨기 정밀검진 특별할인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휴람 특별가 정밀검진을 통해 당신의 비뇨기를 점검해보세요!

배뇨장애 + 발기장애 + 갱년기 + 조루 + 비뇨기암 검진

-95만원 -80만원

남성&여성 비뇨기과 수술전문병원
한국 성과학 연구소 운영

주요수술
전립선비대증, 발기부전, 성기확대술, 조루수술, 요실금수술, 정관수술, 정관수술 정관확관술 등

이윤수 & 조성완 비뇨기과

대한민국 1등 성형외과 특별할인

안전, 윤곽, 인면, 거상술, 윤곽, 리프팅을 잘하는 한국 성형외과에서 자신감을 찾으세요!

인면거상술 (일괄)	700만원	인면거상술 (복 포합)	800만원	매쉬 리프트	300만원
5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상안검	200만원	하안검	200만원	중안면 거상	300만원
150만원	150만원	200만원			

HURAM 미국문의 보스톤코리아 617-583-2933 한국문의 82.70.4141.4040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www.huramkorea.com 이메일 huramceo@huram.kr 카카오톡 010.3469.4040 / ID: huramkorea

보스톤코리아 KOREAN GUIDE & MAP

보스톤 가이드 앤 맵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코리안 가이드 앤 맵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코리안 가이드 앤 맵이 곧 출간됩니다. 이 가이드 앤 맵은 미국 및 중국 학문, 관광, 비즈니스 등 다양한 미국 내 호텔, 관광지, 학원, 어학원, 대학 및 한국 공학 3만부를 내년 2월 말경부터 3월부터 3개월에 걸쳐 발행되는 가이드 앤 맵은 여러분의 여행을 한층 더 즐겁게 할 것입니다. 보스톤코리아가 후원하는 코리안 가이드 앤 맵의 테스트 업소에 신청을 초대합니다.

3만부를 3월부터 3개월에 한번씩 재발표

이제는 더 많은 미국, 중국, 아시아 고객들을 한국 위주로 불러들이기 할 때입니다. 지금 신청이 내년 여름은 꼭우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보스톤코리아로 연락하십시오.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Crouser & Suh PLLC

크라우저 & 서 로펌



이소영
이민 변호사

**이민법/국제법 전문 미국 로펌
한인 변호사들의, 한인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 서비스!**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단기연수인 비자 (H-3)
주재원 비자 (L-1)
특기자 비자 (O-1, P-1)
취업이민 (NW, EB-1, EB-2, EB-3)
투자비자 (E-2) / 투자이민 (EB-5)
종교 비자 (R-1) / 비자 변경 및 연장
가족초청 이민 / 시민권 신청
추방 재판 / 각종 이민 관련



스티브 서
이민 변호사

Crouser & Suh PLLC
251 Harvard Street Suite 6, Brookline, MA 02446

Tel: 617.566.7979 / 617.877.3435
Fax: 617.566.7982 www.stevesuh.com / www.suhladyer.com

줄리언 에들먼 스토리: 흙 속의 진주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4월 말에 있을 NFL 드래프트를 앞두고 어떤 선수들이 꿈의 무대에 설 수 있을지, 드래프트를 통해 어떻게 팀의 약점을 보강할 수 있을지 분석이 한창이다. 풋볼은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NFL 선수가 된다는 것은 부와 명예를 동시에 거머쥌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프로 풋볼 선수가 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드래프트를 통해 팀에 입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드래프트를 통해 프로 팀에 입단한다고 해서 모든 선수들이 성공을 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드래프트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았던 선수도 나중에 빛을 보는 경우도 있다.

지난 2009년 드래프트를 돌아보면 당시 패트리어츠의 선택은 최악에 가까운 결과를 가져왔다. NFL 최고의 감독으로 꼽히는 빌 벨리치가 선택한 선수들이지만 대부분 제대로 프로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다.

2009년 드래프트에서 패트리어츠는 첫 번째 라운드 선택권을 트레이드로 넘겼다. 두 번째 라운드부터 선수들을 선택하기 시작해 일곱 번째 라운드까지 총 12명의 선수들을 선택했다.

2009년 드래프트에서 패트리어츠 유니폼을 입었던 선수 중 가장 눈에 띄는 이름이 하나 있다. 현재 리그 최고의 슬

롯 리시버로 활약하고 있고, 지난 수퍼볼에서도 패트리어츠의 우승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선수 중 한 명인 줄리언 에들먼이다.

모든 풋볼 선수들이 자신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듯이 드래프트 대상이 되는 선수들 역시 포지션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2009년 드래프트 기록을 살펴보면 에들먼의 이름 옆에 적혀 있는 포지션은 “???” 이라고 되어 있다. 기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드래프트 되는 순간까지 에들먼은 특별한 포지션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패트리어츠 역시 에들먼을 7라운드에서 선택했지만 에들먼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계획이 없었다. 에들먼은 패트리어츠에서 와이드 리시버가 될 수도 있었고, 쿼터백이나 킥 리터너로 될 수도 있었다.

켄트 주립대학에서 에들먼은 스타 쿼터백이었지만 NFL에서는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다. 체구가 작고 운동 능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은 에들먼은 NFL에서 활용 가치가 없어 보였다.

에들먼은 ESPN과의 인터뷰에서 벨리치 감독과의 첫 대면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벨리치 감독은 “(말을 더듬으며) 에에에에에에들먼, 우리가 자네와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



줄리언 에들먼은 그래미 시상식에 초청되는 등 수퍼볼 이후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겠네. 그러나 자네는 훌륭한 풋볼 선수야” 라고 말했다.

에들먼은 자신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얻기까지 몇 년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 기간 동안 에들먼은 공격과 수비, 스페셜 팀에 모두 이름이 올라가 있는 특이한 선수였다. 전천후로 활용될 수 있는 선수인 동시에 어느 특정 포지션에서도 주전급으로 뛸 수 없는 선수였다.

에들먼은 2013년이 되어서야 빛을 보기 시작했다. 패트리어츠의 주전 리

시버였던 웨스 웰커가 2012 시즌을 마치고 브롱코스로 이적하면서 패트리어츠에는 믿을만한 와이드 리시버가 없었다. 그리고 에들먼이 쿼터백 탐 브래디의 가장 믿을만한 와이드 리시버가 되었다.

2009년 프로 데뷔 이후 2012년까지 4 시즌 동안 총 714야드만을 기록했던 에들먼은 2013년 한 시즌에만 1,056야드를 기록했다. 패트리어츠에 없어서는 안 될 리시버가 된 에들먼은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와 수퍼볼 경기에서 주요

고비마다 어려운 패스를 받아내며 패트리어츠의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수퍼볼에서 패트리어츠의 역전승을 이끈 터치다운 패스도 에들먼이 받아냈다.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에들먼은 최근 인터뷰에서 “내가 팀에 충분한 공헌을 하지 못하고 누군가 더 낮은 연봉을 받는 선수가 나타난다면, 나는 그날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했다. 프로의 세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에들먼이다. jsi@bostonkorea.com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77 태권도와 태수도(跆拳道)(1)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1961년의 5.16 군사 혁명, 주체세력들은 그들이 일으킨 군사정변을 ‘혁명’ 이라고 부른다. 정권탈취에 성공했기에 그들의 견지(Perspective)에서는 당연히 혁명이다. 112)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사태는 단지 ‘군사정변’ 으로 기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성공한 구태타이기에 정권을 잡고 권력을 누렸지, 실패하였다면 내란죄로 ‘형장의 이슬’ 로 살아졌을 것이 아니겠는가! 이 5.16으로 인하여 태권도계에도 큰 회오리 바람이 몰아쳤다. 이른바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군대 태권도는 전쟁 후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체력강화와 정신무장 등으로 수련되다가 정치적인 힘까지 받으면서 더욱 강성해졌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당시까지만 하여도 무도로 간주되었던 태권도는 경기 중심의 대회는 없었다. 그런데 5.16 후에 군사재건최고회의는 모든 사회단체는 재등록을 할 것을 포고함과 함께 유사단체 통폐합을 실시하면서 태권도는 대한체육회 산하로 들어가도록 했기에 태권도협회 역시 가입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포고령 제6호)

당시에는 초창기 관장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대한공수도회’ 와 무덕관 중심의 ‘대한수박도회’ 그리고 최흥희가 작명한 명칭인

태권도의 ‘대한태권도회’ 등이 존재하고 있었다. 하지만 군사혁명 주체가 발표한 포고령에 의해 무도계가 통폐합을 해야 했기에 그해 7월 각 관의 대표들이 모여 통합회의를 수 차례 했다. 하지만 서로가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로 통합의 길은 멀지만 했다. 모임은 또 9월 19일에도 재개되었다. 논쟁과 설전을 거듭한 끝에 반대 없이(찬성 4, 기권 2) ‘대한태수도협회’ 로 결정하였다. 처음에는 당시 무도계를 대표하는 초창기 관장들과 파생된 관의 관장들이 모두 참석했지만 회의가 거듭되면서 서로의 반목은 깊어졌으며 협회의 명칭을 결정하는 날은 6명만이 참석했다. 그리고 당시의 참석자들은 모두 30대 초중반의 사회적으로 경륜과 힘이 없었다. 그래서 회장자리는 비워두고 부회장으로 이종우(지도관)와 엄윤규(청도관)를 선출하고 협회의 위상제고와 대내외적으로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힘’ 있는 회장을 영입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했다.

장성출신인 최흥희가 당시 상황에서 보면 책임자가 될 수도 있었지만 그는 5대문과의 대다수 관장들로 부터 심한 견제를 받고 있었고, 또한 곧 말레이시아 대사로 부임하기로 되어 있었기에 제외되었다. 그래서 당시 군사혁명위원회 감찰위원장이 채명신(당시 준장)을 영입하기로 하고 백준기(청도관, 당시 대위)를 내세워 채명신을 회장으로 추대했다. 당시 대한체육회장은 군사재건최고회의의 부위원장인

이주일 준장이었다.

112) 고려를 없애고 이성계를 옹립하여 조선을 건국한 정도전, 배극렴, 조준, 남은, 이지란, 이방원 등의 주체세력들은 그들이 한 군사정변(이성계가 모든 군권을 잡고 있었지만 군사들을 직접 동원하지는 않았던 무혈 정변)을 혁명이라 불렀고 역사 역시 이것을 ‘역성혁명’ 이라고 하며, 당시의 부패한 고려는 망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신(신진사대부)들의 새로운 ‘괴’ 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 정당하다고 합리화를 했다. 하지만 ‘두문불출’ 이라는 말까지 우리에게 남기고 두문동에서 끝까지 나오질 않고 타죽은 고려의 충절한 선비들에게는 정도전 일과는 단지 역적일 뿐이다. 그러나 성공한 정변이기에 승자에게 의하여 쓰여진 역사는 두문동의 ‘충절한 선비들의 정신’ 을 기리기 보다는 조선이 하늘의 뜻에 의하여 세워졌다는 ‘용비어천가’ 를 더 귀중한 문화재(보물 제1463호 - 2006년 4월 28일 지정)로 취급하는 것이 현실이다. 역사학적인 용어 정립에서는 나라를 새로 세운 정란은 ‘혁명’ 이고 정권을 탈취한 정란은 ‘정변’ 이다. 고로 5.16은 군인들이 자행한 일이기에 그냥 ‘군사 정변’ 이다. 일례로 세조가 단종을 몰아내고 옥좌에 앉기 위한 군사행위는 혁명이 아니고 역사는 정란이라 부르며, 계유년 에 일어났기에 ‘계유정란’ 이라고 부른다.(정란의 주체세력들은 역심을 품은 민신 일파를 몰아내고 정국을 수습하였다고 하며 이사

건을 ‘민신의 난’ 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망하는 고려에서 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비운의 삶을 살았겠지만, 저무는 고려 왕실의 가장 어른으로서 본의 아니게(정변 주체세력의 강압에) 자신의 손(교서)으로 창왕, 우왕, 공양왕 등 세명의 왕을 폐위 시켜야만 했던 비운의 왕비가 있다. 정비대妃 안씨 安氏, 그는 흔히 왕대비 안씨로 불린다. 공민왕의 제4비로 입궁하였다가 아버지 안국인이 노국공주(공민왕의 비)의 영전影殿 공사를 중단할 것을 건의했다가 파직되는 관계로 왕비는 출궁되었다가 나중에 입궁하였다. 또한 정비 안씨는 공민왕이 성적으로 광란의 시기를 보내면서 자신을 지키는 자제위 병사들에게 모든 왕비들과 성관계를 강요할 때 그녀는 단호하게 거부하였다(당시 헤비 이씨, 신비 염씨와 함께 끝까지 거부하였고, 익비 한씨는 공민왕이 칼로 위협하여 흥륜, 한안 등과 관계를 하였고, 익비와 관계를 가지라는 왕명을 거역한 윤가관은 폐서인이 되기도 하였다. 계속되는 관계로 익비는 흥륜의 아이를 임신하였고 최만생이 공민왕에게 이 사실을 고하니 왕은 기뻐하며 흥륜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고, 이에 최만생과 흥륜이 공민왕을 시해하였다. 익비가 낳은 딸아이는 대신들의 건의로 우왕이 명하여 1376년에 살해되었다. 조선왕조 개국 후 그는 의화공주로 강봉되었고, 솔로 한恨 많은 세월을 보내다가 1428년(세종10년), 고려가 망하고도 30년을 더 살고 죽었다.

눈 성형수술을 고려하고 계시나요?

눈꺼풀 수술을 성형수술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자격증 있는 안과 의사에 맡기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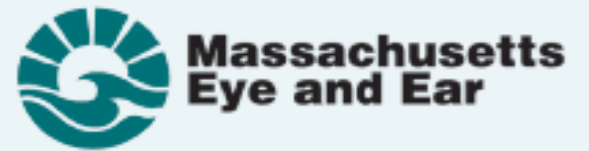
- 기능적 눈꺼풀 수술 (졸린눈, 눈 찌르는 속눈썹 교정)
- 성형 눈꺼풀 (쌍꺼풀 수술)
- 보톡스, 레스틀린, 및 기타 주입 성형물



나영 그레이스 리 (Nahyoung Grace Lee), M.D.

그레이스 리 박사는 하버드 의대, 존스 홉킨스, USC 도헤니 눈 연구소에서 수련의를 지냈습니다. 한국어, 스페인어, 영어에 능통합니다.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Boston and Waltham Locations • 617.573.5550 • MassEyeAndEar.org

HAPPY

해피돌상

고품격 전통상 대여 (백일상, 돌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꼼꼼한 전통상차림,
 소중한 내 아기에게 한국의 미를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푸짐하게!



- 품격을 더하는 화점도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기저귀 케이크
- 국내산 용기접시와 찬기, 공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춧대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Happydolsang@gmail.com



마주 최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5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억불의 매출실력 / 50여 지역 미국지사 / 한국 및 캐나다 지역지사

전 미주 지역의 Network과 Teamwork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과 New Star 부동산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영주
617-921-6979



Kwang O Kim
617-792-8615



Joanne Song
617-797-3562



Sue Rong Tsai
617-792-8842



Yukai Sun
860-830-8599



Thomas Park
617-880-9790



이제봉
781-654-5281



애나 정
617-780-1675



최진민
617-877-0387



Ritika Chopra
617-697-1191



Michael Yun
617-459-5985



OT Kim
617-620-8242

단독주택 Single Family

<p>Off Market 매물 (마켓에 아직 나오지 않았음) Wellesley Single Family</p>			
<p>\$729,000 Wellesley, MA 4 Beds, 2Baths, 18344 sf. 마스터 베드룸이 일층에 있음 중학교에 걸어서 갈 수 있음 백영주 617-921-6979</p>	<p>\$519,900 Sharon, MA 3 Beds, 2.5 Baths, 2520 sf. 세련된 스타일, cul-de-sac 살기 좋고 우수한 학교 이현주 401-935-3397</p>	<p>\$399,900 Sharon, MA 3 Beds, 2Baths, 1454 sf. 많이 수리된 좋은 주택 세련된 백야드 이현주 401-935-3397</p>	<p>\$659,000 Andover, MA 3 Beds, 2.5 Baths, 2900 sf. 안전하고 조용한 주거 환경 밝고 좋은 구조의 집 제니스리 978-806-6023</p>

단독주택 Single Family

<p>\$599,000 Bedford, MA 3 Beds, 2 Baths, 2234 sf. Quiet and nice place to live Gina Choi 978-866-3248</p>	<p>\$799,900 Woburn, MA 5 Beds, 4 Baths, 4238sf. Terrific spacious home for Large family Anna Jung 617-780-1675</p>	<p>\$699,000 Lexington, MA 5 beds, 2 baths, 2021 sf. Endless possibilities to develop Many acres of conservation OT Kim 617-620-8242</p>	<p>\$525,000 Canton, MA 3 beds, 2.5 baths, 1848 sf. Charming cape in a great Convenient Location Kwang O. Kim 617-792-8615</p>

콘도 Condominium

<p>\$420000 Boston, MA 1 Bed, 1 Bath, 474 sf. Luxury condo Jay Lee 781-654-5281</p>	<p>\$429,900 Belmont, MA 3 Beds, 1 Bath, 1245 sf. 좋은 학교, 편리한 교통 Anna Jung 617-780-1675</p>	<p>\$239,000 Acton, MA 3 Beds, 2.5 Baths, 1594 sf. Updated kitchen, floors Gina Choi 978-866-3248</p>	<p>\$318,000 Hopkinton, MA 2 Beds, 2.5 Baths, 1651 sf. 좋은 가격의 깨끗한 콘도 Michael Yun 617-459-5985</p>

<p>Investment</p> <p>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p>	<p>Restaurant</p> <p>\$150,000 Amherst, MA 한국에서 오래 장사한곳 Kwang O. Kim 617-792-8615</p>	<p>Restaurant</p> <p>\$2,600,000 Dedham, MA High traffic main road 399 seat, Full Liquor License Sue Rong Tsai 617-792-8842</p>	<p>한국프렌차이즈 가맹주 모집 Call for detail S.J Park 617-304-7001</p>
<p>Beauty School</p> <p>\$135,000 Woburn, MA 좋은 시설, 편리한 장소 Gina Choi 978-866-3248</p>	<p>Space for Business</p> <p>케임브리지 H-Mart 근처 빈자리 한인 비즈니스 최적 위치 S.J Park 617-304-7001</p>	<p>Drycleaner</p> <p>\$78,000 North Andover, MA 2 dryers 75p&65p, 2washers 45p&55p, Boiler 30p Anna Jung 617-780-1675</p>	<p>Drycleaner</p> <p>\$180,000 Bedford, MA Turn Key Business 26년동안 잘 운영된 비즈니스 Anna Jung 617-780-1675</p>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www.BostonNewStarRealty.com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969.4989 Fax. 617.969.4959
www.NewStarRealty.com

Agent 모집합니다. 781.259.사구팔구 617.969.사구팔구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www.BostonNewStarRealty.com
www.NewStarRealty.com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한국 최고 품질의 부동산 그룹 / 고객만족 /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 / 전문인력 /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 / 한국 및 해외 시장



김형진
781-956-0409



박성종
617-304-7001



Hazel Seung
617-895-7676



Shell Yu
781-526-2416



제니스 리
978-806-6023



신보경
508-361-6064



Claudia Lee
617-817-사구팔구



이현주
401-935-3397



Gina Choi
978-866-3248



Chris Ferron
978-905-9014

Restaurant  \$550,000 Cambridge, MA Center of Harvard Sq. Including Liquor license 3400 sf. Capacity of 120 people Anna Jung 617-780-1675	Full Plant Cleaner  \$180,000 Bedford, MA Established in 1989 Great potential to grow Kwang O. Kim 617-792-8615	Full Plant Cleaner  \$180,000 Salem, MA Salem Downtown Turnkey Business Kwang O. Kim 617-792-8615	Restaurant  \$690,000 Brookline, MA Coolidge Corner 전철역 근처 Restaurant w/ Liquor 5000 sf. 180 인석 Anna Jung 617-780-1675
Business Consulting  레스토랑 셋업 컨설팅 SJ Park 617-304-7001	Commercial  커머셜 건물 투자 S.J Park 617-304-7001	비즈니스 빈자리  센트랄 sq., 하버드 sq. 울스톤, 뉴튼 센터 S.J Park 617-304-7001	병원건물  \$890,000 Worcester, MA 6552 sf., 38대 주차공간 Umass Memorial 병원 옆 Anna Jung 617-780-1675
Coin Laundry  \$94,900 Brookline, MA Drop-off and coin laundry Good location for business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199,900 Newton, MA Korean-Japanese Restaurant Sushi bar and liquor license Anna Jung 617-780-1675	Sushi Bar  \$90,000 Newton, MA Good Location 성장 가능성 많은 비즈니스 Anna Jung 617-780-1675	Food Court  \$199,900 & \$99,900 Boston, MA 한식, 중식가능 큰 마켓안의 장소, 매출 좋음 Anna Jung 617-780-1675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Restaurant \$120,000 Boston, MA Beer&Wine Liquor License Anna Jung 617-780-1675	Full Plant Cleaner \$19,000 Norwood, MA 40 lbs washing machine Anna Jung 617-780-1675	Full Plant Cleaner \$699,900 North Andover, MA Full Plant, 2drop-off Anna Jung 617-780-1675
Beauty Service \$100,000 Newton, MA A turn key business Kwang O. Kim 617-792-8615	Full Plant Cleaner \$260,000 Chelmsford, MA Chelmsford downtown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2,600,000 Dedham, MA Legacy Place Center Sue Rong Tsai 617-792-8842	APT Rental 보스톤 아파트 전문가! 가격, 지역, 방 갯수 등 원하시는 조건에 맞추어 찾아 드립니다. David Kim 781-956-0409



최고의 실력과 탄탄한 경력을 갖춘 에이전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곧 전화하세요 !!!

오빠스시 OPPA SHUSHI
www.oppasushi.com

사시미:
상징적인 생어와 훈마구로 참치, 방어, 흰푸나, 레드스네피, 생굴과 생우니, 한치회무침과 배운탕까지

스시와 롤:
상징적인 훈마구로 참치, 스크티시 셀론, 라마제, 장어, 새우, 오징어 등등

**사시미 롤코스
김밥**

안녕하세요 교민여러분,
업소론에 위치한
최의 오빠스시에서
상징적이고 맛있는 사시미와
스시, 롤과 김밥을
365일 캐더링
예약 판매합니다.
각종모임에 애용바랍니다.

617-202-3808 • 18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한인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이민법 전문 변호사



스티브 서

비자 / 영주권
투자이민/취업이민
Lawcity7@gmail.com

617-877-3435

www.Stevesuh.com

Vol. 11 No.16 April 17 2015

발행처 : The Boston Korea

한인들과 함께하는 좋은 신문 Bostonkorean@hotmail.com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한진택배 HANJIN EXPRESS
HANJIN EXPRESS
보스톤 대리점

Tel 617.782.2424
175 Harvard Ave St14A, Allston, MA

업소탐방 283

새벽까지 열람

라임라이트 노래방

204 Tremont Street, Boston, MA 02116
617-423-0785
limelightboston.com

연타비 7기타 100개 (YouTube Play)로 새버도 가능합니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Welcome, **7BO** 한국 방송 3사 케이블 TV 무제한 시청

언한는 한국 방송 언한는 시가에
내마음대로 무한대로 시청하다

티보 플레이만의 특별한 장점

화질을 비교해 보세요
HD TV의 선명한 화질

YTN 과 아리랑 방송 24시간 실시간 방송 시작!
라이브 생방송도 즐기고 원하는 시간에 무한대 시청도

방송3사와 케이블 합법 계약
공급망이 티보를 시청하세요

시니어 특별 할인!
무제한 시청 월 \$ 29.99
4월 30일까지(2년 역행세)

617.955.9112
지금 연락하세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유대인 기자 = 보일 스텐 역 건너편에 위치한 라임라이트(Limelight) 노래방에 한국어 시스템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라임라이트의 마케팅을 담당하는 체리 귀(Cherry Guo)는 “어렵게 한국어 노래방 시스템을 도입했다” 며 “한인 커뮤니티도 친구들과 함께 혹은 회사 동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바란다” 고 전했다.

총 8가지 언어로 노래방을 즐길 수 있는 이곳은 주말만 되면 보스톤의 다양한 문화권의 학생들로 붐빈다. 새벽 2시까지 문을 여는 것이 라임라이트의 큰 장점으로 늦게까지 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보스톤의 학생들에게는 그야말로 ‘핫플레이스’ 다.

총 6개의 스튜디오(노래방 시설)는 오색의 조명으로 신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35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스튜디오도 있어 연말 회식이나 단체 모임 장소로 적합하다. 가장 작은 스튜디오는 한 시간에 \$60이며 35명이 들어갈 수 있는 VIP룸은 \$220이다.

한편, 미국인 손님들이 라임라이트는 찾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스테이지(Stage)다. 스테이지는 66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치 클럽처럼 노

래방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동양인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것을 쑥스러워서 주로 스튜디오를 예약하지만 미국인 손님들은 스테이지에서 노는 것을 좋아한다” 는 것이 체리 귀 마케팅 디렉터의 말이다.

주말 밤에는 보통 디제이가 초대되어 스테이지를 흥겹게 달군다. 스테이지 입장료는 별도로 구매할 수 있지만 스튜디오를 예약한 손님들은 스테이지를 무료로 함께 즐길 수 있다. 스테이지 예약은 일요일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만 가능하다.

한편, 라임라이트의 ‘특별한 서비스’ 는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제공된다. 이 시간에는 스튜디오를 예약하는 손님에게는 무알콜 음료와 과자가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특히 학생들에게는 반가운 서비스가 아닐 수 없다.

배가 출출한 손님들을 위해 야식으로 스시나 닭꼬치, 치킨, 피자 등의 음식을 판매한다. 특별히 라임라이트에서 파는 스시는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한식당 스이샤야(Suishaya)에서 제공한다. 55pc부터 93pc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 단체 손님에게 적합하다.

이 외에도 차이나타운의 유명한 맛집인 밍 다이

내스티(Ming Dynasty), 홍콩 이터리(Hong Kong Eatery), 칩픽 바베큐(Quic Pic BBQ) 등에서 제공한 음식이 판매된다.

라임라이트의 영업시간은 일요일부터 목요일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금요일과 토요일은 오후 2시부터 새벽 2시까지다. 스튜디오 입장은 만 18세 이상이며 스테이지는 만 21세 이상이다. 입장 시 정문에서 아이디 검사가 있으니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dyoo9146@bostonkorea.com



지구촌방주교회
Global Ark Baptist Church

2015 출애굽기 시리즈
주일에매 1PM, 담임목사 유영일

bgabc.org
홈페이지에서 설교, 찬양 영상 영이 설교본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493 Main St. Malden, MA 02148
TEL: 617.838.6434
global ark baptist church in malden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보스톤코리아 업소탐방

신청 방법:
전화번호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오리엔트 여행사
Orient Travel

617.536.8888
myorienttravel@gmail.com
theorienttravel@yahoo.com

CHOISIGNS & DESIGN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한인들과 함께 하는 좋은 신문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현재 한인업소록의 각종 전화번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혹 누락된 번호가 있으면 617-254-4654나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즉각 반영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견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세청	800-829-1040
날씨문의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배지역	617-345-7958
보스턴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턴수도	617-989-7000
보스턴시청	617-635-4500
보스턴경찰서	617-641-2830
사우스역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음/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허	617-351-4500
헬퍼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정신청(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 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재민정선교구협의회	978-407-7554
국제결혼가정선교구협의회	603-898-8201
뉴잉글랜드공공협회	978-902-8305
뉴잉글랜드공공연구회	978-398-3060
NE교육자협의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문인협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신학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시인협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변대전우회	617-833-1360
대매사추세츠태권도협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스톤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교과기술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무인협회	508-826-5270
이탈리아도민협회	978-514-3399
한인학교동맹회	781-424-5269
FBI 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언어이동(메인)	207-878-5652
625창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북고등학교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 신학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신학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랑	774-270-1948
서경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대학교동창회	
성균관대동창회	802-734-2521
영성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든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든교회	617-792-8780
그레이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나지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내슈아한미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성당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4500
리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밀알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톤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은혜장로교회	781-715-0571
보스톤 새로남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톤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톤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성령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톤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톤신실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레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7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미래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617-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이 베델교회	978-274-2369
엠펙스트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엠펙스트 시온교회	413-549-9200
올스톤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워싱턴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617-819-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영교회	978-390-6613
지구촌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켄싱턴성령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교회	617-441-5211

ABC골프	603-401-7990
최현정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티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류영욱)	617-777-2929
이중지리	781-591-2722
이종수파이낸스	617-799-6158

뱅통/에어콘/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도레미노래방	617-783-8900
진 노래방	617-782-9282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올스톤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보수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대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킴 동물병원	978-658-5282

떡/잔치/반찬

형제떡집	978-975-3303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단오 헤어살롱	617-413-4560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안구정중얼굴방	617-437-0378
웨스트메인헤어	508-734-0446
티케이헤어디자인	508-768-7675
프로페셔널헤어디자인	978-772-7886
헤어 스크린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Bliss Image	617-819-5596
헤어앤드그레이스살롱	508-879-7777

돌상 대여

해피돌상	617-583-2339
------	--------------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입국	617-955-9112
-----------	--------------

변호사

김경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종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시 변호사(미인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커맨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3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	--------------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트뱅크(이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	--------------

심리상담

배주은심리상담사	617-566-1055
심리상담	

김자향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양미아헤일리케어셀러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사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정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구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윤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환치과	508-987-8228
이오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	617-871-1482
퀸지스아치과	617-471-2184
퍼스트우이스덴탈그룹	781-894-1127
프록스팩트덴탈그룹	617-576-5300
한은애교정치과	781-894-1127
아이콘덴탈	781-861-8978
ASHLAND FAMILY DENTAL	508-881-7272
장승혁보철임플란트	617-489-1470
전문치과	401-729-2711

기타

메모리얼병원(병리)	203-330-8080
------------	--------------

사바로	617-964-8044
사바로스시바메규	508-898-1880
산수갑산	781-270-6200
서울실링탕	617-505-6771
수라상주문음식	978-314-9752
순두부 CHO CHO'S	617-868-4246
아라수 레스토랑	978-466-8688
아리랑주문음식/케이터링	857-919-1549
야수	617-738-2244
영차우루	617-645-9066
오백스시	617-202-3808
요시식당	617-623-9263
요코하마	978-689-4047
우리	781-859-8558
우전	781-221-8486
우정식당	978-772-5742
웨스트보로한국식당	508-366-8898
이가그릴	978-725-5222
Inaka	978-794-9806
제이피씨푸드카페	617-983-5177
청기와 레스토랑	781-391-5606
코리아나 식당	617-576-8661
코리언 그릴	617-472-1006
하나 스시	978-868-2121
한국가든	617-562-8989
한마루	617-779-7907
후지식당 (메인)	207-773-2900
Suishaya	617-423-3889
ZEN320	617-566-7800

국제보석상	617-523-2553
메타판보석	617-298-6661
우리보석	781-272-2400

미분향 보험	781-325-3406
조종은 종합보험	781-255-1134
베스트우이스한인종합보험	617-782-8800

비디오	
나비스(촬영/편집)	617-756-5744

부동산	
가나안부동산(손득한)	617-290-0623
김종희부동산	978-866-7789
김현구부동산	617-694-0985
김택은 Realtor	617-678-9330
김현정부동산	617-388-8527
백영주부동산(뉴스타)	978-239-0141
송기백부동산	781-510-9924
송현미부동산	617-835-7664
순옥원부동산	508-737-8636
신현철부동산	617-947-6293
에이블부동산(채해경)	617-868-2253
오성희부동산	617-275-3109
이경혜부동산	800-867-9000
이정선	781-874-2087
이도경(condo & rental)	781-771-0047
정혜윤부동산(EXT.125)	603-770-3491
정윤숙부동산	617-236-8600
조현경부동산	508-249-5838
프루덴셜(이효숙)부동산	203-255-2800
프루덴셜(김종미)부동산	603-845-2138

시진관	
김아람 포토그래피	617-529-0427
나비스 스튜디오	617-756-5744
영스튜디오	774-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신문) ▶수표 보내주소: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혜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MANAGER/SUPERVISOR AT
DRY CLEANING FACILITY**

Direct day-to-day assembly, delivery, and shipping department at a dry cleaning facility. Coordinate with Cleaning Department. LOCATION Brockton Mass. EXPERIENCE in Dry Cleaning business, good English, and references required. SALARY: Start \$13/hour for first 90 days. Negotiable, afterward based on demonstrated abilities, TO APPLY Fax application and resume to (888) 790-4171.

세탁소에서 프레셔와 카운터보실 분 구합니다.
T. 781-444-1653

4989 부동산매매는
뉴스나부동산
617-969-사구팔구
www.newstarrealty.com

매드포드지역 일하실분 구함.
12시-4시 또는 4시-10시, 영어가능자
T. 781-325-8001

가스펠 뮤직 그룹 멤버를 모집합니다.
각 Instrument 와 Singer.
T. 978-397-8939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일식당 매매 15K - 18K

한식 겸하면 최고 조건, 독점지역 저렴한렌트, 알차고 꾸준한 매상 두차례 영주권 내준 식당 전화번호 남겨주세요.
TEL 603-557-3123

Nail Tech

Owner retire. Well established Nail & Spa in business 15 years. 6 tables, 4 spa chairs, 3 facial/waxing room. Modern elegant environment. Steady clientele. Big cash flow. Asked for 100K.
Buyer call 781-329-2716 English or Chinese

Belmont 방렌트, 하버드스퀘어 10분
유틸리티 포함 \$800/월
T. 617-999-9290 (우정 맘)

N[매매]
치킨집, Fish(생선) 튀김가게
렌트비 월\$1,600, 면적 1,400 SF
좋은 로케이션, 주변 식당들이 모두 잘 됨. 지역은 노스케롤라이나 웨잇빌
장비는 거의 새것임
매매가격: \$70,000
T. 910-868-4499 (11AM - 7PM 까지)

N[매매]
올랜드 디즈니 인근 주유소 판매
디즈니 방향8차선 교차로 로컬몰 진입
로에 위치, 일일통행량 8만대 이상
100% Absentee Owner로 운영중
순이익 \$10,000/월, 판매가 \$250,000
lifeisgoodfl@hotmail.com
T. 863-800-0109

N[구인]
용모 단정하고 성실하신 여성분
기본급+TIP(고수입보장)
단골손님 많고 오래된 Bar
가족 같은 분위기로 함께
오래 일하실분
T. 470-428-1010

N[매매]
텍사스 샌안토니오
초가집 가라오케 매매 합니다
(하드리커 포함)
렌트 \$1,864/월
매매 \$65,000 (영주권자 이상 만 가능)
T. 210-803-5194

N[매매]
테네시에 위치한 13년된 세탁소
월마트 쇼핑몰에 위치함
매매가 \$ 320,000, 월매상 \$ 30,000
기계가 대부분 교체되어 새장비임
렌트비 월 \$ 2,500, 면적 1,600sf
T. 931-241-0415

N[매매]
플로리다 잭슨빌에 있는
스파 매매합니다.
성업중인 가게로 건강상의 문제로
매매코져 합니다.
꼭 관심있으신 분만 연락 바랍니다.
T. 321-458-2858

N[매매]
당도가 높은 콩, 간수 췌 천일염, 인디
안 스프링 약수를 사용한 전통식 된장,
간장을 판매합니다.
지방 한인 마켓이나 단체 주문시 도매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T. 678-764-0331, 678-656-9977

N[매매]
메이컨조지아 근처
동양마켓겸 한식당매매
년매상 1밀리언 이상
건강상의 문제로 성업중인
한국마켓 및 안에 있는 한식당매매
현재 일하시는 분 7명
확실한 매상 수입,
전화문의 및 방문 환영
T. 615-714-8016

N[매매]
FL Stuart에서 7년째
영업중인 일식집, 2,000 Sf, 75석
월렌트 \$2,700, 매매가 \$50,000
T. 772-285-8629

N[매매]
샬롯, NC 일식당 매매
히바치 16 그릴 스키바
7,000 SF 단독건물
좋은 조건에 팝니다
T. 406-259-6211

N[구인]
높은 수입보장(월 6천 - 1만)
손님 수준 높고 Tip도 많이 벌수 있는
기회
S 룸, 카페 마담, 아가씨 구함
산호세 지역, 숙식제공
주급+Tip 수준높은 실리콘 밸리 지역
T. 651-329-3307

Get Educated. Do More.

CLASSES STARTING SOON!
888.873.5082

CSI is the perfect choice when it comes to studying in the United States. CSI is ranked by SEVP as one of the top five F-1 and M-1 approved schools with the largest popula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Whether you are trying to apply for a student visa or transfer from another school, CSI can help.

CSI가 다른 학원들과 다른 특징 ?

- 저렴한 학비
- 인턴십을 통한 CTP획득 기회
- 영어 프로그램 공식 여름 방학
- 국제 학생입학 : 해외 학생들의 비자변경, 학교 편입을 도움

ESL Programs - \$3600 per year
English Programs - \$4200 per year
Skill Building Programs - \$4700 per year
*Books and supplies not included in tuition

COMPUTER SYSTEMS INSTITUTE
esi.csinow.edu

CAMPUS LOCATIONS
Chicago • Skokie • Lombard • Gurnee • Elgin
Charlestown/Boston • Worcester

Computer Systems Institute is approved by the Division of Private Business and Vocational Schools of the Illinois Board of Higher Education and is authorized under federal law to enroll nonimmigrant alien students. Student visa and work authorization are issued to those who qualify.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graduation rates, the median debt of students who completed the programs, and other important information, visit our website at: http://www.csinow.edu/about/calconsumer-information. Program offering varies by campus. Tuition prices effective as of 5/1/14.



스타들 '세월호 잊지 마세요'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팀 =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많은 스타들이 "세월호 잊지 마세요"라며 애도의 뜻을 표했다. 아름다운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 보여주거시 애도는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오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노란 리본 물결로 가득했다. 스타들과 정치인들도 노란 리본을 내걸며 추모에 동참했다.

걸스데이 민아는 인스타그램에 "잊지 않을게요"라는 글과 노란 리본 사진을 올렸다. 정려원 역시 "세월호 잊지 마세요"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Let's remember 2014.04.16'라는 글이 쓰인 한장의 그림을 공개했다.

또 김우빈은 생전 자신의 팬이었던 단원고 학생에게 손편지를 전달

한 사실이 알려졌다. 김우빈은 편지에 "고맙고 우리가 미안해"라고 적어 보는 이를 뭉클하게 했다.

가수 이정은 인스타그램에 "분명히 살 수 있었던 수많은 아이들과 사람들. 지금으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결코 짧지도 길지도 않은 이 시간. 바른 생각을 가진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아직도 바라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아직까지도 이래야만 하는지 하늘은 모두 보고 있었겠죠"라는 글을 게재했다.

아울러 윤종신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계정에 "2014 월간 윤종신 4월호는 없습니다"라며 노란 리본 사진을 함께 올렸다.

이밖에도 사이니 종현, 엑소 세훈카이, 김창렬, 김장훈, 김동완, 솔비,

씨니힐 승아, 2AM 조권, 홍석천 등 다수의 연예인이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

그러나 "세월호 잊지 마세요"라는 글이 단지 보여주거시 애도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남들이 다 하니까,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추모 행렬에 섞인 이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건 비단 연예인들에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 일반인들 역시 마찬가지다.

단지 말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어른들의 잘못으로 세상을 떠난 꽃다운 학생들과 모든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어떻게 더욱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할지를 고민하고 실천해야 하는 때다. uu84@news1.kr

'어벤져스2' 배우·감독, 내한

세월호 애도차 비밀리에 16일 내한

재를 진행하지 않는다. 감독과 배우들 모두 비공식으로 입국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양해를 구했다.

(서울=뉴스1스포츠) 장아름 기자 = 영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하 '어벤져스2') 제작진과 출연진이 내한한다.

'어벤져스2'의 조스 웨던 감독과 배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마크 러팔로, 크리스 에반스는 16일 비밀리에 입국한다. 어벤져스 군단에 합류해 화제를 모았던 한국 배우 수현은 지난 15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먼저 귀국했다.

앞서 '어벤져스2' 측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대한민국의 애도 분위기에 동참하고자 공항 내 포토라인 등 취

이날 입국한 제작진 및 출연진은 수현과 함께 오는 17일 오전 진행되는 내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뒤 국내 공식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후 서울무역전시장에서 진행되는 레드카펫 행사와 팬 이벤트를 통해 국내 팬들과 만날 계획이다.

'어벤져스2'는 전 세계적으로 약 15억 달러의 천문학적 흥행 수익을 기록한 영화 '어벤져스'의 속편으로, 더욱 강력해진 어벤져스가 전세계를 위협할 거대 음모를 꾸미는 최강 울트론과 맞서는 지상 최대 전쟁을 그린다. 오는 23일 국내 개봉.

aluem_chang@news1.kr



'프로듀사' 차태현, 포즈+표정이 딱 예능 PD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팀 = '프로듀사' 차태현이 예능 PD로 변신한 모습이 공개돼 본 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16일 공개된 KBS2 예능 드라마 '프로듀사'(극본 박지은/연출 표민수, 서수민) 스틸컷 속에는 '1박2일' PD 라준모로 분한 차태현의 모습이 담겨있다.

차태현은 큐시트를 들고 간의 자에 앉아 촬영 중인 출연진을 바라보고 있다. 1박2일 촬영장을 연상시키는 소품과 작가들의 모습도 눈에 띈다.

라준모는 남다른 웃음 포인트를 지녀 '예능국 펠레'로 통하는 인물이다. 특히 차태현은 실제로 현재 방송 중인 '1박2일' 고정 멤버에 이런 연관성이 더욱 흥미를 자아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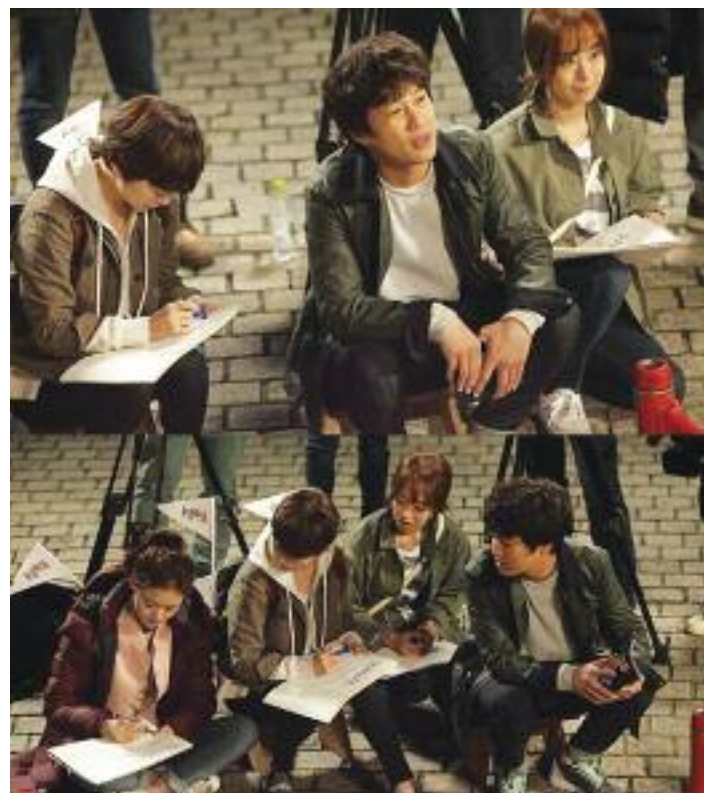
'프로듀사' 차태현 모습을 본 누리꾼들은 "'프로듀사' 차태현, 진짜 '1박2일'에서 패러디할 듯", "'프로듀사' 차태현, 완전 기대된다", "'프

로듀사' 차태현, 무조건 본방사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프로듀사'는 예능국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5월8일 첫 방송될 예정이다.

lee1220@news1.kr



차승원 '화정', 2회 만에 월화극 1위

(서울=뉴스1스포츠) 이경남 기자 = 차승원 주연의 '화정'이 방송 2회 만에 월화극 1위에 올랐다.

15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4일 밤 10시 방송된 MBC 월화드라마 '화정'은 11.8%의 전국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방송분 10.5%에 비해 1.3% 포인트 상승한 수치이자 동시간대 1위에 해당된다.

이날 방송된 '화정'(극본 김이영 /

연출 김상호 최정규) 2회에서는 역모를 꾀하다 적발된 임해군(최정환 분)을 찾아가 광해군(차승원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한편 유준상 주연의 SBS '품문으로 들었소'는 11.7%의 전국 시청률로 2위를 차지했고, 안재현 주연의 KBS2 '블러드'는 4.4%의 전국 시청률로 3위를 나타냈다.

lee1220@news1.kr



한주간



시청률 순위

2015년 4월 6일 ~ 4월 12일

Nielsen Media TV 지상파 주간시청률

1	KBS1	일일연속극(당신만이 내 사랑)	28.8%
2	MBC	주말드라마(장미빛 연인들)	25.5%
3	KBS2	주말연속극(파랑새의집)	23.0%
4	KBS1	KBS9시뉴스	16.8%
5	KBS2	일일드라마(오늘부터사랑해)	15.8%
6	KBS2	해피선데이	14.3%
7	MBC	일일특별기획(압구정백야)	13.9%
8	MBC	주말특별기획(여왕의꽃)	13.8%
8	MBC	MBC아침드라마(폭풍의여자)	13.8%
10	KBS2	수목드라마(착하지않은여자들)	13.1%

TBO Play 주간시청률

1	MBC	MBC월화드라마(빛나거나 미치거나)
2	SBS	월화드라마(풍문으로 들었소)
3	MBC	일일특별기획(압구정백야)
4	KBS2	아침드라마(그래도 푸르른 날에)
5	MBC	일일연속극(불굴의 차여사)
6	KBS1	일일연속극(당신만이 내 사랑)
7	MBC	MBC아침드라마(폭풍의여자)
8	SBS	힐링캠 - 기쁘지 아니한가
9	MBC	진짜 사나이
10	KBS2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01	다른 남자 말고 너	미쓰에이
02	Puss (Prod.by 라이머)	지민, 아이언
03	Shine Your Light	박효신
04	사월의 눈	허각
05	두사랑 (Feat. 매드클라운)	다비치
06	CALL ME BABY	EXO
07	아무도 모르게 (Prod. by MC몽)	치타, 에일리
08	벚꽃 엔딩	버스커 버스커
09	꽃이 핀다	케이윌
10	같은 시간 속의 너	나얼

숫자 퍼즐 (Sudoku)

	8			4			2
		2		8	9		
	3			6		4	7
1			5			8	9
				1			
	9	4			7		6
4		8		2			1
		5	7			6	
7			4				2

4월 19일 - 4월 25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드넓은 광야가</p> <p>●운수: 힘들게 산을 넘고 이제는 드넓은 광야가 보이게 됩니다. 근심걱정이 모두 사라지게 해주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금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원하던 돈도 들어오면서 숨통이 트일 것입니다. ●애정: 미혼남녀는 일생을 같이할 배필과의 만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갑고 기쁜 소식도 듣게 될 것입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19, 22일 길일. 21, 24일 주의.</p>	<p>소띠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p> <p>●운수: 불래지수가 상승하는 시기이니 대인관계를 잘해야 할 것입니다. ●금전: 거레에 있어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손해가 없습니다. 금전문제로 부부가 옥신각신하기 쉬우니 내가 먼저 참도록 하세요. ●애정: 새것을 취하기 위해서 옛것을 가버리고 버리지 않도록 하세요. 평도 때도 다 잃게 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15, 18일 길일. 13, 16일 주의.</p>	<p>범띠 칭찬과 찬사를 받고</p> <p>●운수: 평소에 계획한 일들을 구체화하여 추진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윗사람에게 칭찬과 찬사를 받게 되고 승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금전: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격이니 수입은 늘고 지출은 적은 주입니다. 자신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애정: 혼자 지내왔던 상태라면 이 상형의 상대를 만나게 됩니다. 아끼지기한 사랑을 속삭일 것입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21, 24일 길일. 22, 23일 주의.</p>
<p>토끼띠 단호히 결정하여</p> <p>●운수: 하고자하는 일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단호히 결정하여 시작하도록 하세요. 투자나 변동을 해도 무리가 없는 시기입니다. ●금전: 기다리는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모든 일은 지체할수록 손해가 될 것입니다. ●애정: 이성간에 있어서 결실을 기대할 수 있는 시점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이로부터 프러포즈도 받게 됩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20, 25일 길일. 22, 24일 주의.</p>	<p>용띠 냉철한 눈으로</p> <p>●운수: 자신의 능력과 실력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냉철한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분명히 생각하세요. ●금전: 금전적으로 어려울 때입니다. 꼭 들어올 돈은 미루어지고 급하게 쓸 일은 생기기 되었습니다. ●애정: 이성간이나 부부간에 조금만 건드려도 터질 것 같은 상태입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도록 하세요. 88, 76, 64, 52, 40, 28년생은 20, 24일 길일. 19, 22일 주의.</p>	<p>뱀띠 상대의 의사를 존중해야</p> <p>●운수: 가끔적이면 상대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남보다 앞서기보다는 뒤를 따르는 형식을 취하면 무난하게 넘어갈 것입니다. ●금전: 여느 때보다도 씀씀이가 많아집니다. 좀 더 알뜰하게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애정: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듯이 말이란 참으로 큰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의 화를 녹일 수 있는 말을 해보세요. 89, 77, 65, 53, 41, 29년생은 19, 24일 길일. 20, 22일 주의.</p>
<p>말띠 외유내강의 모습으로</p> <p>●운수: 외유내강의 모습으로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인심도 얻고 귀인의 협조도 얻게 됩니다. ●금전: 땅을 파다가 금을 얻는 것과 같이 뜻밖의 상황에서 금전 운이 따라옵니다. 바라는 만큼의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애정: 삶의 즐거움이나 가치는 자신이 창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상대에 의해서 흔들리는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20, 25일 길일. 19, 21일 주의.</p>	<p>양띠 현실적인 판단이</p> <p>●운수: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협조를 구해야 큰일을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보다는 현실을 고려한 판단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금전: 수입은 늘게 됩니다. 여러 면에서 발전을 가져오니 금전 운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정: 애정문제가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있군요. 인간관계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이 따르는 시기입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1, 24일 길일. 19, 22일 주의.</p>	<p>원숭이띠 인덕이 따라주어</p> <p>●운수: 주위로부터 인정을 받고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인덕이 따라줄 것입니다. 실업자는 새 직장을 얻게 됩니다. ●금전: 나갔던 돈이나 들어와야 하는 돈이 들어오니 주머니가 두둑해질 것입니다. 마음의 여유도 찾게 됩니다. ●애정: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서로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이 기회를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하세요. 92, 80, 68, 56, 44, 32년생은 22, 25일 길일. 20, 23일 주의.</p>
<p>닭띠 이정표를 찾도록</p> <p>●운수: 살아가는 데에는 길이 많지만 수많은 길 중에서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은 오직 한 길 뿐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잘 파악해서 이정표를 찾도록 하세요. ●금전: 지난날에 기울인 노력의 보람을 찾게 될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작은 것을 구하면 큰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애정: 사랑이란 진정한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9, 23일 길일. 20, 21일 주의.</p>	<p>개띠 여유 있는 마음을</p> <p>●운수: 활동의 영역을 넓혀 보려고 하는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이 따라가지 못해서 갈등을 겪게 되는 상태입니다. ●금전: 가슴을 활짝 열고 여유 있는 마음을 보여주세요. 웅충하면 그만큼의 경제적 손실이 따르게 됩니다. ●애정: 사랑의 감정에 빠져 있지만 결혼을 결심하기에는 자기 자신만이 느끼는 고민이 많은 때입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0, 24일 길일. 19, 25일 주의.</p>	<p>돼지띠 경계를 철저히</p> <p>●운수: 예상치 않은 일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낯선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고 주위와의 경계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전: 항상 분수를 지켜야 합니다. 특히 무리한 투자나 새로운 사업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애정: 서로가 서로를 바로 알지 못하면 상대를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대에 대한 깊은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21, 25일 길일. 20, 23일 주의.</p>

장동민 '무한도전' 식스맨 후보 하차

막말 사죄 의미로 사퇴 결정

(서울=뉴스1스포츠)홍인영 기자 = 장동민이 '무한도전' 후보에서 하차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개그맨 장동민 소속사 코엔스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동민이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사죄의 의미로 식스맨 후보의 자리를 내려놓기로 결정하고 제작진에게 관련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장동민은 소속사를 통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제 바람과 욕심이 '무한도전'과 '무한도전'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께 누를 끼치지 않도록 미약하나마 후보 사퇴를 통해 제 잘못에 대한 뉘우치는 마음을 전하려 한다"고 거듭 사과했다.

장동민 후보 하차 소식에 누리꾼들은 "장동민 후보 하차, 안타깝다", "장동민 후보 하차, 반성하고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장동민 후보 하차



, 더 좋은 모습 보여주길", "장동민 후보 하차, 힘 냈으면" 등 반응을 보였다.

앞서 장동민은 지난해 유상무, 유세윤과 함께 팟캐스트 '옹달샘과 꿈꾸는 라디오'를 진행했다. 당시 이들은 "여자들은 명청해서 머리가 남자한테 안 된다", "참을 수 없는 건 처녀가 아닌 여자" 등 성경험이 있는 여자를 비하했다.

이외에도 장동민은 "여자들이 명

청해서 남자한테 안 된다", "X 같은 년" 등의 원색적인 욕설 등이 담긴 발언을 일삼아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에도 녹취록이 퍼지며 논란이 커지자 장동민, 유상무, 유세윤은 사과하고 팟캐스트를 중단했다. 하지만 장동민이 MBC '무한도전' 식스맨 후보로 거론되면서 과거 논란이 다시 주목받게 됐다.

aluem_chang@news1.kr

성완중 녹취파일 방송한 JTBC 물의

경향신문 "법적 대응할 것"

(서울=뉴스1) 온라인팀 =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JTBC '뉴스룸'이 성완중 녹취파일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JTBC '뉴스룸'은 15일 2부를 통해 성완중 전 회장의 육성 인터뷰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손석희 앵커는 '뉴스룸'을 시작하면서 "성완중 전 회장의 육성 인터뷰 내용을 다른 경로를 통해 입수했다. 그 대부분을 방송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손 앵커는 "녹취와 관련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전체적인 맥락을 전달함으로써 실제에 접근하고자 인터뷰 내용의 대부분을 공개한다. 국민들의 알 권리에 부합하는 거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녹취파일은 경향신문이 성 전 회장과 인터뷰한 내용이다. 경향신문은 15일 유족의 동의를 받고 녹취파일을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유족은 고인의 육성 녹음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기에, 경향신문은 녹취록 내용만 지면에 실고 녹음 육성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이 녹취파일을 유족과 경향신문의 동의 없이 JTBC가 방송으로 공개한 것.

방송 후 경향신문은 "JTBC는 방송에 앞서 유족과 경향신문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서 "성 전 회장의 장남 승훈 씨가 JTBC 보도국에 전화를 걸어 '고인의 육성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 방송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박래용 편집국장도 '뉴



스룸' 2부가 시작되기 전 JTBC 오병상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유족들이 녹음파일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며 방영 중단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측은 "박 편집국장은 '기자가 인터뷰한 녹음파일을 아무런 동의 없이 무단 방송하는 것은 타 언론사의 취재일지를 훔쳐 보도하는 것과 다르다. 언론윤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항의했지만 '지금 방송 중단을 어렵다'며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내보냈다"고 말했다.

JTBC가 입수한 녹음파일은 이날 경향신문이 검찰에 제출할 당시 보안 작업을 도와주겠다고 자진 참여한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김인성 씨가 검찰에서 작업을 마치고 나온 뒤 넘겨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JTBC 측에 '경향신문 보도 후에 활용하라'며 녹음파일을 넘겨주었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성 전 회장의 유족과 함께 JTBC는 물론 녹음파일을 무단 유출한 김 씨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he45678@news1.kr

임형주, 세월호 추모곡 '천개의 바람이 되어' 수익금 기부

(서울=뉴스1) 온라인뉴스팀 = 임형주가 1년 전 발표한 세월호 침몰 참사 추모곡 '천 개의 바람이 되어' 수익금을 기부했다.

팝페라 가수 임형주는 지난 15일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천 개의 바람이 되어' 음원수익금 5700여 만원을 기부했다.

'천개의 바람이 되어'는 '어 사우전 드 윈즈'(A Thousand Winds)란 제목의 작자 미상의 시가 원작이다. 여기에 일본의 유명 작곡가인 '아라이

만'이 멜로디를 붙였다.

'천개의 바람이 되어' 곡에는 '나의 사진 앞에서 있는 그대 제발 눈물을 멈춰요/ 나는 그곳에 있지 않아요/ 죽었다고 생각 말아요/ 나는 천 개의 바람 천 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라는 가사가 듣는 이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든다.

한편 지난 2014년 4월16일 일어난 세월호 참사로 304명이 희생됐고 9명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아 유족들의 애

를 태우고 있다.

lee1220@news1.kr



천지보살

운명사주궁합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TV/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론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MA & NY) • NCARB • CDT • LEED AP

MA REALTOR® •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와 뉴욕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상용건물 • 콘도 • 주택 • 사업체 매매 도와드립니다

otk212@gmail.com 617.620.8242

휴람제휴
이벤트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이제 휴람을 통해 이용해보세요!

고국방문 검진&성형&전문치료&피부관리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휴람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서울메디케어
서울메디케어는 연면적 1000평에 달하는
서부권역최고 최대수준의 **대학병원급 건강검진센터**입니다

서울메디케어 · 휴람 해외동포 특별가 검진 프로그램
(수면대장내시경 포함 시 10만원 추가)

종류	남자	여자
휴람기본	62만원 → 47만원	78만원 → 59만원
휴람정밀	120만원 → 91만원	138만원 → 103만원
휴람VVIP	304만원 → 228만원	320만원 → 240만원

SEOUL MEDICARE [검진시간 안내]
평일 : 오전 8시 ~ 오후 5시 · 토요일: 오전 8시 ~ 오후 1시 · 점심시간 : 오후 1시~2시

휴람 제휴 이벤트

루트모발 이식센터

6명의 모발이식 전문의료진
4개의 모발이식 전용수술실

휴람제휴 해외동포 '특별이벤트'

모발이식 5만원씩 할인
수술후 세정제 3만5천원 Free
생각물을 도와주는 EGF가 3만원 Free

절개	비용	비절개	비용	절개+비절개	비용
4000모	290만원	2000모	400만원	7000모	790만원
5000모	390만원	2500모	450만원	8000모	990만원
		3000모	500만원		

휴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새미치과 특별할인

새미의 이벤트

오스템 임플란트 150만원 → 120만원	무삭제 라미네이트 80만원 → 60만원 <small>*부가기치세별도</small>	오스템 미백 1회 20만원 +1회 제공 <small>*부가기치세별도</small>
--------------------------------------	--	---

고국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임플란트 시술받으세요!

새미치과에서 아름답고 건강한 웃음을 찾아드립니다.

대표원장 이두형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 동부병원 치과 과장
-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치과학교실 외래교수
-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 정회원
- 대한구강보건학회 정회원

새미치과 임플란트 치아미백 치주치료 심미보철 예방치료

휴람 1주년 기념 특별가 이벤트

Professional Skin Care System

에디그 에스테틱 특별할인

에디그 에스테틱이 특별한 이유!
럭셔리인테리어와 고급관리
1:1 전문관리와 프라이빗 룸
동안 미소 스킨 케어 마사지

이태리 최상의 브랜드 사용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관리사

스페셜 힐링 케어 - Facial care + Healing back care - 120 min 19만원 → 15만원	스페셜 힐링 스칼프 케어 - Healing scalp care + Facial care - 120 min 20만원 → 16만원	스페셜 슬리밍 케어 - Facial care + Slimming leg care - 120 min 25만원 → 20만원
전신 홀리스틱 아로마 케어 - 아로마 전신케어 + 강력보습케어 32만원 → 26만원	전신 고주파 케어 - 고주파 전신케어 + 강력보습케어 38만원 → 30만원	나이가 드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아름답게 나이 드는 방법이 있다. 에디그 만의 특별한 관리로 시간의 흐름을 잠시 멈추보세요



미국문의 보스톤코리아 617-583-2993

이메일 huramceo@huram.kr

한국문의 82.70.4141.4040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카카오톡 010.3469.4040 / ID:huramkorea

광주시장 윤장현과 팝페라테너 임형주의 특강&스페셜 토크

Special Lecture&Talk with Yoon Jang-hyun, Lim Hyung-joo



광주시장 윤장현

팝페라테너 임형주

April 24, 2015 @ 6:30PM

FREE ADMISSION
(선착순 무료 입장)
전화문의: 1-347-757-0639



Questrom SMG-208 School of 'Business Room 208'
575 Commonwealth Ave, Boston, MA 02215

보스턴대학교 경영대학 내 SMG-208강의실

주체: **Artone** **DGN.com** 주관: **광주광역시**
Artone & DGN.com are the Official Supporters GWANGJU CITY

기획: **7ALJENT** 특별후원: **KISA** **한국관광공사** 미디어 특별후원: **보스톤코리아**

신영의 세상 스케치

494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꽃진 자리마다...

꽃진 자리마다

그날, 그날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어찌 말로 할 수 있을까.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은 다 같은 마음일 것이다. 자식을 잃은 슬픔을 어디에 비할 수 있으며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말이다. 4월 16일이면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이한다. 영원히 가지지 않을 슬픔과 아픔 그리고 고통을 안고 살아갈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저리고 아려온다. 어찌 남은 긴 인생 여정을 무엇으로 채우며 살까 싶은 마음에서다. 언제나처럼 4월은 유독 더 아픈 계절이기도 하다. 4월을 맞으며 아픔과 슬픔으로 남은 세월호 대참사가 떠올랐다.

먼저 '세월호 1주년'을 맞으며 사랑하는 부모와 그리고 형제·자매와 이별을 하고 세상과 작별한 어린 영혼들의 평안한 안식을 기도한다. 자식과 형제·자매를 잃고 망연자실했을 부모님과 유가족들에게도 하늘의 크신 위로를 기도를 기도한다. 부모의 아린 마음에서 저린 가슴에서 다 떠나보내질 못했을 자식에 대한 그 애절함이 어찌 그 넋을 보낼 수 있을까 말이다. 너무도 억울하고 슬픈 넋으로 남아 이생을 떠나지 못하고 머물러 있을 어린 영혼들에게 '세월호 1주기'를 맞아 평안한 영면을 위해 기도하며 추모하는 수많은 이들의 기도가 하늘에 닿기를 소망해 본다.

너무 슬플 때는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 우리

꽃진 자리마다
고운 열매 맺어 씨앗으로 남으소서
그리운 그대여!

흙내 가득하던 화단의 꽃들
아직 남은 꽃향기 가득한데
폭우에 쓸리고 패이다 지친 하루
비바람에 질린 꽃은 간데없고
꽃대만 남아 바람 숲을 만듭니다

다 피워내지 못하고
잘려 떨어진 꽃몽우리
비에 젖어 꽃 내 더욱 짙어오는데
가시질 않는 먹구름 사이
햇살이 더욱 그리운 날입니다

잘려 떨어진 꽃망울
차마 서러운 날
눈물보다 짙은 사랑으로
고운 열매 맺어 씨앗으로 남아
차마 다시 피어나소서!

꽃진 자리마다
고운 열매 맺어 씨앗으로 남으소서
그리운 그대여!

가 살면서 가끔 '기가 막히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다. 정말 기가 막혀서 말문마저 막혀버리는 아니 닫혀버리는 일 말이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절로 몸이 마비 상태가 되는 그런 일이 하루 한순간에 갑작스럽게 잃은 슬픔을 어찌 다 풀어낼 수 있을까. 아, 이럴 때는 참으로 하늘이 무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어찌 이리도 어린 영혼들을 그리 데려가셨을까 싶은 마음에서 그런 생각마저 든다. 세월은 그래도 그렇게 흘러가는가 싶다. 훌쩍 시간이 흘렀다는 말을 꺼내기조차 부끄럽고 송구한 마음이 든다.

다시는 정말 다시는 이런 아픔과 슬픔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어른들의 부주의로 일어난 이 엄청난 일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던가. 아직도 모든 것이 끝나지 않은 일들 앞에 '돈'이라는 말조차 참으로 부끄러운 말이 아니던가. 사람들의 슬렁거리는 '설왕설래'의 물줄기로 혹여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더욱 깊은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어찌 부모가 자식의 목숨을 담보로 돈에 마음을 둘까. 그것은 그 어떤 나라의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간절한 바람이고 꼭 하고자 하는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지막 보루 같은 것은 아닐까 싶다.

그 어떤 보상이라는 그 타이틀보다는 자식

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과 가슴이라는 생각을 한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으면서도 아직 너무도 억울해서 떠나지 못하는 그 어린 넋들을 달래주고 싶은 부모의 마지막 바람이라는 생각을 한다. 이제쯤에는 아픔과 슬픔은 잊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어떤 나라의 제도적인 결과가 관철되어 결론이 나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여기 저기서 수근거리는 말무리들 속 '돈'이라는 쪽으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을 몰아세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유가족들에게 진정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나라 밖 타국에서 바라보는 입장이라 조금은 다른 방향에서 바라볼 수 있지만, 우선 세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바라보고 싶다. 자식을 잃고 힘든 하루를 보냈을 어머니의 입장에서 그 가슴을 만나보는 것이다.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것이 자식을 잃은 마음일 것이다. 자식을 잃은 부모는 죽을 때까지 가슴에 묻고 산다 하지 않던가. 무엇보다도 그 아픔과 슬픔으로 있는 마음의 위로를 우선이고 저리고 아린 가슴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히든카드(제도)'를 원하는 것일 게다. 다시는 이런 무책임한 일들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일 것이다.



한담객설閑談客說: 지붕에 올라가다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등으로 출렁였다. 광화문 글판 글이다.

'꽃피기 전 봄산처럼
꽃 핀 봄산처럼
누군가의 가슴 울렁여 보았으면'
(함민복, '마흔 번째 봄'에서, 광화문 글판)

보스톤으로 이사 오기 전이다. 집을 팔아야 했다. 집을 팔기 위해서는 낡은 지붕을 갈아야 했다. 인부를 불렀고, 인부는 보조 한 사람과 같이 일을 시작했다. 그날따라 나는 집안에 있었다. 쿵 하는 육중한 물체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혹시나 했으니, 당연히 뛰쳐 나갔다. 역시나 보조하는 이가 지붕에서 떨어졌다. 불행 중 다행으로 포치에 떨어졌다. 큰 부상은 없는 듯했다. 안도의 숨을 쉬었는데, 젊은 보조는 오히려 미안한 표정을 얼굴에 만들었다. 시니어의 역정내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한 시간이나 흘렀나. 쿵 하는 낯설지 않은 소리가 다시 났다. 덜컥, 내 심장도 같이 떨어지는 듯 싶었다. 뛰쳐 나갔고, 이번엔 터져 나오는 웃

음을 참을 수 없었다. 이번엔 시니어 인부가 떨어졌다. 그것도 같은 자리에 말이다. 조심하라고 그렇게 훈육하더니만, 스스로 떨어졌으니 입이 있어도 뭐라 할 말이 없게 되었다.

그 다음날 되었다. 지붕 수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조수되는 사람은 오지 않았다. 다시 지붕에 올라가기가 무섭다 했다. 남들은 동백꽃 떨어지는 모양을 보고 아련하단다. 그 조수 양반은 추락하던 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울렁일게다. 내가 지붕에 올라가 보니 내려다 보는 마당은 장난이 아니었으니 알겠더라. 이맘 즈음이던가. 벚꽃잎이 떨어져 바람에 흩날리면 가슴이 울렁인다. 한국엔 벚꽃이 이미 지기 시작하는 모양인데, 보스톤엔 지기는 커녕 아직 꽃망울도 구경하지 못했다. 더더도 한참 더디다. 이번주엔 꽃망울이라도 보여줄겐가. 철쭉이 피면, 지붕 위에서 내려다 보기로 했다.

'그때에 베드르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육시더라' (사도행전 10:9)

길어도 너무 길었다. 길다 길다 해도 이런 겨울은 처음이다. 이제야 간다 간다 하던 겨울이 완전히 퇴각했지 싶다. 하지만 선발대만 보면 봄은 본진이 도착하려면 한두 주 더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겠다. 개나리 꽃망울이 아직도 너무 작다. 꽃 피는 걸 기다리다 목빠지겠다.

지붕에 올라갔다. 아내의 성화에 더 견딜 재간 없었다. 막힌 거터를 뚫어야 했다. 빗물 떨어져 소리를 듣는 것도 낭만이고 재미였다. 하지만, 넘치는 빗물에 창문이며, 집 벽은 엉망이 되어 버린다. 나무 창틀은 들쭉서 놓았다. 다른 도리가 없었다. 꽃이 피거든 올라 갈 거라 했는데, 그때까지 버틸 수 없었던 거다. 후들거리는 다리를 주체 할 수 없었다. 미끄러질라, 헛다리 짚을라 조심해 조심해 다해 사다

리를 뒀다. 기다시피 엎드려 앞지붕과 뒷지붕을 헤집고 다녔다. 양철지붕 위의 고양이 되었는데,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았다.

한숨 돌리기로 했다. 내리 짚는 이른 봄이 지붕을 덮히고 있었다. 이마에 땀방울이 맺힌걸 뒤늦게 알아차렸다. 지붕 위는 고즈넉했고, 조용한 동네에 차소리도 멀었다. 따뜻한 지붕 위에 몸을 누였다. 쳐다본 하늘은 유난히 파랗던가. 하늘이 가까워 그런건가 극성스럽게 푸르다. 코발트 빛 하늘과 따스 봄은 후들거리던 다리를 울렁이는 가슴으로 바꿔 주었다. 집 뒷마당에 개나리는 아직 피지 않았다. 철쭉도 아직 꽃을 피우지 못했다. 내려다보는 철쭉과 개나리도 또 달리 즐기는 맛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꽃 피기 전이라 해도 지붕 위는 색다른 감



Special Presentation for & Popera(Operatic pop) Tenor Lim Hyung-joo Mini Concert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스페셜 프레젠테이션
& 팝페라테너 임형주 미니 콘서트

Painted by
Linsey Kim 김보현



광주시장 윤장현

팝페라테너 임형주

April 23, 2015 @ 6:30PM

FREE ADMISSION
(선착순 무료 입장)
전화문의: 1-347-757-0639



HARVARD UNIVERSITY

Knafel Center (Radcliffe Gym) Main Hall

10 Garden St (Mason St), Cambridge, MA 02138

하버드대학교 내 나펠 센터 메인홀

주최: Artone DGN.com

주관: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
UNIVERSIADE GWANGJU 2015

기획: BLUE JENT

특별후원:

미디어 특별후원: 보스톤코리아



독자기고
김철

북미대륙 인디언의 역사 1. 인디언의 고대 문명

베링 해를 건너온 몽골계 유목민 영화 '늑대와 춤을(Dances with Wolves, 1990)'에서 감독과 주연을 함께 맡아 열연했던 케빈 코스트너(Kevin Costner)는 1995년에 제작된 8부작 TV용 다큐멘터리 영화 '500 나라들(500 Nations)'의 호스트가 되어 인디언의 역사를 찾아 간다. 코스트너는 그 영화의 모두에서 아래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진실은, 우리가 말할 가치가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길이 경축할 만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유럽인들이 이 땅에 오기 훨씬 전에 북아메리카에는 이미 500개의 나라가 있었다. 그들은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또 북극권에서부터 중앙아메리카까지 북미대륙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그들은 300개가 넘는 종류의 언어를 사용하였으며 인구는 수천만 명에 달하였다. 이들 중 대다수는 최고로 발달한 대도시에 살았다.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 왔으며 또 어떻게 지금껏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에 관하여 조명하고자 한다. 과거 역사에는 유래하지 못한 부분도 많다. 우리는 그 역사를 고칠 수도 없으며 역사의 시계를 되돌릴 수도 없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제대로 열게 되면 원래의 이 땅 주인들에게 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 정당한 역사적 인식과 존경심을 돌려줄 수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 논란은 계속되고 있지만 대체로 아메리카 대륙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시기를 지금부터 약 1만 8천년 전으로 보고 있다. 1970년대에 펜실베이니아 주의 Meadowcroft Rockshelter에서 고대 주거흔적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뉴멕시코 주의 Clovis에서 발견된 석기시대 유물에 근거하여 그 시기를 13천년 전 정도로 추정하였는데, Meadowcroft Rockshelter 유적 발견으로 최초의 인류 출현 시기가 1만 8천년 전으로 더 앞당겨졌다.

지구의 장구한 역사에는 몇 차례의 빙하기가 있었는데 이 중 제일 마지막 빙하기는 11만년 전부터 1만5천년 사이에 있었으며 1만8천년 전 무렵에 그 절정을 이루었다. 빙하시대에는 해수면이 낮아져 유라시아대륙과 아메리카대륙은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다. 지금은 베링해협에 막혀서 쉽게 건너갈 수 없으나 당시에는 교량처럼 연결된 육지 통로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대륙 사이를 오갈 수 있었다. 이 시기에 유라시아대륙의 북동부에 살고 있던 몽골계 유목민족들이 대거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와서 아메리카 대륙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다고 한다.

일부 고고인류학자들은 또 다른 유적지 발굴을 근거로 최초의 인디언 출현 시기를 5만년 전까지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최초의 인디언들 중 일부는 태평양의 폴리네시아에서 이주해 왔거나 그린란드를 경유하여 유럽 쪽에서 건너왔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유럽인들의 이주 이전의 인디언 인구수에 관하여도 다양한 주장이 있는데, 전체 아메리카대륙의 인디언 인구를 1억 명 이상이었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는 반면, 또 다른 사람들은 북아메리카의 인구는 2~3백만 명 수준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당시의 정확한 인구수를 파악하는 일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옥수수 문명

북미대륙에서 최초의 인류 문명은 중앙아메리카(Mesoamerica)에서 시작되었다. 문명 출현 배경에는 이른바 '세 자매(three sisters)'가 자리하고 있다. 세 자매란 아메리카산 호박(squash), 옥수수(maize, corn)와 콩(bean)을 일컫는 말로서, 고대 인디언들이 세 종류의 작물을 함께 조화롭게 재배하는 독특한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농경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농산물 생산을 극대화하는 지혜를 발휘하였다. 세 자매중 특히 옥수수는 인디언의 생존과 문명에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옥수수를 포함한 세 자매 작물 농업은 중앙아메리카에서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로 퍼져 나가면서 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종류의 문명 건설에 필요한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게 되었다. 거의 모든 인디언 부족들의 기원에 관한 신화에는 옥수수와 관련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옥수수는 멕시코의 테우칸(Tehuacan) 계곡에서 최초로 재배되기 시작하였는데, 올멕(Olmec) 문명과 마야(Maya) 문명에서 본격적으로 경작 기술이 발전하였으며 지금부터 약 4500년 전 무렵부터 여타 지역으로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고대 중앙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여러 종류의 문명이 흥망성쇠를 거듭하였다. 이러한 문명들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단절된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은 거대 아메리카 문명권으로 보는 편이 옳을 것 같다. 그 한 예로 마야(Maya)와 아즈텍(Aztec)과 체로키(Cherokee)가 일 년이 260일인 종교 월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체로키 부족의 신화에 의하면 그들의 조상은 오늘날 뉴멕시코 주 인근 지역에서 번성하던 고대 아나사지(Anasazi) 문명에서 왔다고 한다.

올멕(Olmec)문명과 마야(Maya)문명

중앙아메리카(Mesoamerica)에서 처음 발생한 주요 문명은 올멕 문명이다. 올멕은 멕시코 만에 가까운 지역에서 BC1500년경부터 BC300년 무렵까지 번성하였는데, 이들이 살았던 지역은 홍수가 자주 발생하는 까닭에 농업 기반은 매우 취약했다. 따라서 그들은 필요한 물품을 다른 지역에서 들여오고 또 자신들의 생산물을 파는 무역에 주로 종사했다. 이러한 교류를 통해서 자신들의 문화와 종교를 다른 민족에게 전하기도 했다. 올멕 문명은 천문학, 역법, 종교, 건축, 조형예술 등이 고도로 발달하여 올멕 문명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문명에 큰 영향을 끼쳤다. 따라서 올멕 문명을 메소아메리카문명의 원조라 부른다. 특히 이들은 세계최초의 문자중의 하나인 올멕문자를 만들어냈다.

올멕 문명의 뒤를 잇는 새로운 문명으로 마

야 문명이 등장하였다. 기원전 수 세기 전부터 마야인들은 메소아메리카의 다른 문명을 받아들여 독자적인 문명으로 발전시키면서 지금 멕시코와 과테말라와 벨리즈가 있는 유카탄반도 일대에 마야제국을 건설하였다. 이들은 기원후 5세기경에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였다. 그러나 10세기경에 이르러 식량부족과 이민족의 침략으로 내륙으로 이동하면서 쇠망의 길을 걸었다.

마야 문명은 가장 뛰어난 아메리카의 고대 문명으로 평가받고 있다. 마야족은 지구가 둥글고,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위도와 경도의 개념, 일식과 월식 그리고 금성을 포함한 행성들의 이동 법칙을 이해하고 있었다. 특히 마야의 달력은 일식과 월식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하여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역법보다 더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마야인들은 영(0)의 개념을 최초로 사용하였다. 마야 문명의 우수성은 특히 Tical과 Chichen Itza 등 여러 도시에 걸쳐 건설된 피라미드와 신전을 통해서 볼 수 있다.

테오티우아칸(Teotihuacan) 문명

멕시코의 수도인 멕시코시티에서 북동쪽으로 50km쯤 가면 거대한 고대 유적지 테오티우아칸에 도착한다.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도시의 중심부에는 태양의 피라미드와 달의 피라미드가 우뚝 솟아 있다. 최전성기 때의 테오티우아칸에는 15만 이상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시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도시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고대 도시는 기원전 100년경에 건설되기 시작하여 기원후 250년까지 공사가 계속되었으며 500년경에 전성기를 구가하다가 7~8세기 무렵에 멸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도시를 어떤 민족이 건설하였으며 또 왜 멸망하였고 패망 후에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등에 관하여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11세기경에 아즈텍(Aztec) 문명의 주역이 된 톨텍(Toltec)족이 테오티우아칸을 발견했을 때에는 벌써 폐허 상태였는데 그들은 이 도시를 자신들의 묘지로 사용하였다.



테오티우아칸에 있는 달의 피라미드

톨텍(Toltec)문명

톨텍족들은 8세기경에 테오티우아칸이 몰락하자 멕시코 벨리(Mexico Valley)로 이주해 왔다. 이들은 10세기부터 12세기까지 멕시코 중부를 지배했으며 수도를 톨라(Tula)로 정했는데, 톨라는 중앙아메리카 민족이 세운 도시로서는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12기에 들어 기상재해 등으로 국력이 많이 약해져 있을 무렵 북방 수렵민족의 침입으로 톨텍 문명도 멸망의 길을 걷게 된다. 톨텍족 중 일

부는 멕시코 벨리에 있는 텍스코코(Texcoco) 호수 주변으로 옮겨갔는데, 그들의 후손들이 후일 아즈텍문명을 일구게 된다. 톨텍 문명은 역법, 천문학, 종교 등 모든 면에서 마야 문명을 많이 닮아 있었다.

아즈텍 문명

톨텍족들이 12세기 북쪽의 수도 톨라에서 텍스코코 호반으로 옮겨올 무렵 멕시코 지역에 다른 많은 도시국가가 형성되었다. 그중 가장 강력했던 세력은 텍스코코(Texcoco)와 틀란코판(Tlacopan)이었다. 한편 13세기부터 북멕시코에서 이동해온 수렵민족인 아즈텍(Aztec)족이 1325년에 텍스코코호의 작은 섬에서 신의 계시를 받아 테노치티틀란(Teno-chtitlan)이라는 도시를 건설하고 아즈텍 대신 멕시코(Mexica)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멕시코는 점차 강력한 세력으로 발전해 나갔는데 1428년에는 텍스코코와 틀란코판과 더불어 3자간 군사동맹을 맺게 된다. 군사동맹으로 더욱 강력해진 이들 도시국가들은 멕시코 벨리를 포함한 중부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까지도 점령하여 이른바 아즈텍제국을 건설하게 된다. 15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멕시코가 나머지 두 동맹국마저 제압하여 절대 권력으로 군림하게 된다. 아즈텍제국은 정복한 도시들을 직접 통치하는 대신 조공을 받는 형식으로 간접적인 통치 방식을 택하였다. 전성기를 구가하던 아즈텍문명은 1520년 갑자기 나타난 스페인의 코르테스(Cortez) 군대의 침입으로 멸망하고 말았다.

아즈텍 족은 수렵민 출신이어서 문화수준이 낮았다. 그들은 주변의 여러 문화에서 많은 것을 배워 왔다. 특히 톨텍족 유민들이 건설한 텍스코코로부터 역법, 천문학, 종교 등 많은 문물을 받아들였다. 아즈텍 문명에는 독특한 인신공양제도가 있었다. 전쟁으로 정복한 지역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살아있는 사람의 가슴을 절개하여 심장을 꺼내고 살아있는 심장을 신을 위한 제물로 바쳤는데 1년에 약 2만 명의 포로가 제물로 희생되었다고 한다.



스페인 코르테스 군대에 의한 Cholula 지역 아즈텍 족 대량 학살 장면

“모아 모아서 한눈에 한번에”

그랑투어(Grand Tour)란? 18세기 당시 상류층에서 유행했던 사교/테마여행을 '그랑투어'라 불렀습니다. 한-미 헤럴드가 손을 맞잡고 **크루즈, 항공, 리무진, 기차 여행의 장점을 '모아모아', 영화테마를 입혀** 시네마 그랑투어를 만들었습니다. 영화같은 삶을 산 당신, 화려한 휴가를 떠나세요, **이제 여행은 그랑투어입니다!**

그랑투어 드 시네마 15일

특별기획가 : \$5,999 특별출발 : 5월26일

시대와 세대를 초월하는 걸작, 추억의 명화 그장면, 지금 만나러 갑니다. '오드리 햅번' 아이스크림을 먹고 '험프리 보가트'와 '잉그리드 버그만'이 되어 카사블랑카를 거닐고 암흑가의 혈투와 대부의 위엄이 느껴지는 시실리섬에서 만나는 진한 알파치노의 향기에 취해보세요



초호화 크루즈



편안한 항공이동



1등석 TGV열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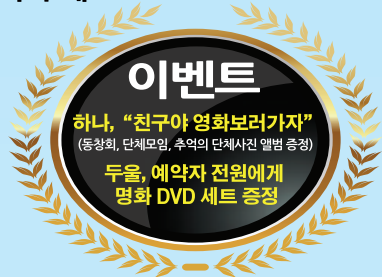
최신형 리무진

방문도시 & 명작영화

밀라노 : 냉정과 열정사이 / **카사블랑카** : 카사블랑카 / **제노바** : 초호화 “크루즈 투어” / **로마** : 로마의 휴일, 벤허 팔레르모 : 대부 / **튀니스** : 스타워즈 / **팔마** : 지중해 / **발렌시아** : 럭셔리 골프 투어 / **마르세유** : 몬테크리스토 백작 모나코 : 007 네버세이 네버어게인 / **칸스** : 영화 시상식장 “팔레 데 페스티발 에데 콩그레 투어” **니스** : 태양은 가득히 / **파리** : 풍네프의 연인들, 노들담의 고풍

명작식사 & 명품호텔

명작이 되는 식사와 4성급 명품 호텔! 크루즈 선실 중 바다를 볼 수 있는 **발코니캐빈** / 전일정 4성급 이상 **럭셔리 특급호텔** / 가시는 곳의 특별한 향연! **지역별 특식제공**
모로코 - 모로코 전통요리 **쿠스쿠스** / **프랑스** - 에스까르고, 소고기, 브르기뉴, 풍류정식
이태리 - 파스타, 카프리초사 피자 / **스페인** - 전통해물요리 **빠에야** / **크루즈** - 특급 코스요리, 세계각국요리 부페



초호화 최신 크루즈의 호화로움, TGV 1등석열차여행의 여유로움, 빠르고 편안한 항공이동과 최신형리무진 버스이동! 업그레이드된 호텔과 식사, 미국과 현지 2인1조 가이드, 발렌시아 골프와 파리 쇼핑, 크루즈 영화상영회, 영화 속 명소 포토 콘테스트 등 색다른 재미까지 기대 그 이상의 가치를 전해 드립니다.

현지 일정

<p>1일차 LA 및 미국과 한국 각 지역 출발</p> <p>2일차 이탈리아 밀라노 도착,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자유투어</p> <p>3일차 호텔 조식 후 밀라노 시내 투어 영화 테마투어 - 냉정과 열정 사이 모로코 카사블랑카 도착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자유시간</p>	<p>4일차 호텔 조식 후 카사블랑카 시내투어 영화 테마투어 - 카사블랑카 석식 후 카사블랑카 출발 밀라노 도착, 호텔 투숙 및 자유시간</p> <p>5일차 호텔 조식 후 제노바로 이동 및 시내관광 크루즈 탑승 수속 제노바 출항 및 석식</p> <p>6일차 로마 도착, 영화 테마투어 - 로마의 휴일 / 벤허 글래디에이터</p>	<p>7일차 시실리 도착, 영화 테마투어 - 대부 시네마 전국</p> <p>8일차 튀니스 튀니스 도착 현지 관광 영화 테마투어 - 스타워즈 튀니스 출항</p> <p>9일차 팔마 드 마요르카 기항 영화 테마투어 - 지중해</p>	<p>10일차 발렌시아 기항 영화 테마투어 - 랜드 앤드 프리덤 럭셔리 골프투어 출항</p> <p>11일차 프랑스 마르세유 도착 영화 테마투어 - 몬테크리스토백작</p> <p>12일차 모나코로 이동, 왕궁 및 몬테카를로 관광 영화 테마투어 - 007, 네버 세이 네버 굿바이 칸스, 니스로 이동 영화 테마투어 - 칸스 영화제 태양은 가득히 석식, 호텔 투숙 및 자유시간</p>	<p>13일차 호텔 조식 후 TGV고속철 1등석 탑승 파리 도착 시내 관광 영화 테마투어 - 노들담의 고풍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자유시간</p> <p>14일차 파리도착 영화 테마투어 - 풍네프의 연인들 비포 선셋 등 호텔 투숙 및 자유시간</p> <p>15일차 파리 출국 LA 및 미국과 한국 각 지역 귀환</p>
--	--	--	---	---

MSC 프리지오사(MSC PREZIOSA) 총톤수 139,400톤/총 탑승 5,284명/승무원 1,332명/1,637 객실 150개의 분수, 120m 워터 슬라이드, 바와 라운지 21개, 수영장 5개, 자쿠지 12개, 인터넷 센터, 정찬식당 2개, 뷔페 2개, 스페셜티 레스토랑 2개, 회의실, 디스코텍, 카지노, 스파, 미용실, 포토 갤러리, 어린이 놀이방, 면세점, 비디오 아케이드, 야외 극장, 어린이 아쿠아파크, 대극장, 농구장 등 VIP를 위한 99개의 스위트룸으로 구성된 '요트클럽'은 장거리 점보기의 1등석이나 호화 리조트의 스위트 룸을 능가합니다. 전용풀, 전용스파, 24시간 버틀러서비스, 컨시어지 서비스 등 매일 밤 선상신문이 각 선실로 배달되며, 각종 스포츠, Deck Game, 칵테일, 스시 만드는 법, 볼룸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강의 합니다.

MSC 프리지오사(MSC PREZIOSA) 2013년 3월 첫 운항한 초대형 최신 크루즈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人

충(虫)

16일로 한국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지 못한 것이다.

세월호 1주년을 맞으며 한국이 더 안전한 나라가 됐다면 세월호에 희생된 304명의 낮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을텐데...

몇몇 작은 개선이 이뤄진 흔적은 있다. 작년 5월 장성요양원 화재 때는 21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지난 12일의 나주 요양병원 화재 때는 노인 환자 217명이 모두 무사히 대피했다.

지난 9일엔 초등학교 4년생이 소방서에서 배운 심폐소생술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어른을 구해내기도 했다.

하지만 대한민국 안전수준이 근본적으로 개선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지난 1년 사이에도 지하철동차끼리 충돌하고 환풍구가 붕괴되고 다리 위에서 106중 추돌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캠핑장 텐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는가 하면 싱크홀 지하동공(洞空)의 절반은 전력관 통신관을 매설한 후 흙을 제대로 채워넣지 않은 탓이다. 대한민국이 사람 목숨 가볍게 보는 것은 후진국을 못 벗어났다는 좌절감을 느끼게 한다.

세월호 1주기 205명 기소, 대부분 유죄 판결. 선원 15명 유병언 일가 41명 해운비리 108명 등.

대법원 확정판결 8명, 2심 선고 43명, 1심 선고 108명, 1심 계속 진행 중 46명, 무죄선고 7명.

이준석 선장에게 검찰은 살인죄 선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유기치사죄 등을 적용 징역 36년형, 다른 선원 30년, 5년선고 항소심 선고공판은 4월 28일로 예정.

한편 16일은 박근혜 대통령의 9막 12일간의 남미 순방에 오르는 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전례없는 독대회의로 박 대통령이 돌아올 때까지 이완구 총리 사표를 유보하는 방향으로 긴급조치를 취한 것.

이완구 총리는 박 대통령 외유 중에 국정을 한치의 흔들림 없이 행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것을, 김무성 대표는 부정부패를 확실하게 뿌리 뽑는 정치철학의 계기로 삼아야 하고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세월호 선체인양을 서두르도록 권고 했었다" 다.

문재인 새정치 민주연합 대표는 "이완구 총리가 계속 자리에서 총리직을 버티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해임건의안을 우리당이 검토 하겠다" 고 위협했다.

하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박근혜 대통령과 회동하기 전인 15일부터 이완구 국무총리를 사퇴시키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김무성 대표가 이완구 총리가 더 이상 버틴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다만 대통령 남미 순방으로 국정공백이 생겨 사표 시기를 고심 중" 이라고.

하여 박 대통령이 "순방 다녀와서 결정하겠다" 고 말한 것은 김 대표의 성급한 움직임에 경고의 뜻으로 해석된다" 기도.

당 핵심관계자도 "김 대표가 이 총리가 더 이상 버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고 말했었다.

총청권 출신으로 차기 대선 후보군으로 꼽혔던 이완구 총리가 총청 포럼을 이끌었던 고(故) 성완중 전 경남기업회장의 언론 폭로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면서 총청 정치권의 바닥이 드러났다는 것.

성완중 회장은 숨지기 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완구 총리에 대한 인간적 서운함을 드러내며 갖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또 총북 총신의 반기문 UN 사무총장과 친밀한 관계란 이유로 이완구 총리의 반감을 샀고 그로 인해 수사가 시작됐다고도.

이 총리 측과 성 전 회장 측 인사들이 대립되는 증언으로 진실게임이 벌어지면서 총청 정

치권의 자중지란도 심화되는 양상. 반기문 총장 또한 이름이 거명되면서 부담을 안을 수도 있다.

대선 후보로도 거론되는 반기문 총장이 내년 UN 사무총장 임기를 마치고 국내 정치권에 들어온다면 성 전 회장과와의 관계에 대한 논란이 필수적이어서다. 16일 반 총장의 종친 회측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청렴하신 분을 왜 진흥탕에 끌어들이냐" 며 '성완중 리스트' 에 반 총장이 오르내리는 것에 부정적이었던다. "반 총장은 대선에 관심이 없다" 기도.

虫충: 鱗介總名 인계총명: 벌레 충, 蟲蟲 약자. 이 虫은 딱 두 글자, "口구 또는 말씀" 이란 글자와 虫:我也야아, "나 사" 자 두 글자가 합성된 것.

'벌레' 라는 곤충의 이미지와는 그 본 뜻이 많이 차이가 난다.

오히려 "나(我)" 를 에워싸고 있는 "말씀(口=語어)" 으로 해석되어 곧 "나와 말씀이 신 예수님" 과의 합성(合成)으로 풀이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The Word became flesh and made His dwelling among us. We have seen His glory, the glory of the One and Only, who came from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 요한복음 1:1, 14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Yet to all who received Him, to those who believed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Children born not of natural descent nor of human decision or a husband will but born of God." - 요한복음 1:12, 13

성경말씀과 같이 '말씀이 내 몸' 에 베어 들면 나는 '벌레' 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 로 하는 '하늘 식구' 가 된다는 뜻.

하늘 식구가 되면 '하늘 식구' 가 먹어야 하는 '하늘 양식' 을 먹어야만 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I tell you the truth, unless you eat the flesh of the Son of Man and drink His blood, you have no life in you. Whoever eats My flesh and drinks My blood has eternal life and I will raise him up at the last day.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For My flesh is real food and My blood is real drink.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 Whoever eats My flesh and drinks My blood remains in Me, and I in him." - 요한복음 6:53-56.

결국 하늘 식구가 되는 자격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한 마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살과 피" 를 떠나서는 虫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는 뜻이다.

해서 虫을 살리는 것은 "영(靈)이니 육(肉)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The Spirit gives life: the flesh count for nothing. The word I have spoken to you are Spirit and they are life." - 요한복음 6:63

虫이 있으면 죽는다는 말!!

미국 최고의 언론지 TIMES 선정 2014년 베스트 발명품

연예인만 셀카?

아니아니~ 나도 셀카 찍고 싶어요!
혼자서 얼짱각도~ 찰칵! 연인끼리 놀러가서~ 찰칵!
친구들끼리 놀러가서~ 찰칵!

- 2015년 최신 셀카봉!
- 리모컨이 본체에 달려있는 버튼 일체형
- 싼 셀카봉 믿지 마세요!

최저가 \$29.99

구매 문의 617-955-9112

연말연시 최고의 선물용품
방송으로 소문 난 그 제품!
▶무한도전 ▶나혼자 산다 ▶꽃보다 청춘

스마트폰 글래스 스크린 프로텍터 Japanea Glass
특수 가공 유리 0.4mm의 두께로 얇고
견면하게 부착, 일반 필름보다 3배 강한 강도로
비딕에 떨어뜨려도 석정화권을 보호해 드립니다.
대리점 문의: 213.545.4334

제품문의 주문전화 **213.487.0125** 일 이 오세오~
 www.heraldemart.com

경제 전문지가 운영하는 믿음을 주는 홈쇼핑



명품 공진단
 精氣를 돈우고 氣와 血을 원활하게 하여 질병 예방과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최고의 명약**

공진단
 공진단은 사향, 녹용 등 최고의 약재를 엄선하고 동의보감 원 처방의 정통(正統) 정향(正香) 그대로 엄격하게 만들었습니다.

31% ~~\$800~~ \$550 10% OFF
 37% ~~\$1980~~ \$1250 30% OFF

소중한 분께 건강을 선물하세요.
 이런 분들에게 명품 공진단을 추천합니다!

공진단의 효능
 1. 면역력 강화 2. 소화력 증진 3. 혈액순환 개선 4. 노화방지

세계가 인정하는 고품질 브라질산 명품
순도 100% 고품질, 항암치료, 헬리코박터 사멸!
현존하는 프로폴리스 중에서도 가장 으뜸을 자랑하는 그린 프로폴리스

그린 프로폴리스란?
 브라질에서도 마나스쿠에서 생성되는 깊은 정록색 액기스로 세계에서 오직 하나 뿐인 장인 기법에서 만들어진 화라산, 희소성 가치를 지닌 제품입니다.

Artepillin-C
 강력한 항암작용 제제로 최근 일본 국립예방연구원 마쓰노데스야 박사에게 의해 최초로 발견된 물질로서 오직 그린 프로폴리스에만 있는 성분입니다.

효과 및 기능
 위암, 폐암, 유방암, 위산과제, 만성위염, 특효 알러지비염, 축농증, 인플루엔자 예방, 면역기능 강화 (SOD 효소 다량 함유) 진통, 저혈, 전립선, 자궁경부 계통 질환 박테리아, 바이러스 멸균

기관지염, 편도선, 천식, 무좀, 각종 피부질환 아토피, 여드름, 지질 강함 항암작용 (Artepillin-C), 각종 종양 제거 당노, 간질환, 골다공증, 동맥경화

천연항생제로 소문난 프로폴리스는 항암효과 및 면역력 강화에 탁월!

21% ~~\$100~~ \$79

대한민국 원도의 청정바다가 증 증 **해림후코이단**

한국정부의 해양바이오 사업으로 탄생한 '해림 후코이단' 미국상륙!

방사능 오염에 걱정없는 원도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되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해림후코이단을 만나보세요

후코 플러스 세븐베리즈 (80ml x 30팩) \$249
 프리미엄 후코아셀 (690ml) \$399
 후코이단 에코 (50ml x 30팩) \$199

고품질 후코이단과 아로니아, 블랙커런트, 블루베리, 라즈베리, 스트로베리, 크랜베리, 아사이베리 등 7가지 베리가 배합된 제품
 후코이단은 물론 또 다른 항암 물질 후 코산틴과 커큐민까지 첨가한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후코이단에 미네랄을 넣어 그 기능을 더욱 배가 되어 맛 좋게한 제품입니다.

뒤아내는 올인원실팩!
연예인 청담금실팩!

10 in 1
 팩 하나로~ 싹!

당겨주고, 채워주고!
 피부 겉과 속을 한 번에 케어해주는 **ALL KILL** 금실 리프팅팩

전속모델 연예서

20% ~~\$99~~ \$79

한국 홈쇼핑 대박상품

50만보 증정기동, 특급명품커피, 피부수분공급제, 피부탄력제, 피부윤기제

[에어 프라이어] **Air Fryer**

기름없이 공기로 튀기는 건강한 튀김기

40% ~~\$315.95~~ \$189.95



LG 놀이방매트



- “아이가 좋아하는, 유익한 디자인”
명품 캐릭터, 다양한 학습놀이
- “자세히 볼수록 빠져드는 놀이방매트”
안전과 편안함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 “아이가 쓰는 제품 청결이 제일이지요”
쉽고, 편리하게 물걸레 하나로 OK
- “매트 위에 넘어져도 안심인 이유?”
LG하우시스만의 탁월한 쿠션감

11% ~~\$179.99~~ \$159.99
 130x190x1.5cm
프라임 고급중형 뽀로로 여행

13% ~~\$149.99~~ \$129.99
 130x190x1.1cm
프라임 중형 뽀로로 기차놀이

11% ~~\$279.99~~ \$249.99
 210x140x1.8cm
1등급 놀이방 뽀로로 렛츠고

11% ~~\$279.99~~ \$249.99
 210x140x1.8cm
아소방매트

9% ~~\$219.99~~ \$199.99
 230x140x1.5cm
고급초대형 놀이방매트

9% ~~\$219.99~~ \$199.99
 250x140x1.5cm
프라임 고급초대형 뽀로로 친구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세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278) 두(2) 종류의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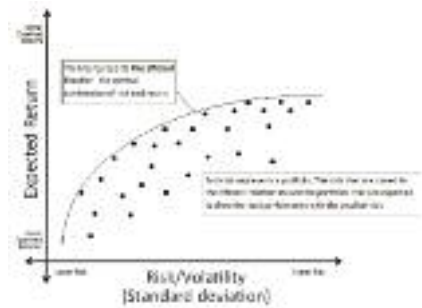
2015 새해부터 3개월(3/21) 동안 수익률이 2.0%와 2.4%를 각각 기록한 투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투자를 선택하겠습니까? 2.4% 수익률이 분명 2.0%보다 높으므로 2.4% 투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다른 질문을 합니다. 투자 하나는 위험성을 100% 가지고 있고 다른 투자는 위험성이 60%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투자를 선택하겠습니까? 투자 위험성 60%를 선택할 것입니다.

주식시장 지수의 하나인 S&P 500 인덱스는 500대 기업을 중심으로 설정된 지수입니다. 이 종목에 투자하면 현재 수익률이 2.4%입니다. 이것은 100% 주식에 투자한 것입니다. 나의 자산 전부를 주식에 투자하면 투자 위험성이 분명히 많아집니다. 이점을 고려하여 60%는 주식에 40%는 채권에 투자했다면 수익률은 2.0%로 떨어집니다.

이와 같이 투자 위험을 고려해서 분산투자하면 투자 수익률은 83%로 떨어지지만, 위험성은 거의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투자 위험을 반으로 적게 한다고 해서 수익률이 똑같은 비율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조금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효과 전선 (Efficient

Frontier)' 이라는 학설에서 나왔습니다. '효과 전선'은 현대 포트폴리오 학설(MPT, Modern Portfolio Theory)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학설로 해리 마코위츠(Harry Markowitz)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일반 투자자는 좋은 시기에 좋은 종목에 투자해야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좋은 종목이나 적당한 시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투자 위험성을 고려한 포트폴리오를 먼저 형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투자 귀재인 워런 버핏도 "첫째,

돈을 잃지 마라, 둘째, 첫 번째 교훈을 잊지 마라" (Rule No. 1: Never lose money. Rule No. 2: Never forget Rule No. 1.)고 말했습니다. 성공하는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익률보다는 위험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예로 \$100달러 주식이 10% 하락하고 그 다음 날 다시 10% 상승해도 \$100달러가 되지 않습니다. \$99달러입니다. 50% 하락하고 50% 회복하면 단지 \$75달러입니다. 한 번 하락한 투자가 원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수익이 필요합니다. 투자 이익보다는 투자 손실 즉 투자 위험성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014년 투자 결과를 보면 미국 큰 기업(S&P 500)에 투자했다면 투자 이익이 13.7% 상승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외국 기업에 투자했다면 -4.0% 손실이었습니다. 분산투자를 위해서 외국 기업에 투자한 것이 실수인 것 같습니다. 큰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지 않은 것이 후회막심입니다.

감정의 동물인 우리는 잘한 것보다는 못한 것에 대해 더욱 민감합니다. 아이가 성적표를 가져옵니다. 대부분이 A이고 단 한 과목이 C

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 순간부터 잘한 여러 과목에 대한 칭찬은 없습니다. 한 과목 C에 모든 것이 집중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느냐?, 가정교사가 필요하냐?' 등 잘못된 하나에 마음이 상합니다.

이처럼 수익률이 괜찮은 대부분 종목은 무시하고 떨어진 종목에 대해서 매우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립니다. 외국 기업에 투자했던 것을 모두 팔아서 미국 대기업에 투자합니다. 그러나 3월 현재 외국 기업 주식은 5.5% 상승했습니다.

뉴욕시에서 워싱턴 D.C.까지는 차로 대략 4시간 정도가 필요합니다. 어느 운전사(재정 상담가?)가 같은 거리를 2시간 주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한테 잘했다고 칭찬할 것입니까? 아니면 위험한 여행을 했다고 싫은 소리를 하겠습니까?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알 수 없습니다. 어느 섹터가 상승하고 하락할지도 알 수 없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에 분산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대로 하는 투자는 주식 대박(?)을 기대하지 않고 천천히 그리고 실수하지 않는 투자가 제대로 하는 투자임을 마음에 담고 있어야 합니다.



이명원
 한국 공인회계사
 미국 공인회계사
 617-455-8073
 mwlee@kicpa.or.kr 또는
 tomwlee1125@gmail.com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위한 세무가이드(11) 한국에 있는 금융계좌(financial accounts) 및 금융자산(financial assets) 신고(2)

이번주는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해외계좌 납세의무 이행법)' 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II.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해외계좌 납세의무 이행법)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해외계좌 납세의무 이행법)'는 역외 탈세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010년도에 제정된 규정으로, 해외에 있는 금융계좌(financial accounts)나 기타금융자산(financial assets)을 IRS에 보고토록 하는 규정입니다.

FATCA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째는 납세자가 해외금융자산(foreign financial assets)을 IRS에 보고하는 내용과,

둘째는 해외금융기관(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이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의 금융정보를 직접 IRS에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해외금융자산을 IRS에 보고하지 않더라도, 해외금융기관이 이를 IRS에 보고한다는 것을 숙지해야 합니다.

누가 보고해야 하나?

해외금융자산을 보고해야 하는 사람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중 해외금융자산이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를 말합니다.

- ① 미국시민권자
- ②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resident alien)

③ 부부합산신고시 미국 거주자로 신고한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

④ American Samoa 또는 Puerto Rico의 거주자

위에서 '② 세법상 미국의 거주자(resident alien)'란, 영주권자(green card test)와 실제체류기간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 규정에 의해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가 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H비자나 E비자 소유자 중 세법상 거주자가 된 자나, F비자나 J비자 소유자 중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세법상 거주자가 된 자도 이에 포함됩니다.

또한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위의 영주권자나 실제체류기간테스트에 의해 세법상 거주자가 된다는 비록 조세조약에 의해 다른 나라(예를 들면, 한국)의 거주자로 인정되더라도 해외금융자산의 보고의무가 소멸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간 한국에 거주한 영주권자 중 한미조세조약에 의해 한국의 거주자로 인정된 자도 FATCA에 의해 해외금융자산을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세금신고의무 없는 사람은 예외임

그러나 위의 신고대상자 중 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는 납세자는 비록 해외금융자산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더라도 FATCA 보고의무가 없습니다. 즉, 미국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라도 미국에 신고할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일정액 미만이어서 신고의무가 없다면 해외금융

자산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더라도 IRS에 해외금융자산을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해외금융기관은 금융정보를 IRS에 제공함)

보고대상 기준금액은?

기준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이 세금신고유형(filing status)과 거주지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때 미국 입국 당시에는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였으나 연말에 거주자(resident alien)가 된 사람은 입국일 이후의 금융자산을 기준으로 신고여부를 결정합니다.

Filing Status	미국에 거주	해외에 거주
부부합산신고	연말: \$100,000 or 연도중: \$150,000	연말: \$400,000 or 연도중: \$600,000
그외	연말: \$50,000 or 연도중: \$75,000	연말: \$200,000 or 연도중: \$300,000

신고해야 할 금융자산은?

FATCA 신고대상 금융자산(financial assets)의 범위는 FBAR(Reports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의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financial accounts)보다 훨씬 넓습니다. 다시 말하면 FATCA의 신고대상에는 해외금융계좌(financial account)뿐만 아니라 금융계좌에 포함되지 않은 투자목적의 기타 금융자산- 예를 들면 주식, 채권, 스왑

(swap), 옵션(option) 등 기타 파생상품(derivatives)- 도 포함됩니다. 다만, 위의 금융자산 중 다른 규정에 의해 이미 신고된 것(예를 들면, 주식을 Form 5471에 의해 신고한 경우)은 다시 Form 8938에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 안 하면?

만약 해외금융자산을 IRS에 보고하지 않으면 \$10,000 (IRS로부터 통보받은 후에는 추가로 최고 \$50,000까지)의 벌금을 물게 되며, 누락한 소득에 대해서는 40% (사기의 경우 75%)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보고 불이행에 대한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FBAR와의 관계

FATCA에 의해 IRS에 관련 금융자산을 보고했다하여 FBAR에 의한 보고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거주하는 부부합산신고자인 김한국씨의 해외금융계좌의 합이 \$500,000이라면, 김한국씨는 그 합이 FBAR 기준금액(\$10,000)을 초과하므로 관련 계좌를 재무성에 보고해야 하고, 또한 합이 FATCA 기준금액(\$400,000)을 초과하므로 관련 계좌를 IRS에도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김한국씨는 세금신고시 FATCA에 의해 관련 계좌를 IRS에 보고해야 하고, FBAR에 의해 6월 30일까지 관련 계좌를 재무성에 별도로 보고해야 합니다.

앤티비(*enjoy & TV*)가 티보 플레이(TBO Play)로 새롭게 도착합니다

더 좋은 서비스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Welcome, *tbo*

한국 방송 3사 케이블 TV 무제한 시청

원하는 한국 방송 원하는 시간에 내 마음대로 무한대로 시청하다



티보 플레이만의 특별한 장점

화질을 비교해 보세요

HD TV의 선명한 화질

YTN 과 아리랑 방송 24시간 실시간 방송 시작!

라이브 생방송도 즐기고 원하는 시간에 무한대 시청도

방송3사와 케이블 합법 계약

끊김없이 티비를 시청하세요

문의 및 연락처

보스톤코리아 TV 사업국

617.955.9112

지금 연락하세요

시니어 특별 할인!

무제한 시청 월 \$ 29.99

4월 30일까지(2년 약정시)



더 어려운 듯, 더 쉬워진 개정판 AP US History (4) 단답형 문제들 (Short-Answer Questions) 1

개정 AP 미국사에서 두드러지게 달라진 또 한가지 사항은, 종전의 AP에서 에세이 문항 수가 축소되면서 새롭게 단답형 문제 (Short-Answer Questions)가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단답형 문제는 총 네 문항이 출제되며, 각 문항은 세 개의 서로 연결된 하위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논제 (Thesis)와 논거(Evidence)를 바탕으로 논증적인 (argumentative) 에세이를 하나 써 내야하는 DBQ나 Long Essay와는 달리, 말 그대로 각각 한 문장 정도로 (때로는 문장이 아니어도 된다) 간단하게 답하는 문제들이다.

하지만 AP 미국사 시험이 단순한 지식의 암기를 테스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핵심에 대해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가령, 영토 확장과 남북 전쟁의 씨앗이 된 지역 갈등간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다음 질문을 보자. 첫 번째 하위 문항이

a) Briefly explain why ONE of the following options most clearly marks the beginning of the sectional crisis that led to the outbreak of the Civil War.

- Northwest Ordinance (1787)
- Missouri Compromise (1820)
- Acquisition of Mexican territory (1848)

라고 주어졌다. 에세이와 마찬가지로, AP 미국사의 단답형 문항에서 정답은 없다. 좋은 답은 있다. 만약 Northwest Ordinance (1787)를 남북간 분열의 시초라고 답하고 싶다면 “The Ordinance established slave and nonslave territory in the nation, a situation that led to numerous debates” 라는 식으로, Missouri Compromise (1820)를 선택했다면 “The Compromise hardened regional identities between slave and nonslave areas as the nation expanded westward” 식으로 답변이 가능하다. 또한 Acquisition of Mexican territory (1848)를 선택했다면, “The acquisition raised debates over whether the newly annexed territories would allow or restrict slavery” 식으로 간단히 하지만 명확한 핵심을 가진 답변을 제공하면 된다.

단답형 문제가 단순하지 않은 것은 보통 역사적 지식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수반하는 두 번째, 세 번째 하위 질문이 이어지고, 세 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전체 한 문제로 채점되기 때문이다. 위의 질문에는

- b) Provide an example of an event or development to support your explanation.
- c) Briefly explain why one of the other options is not as useful to mark the begin-

ning of the sectional crisis.

즉, b)와 c)는 각각 간단한 추가 논거 제시와 반박자료 제시를 통해서 a)에서의 답변을 강화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다.

b)에 대한 좋은 답들도 많다. 예를 들어 Northwest Ordinance (1787)가 공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열렸던 제헌 의회 (Constitutional Convention)에서 “노예주”와 “자유주” 간의 갈등을 암시하는 논쟁들을 예로 들어 “The sectional debate over the Three-Fifths Clause in the proposed Constitution”

“The sectional debate over inclusion of a fugitive slave law in the Constitution”라고 답할 수 있고, Missouri Compromise (1820)를 선택했다면, “The growth of Southern support for and influence in the emerging Democratic Party in the 1820s” “The creation of antislavery organizations in the 1820s by free blacks in the North”와 같은 1820년 이후 두드러진 지역간 갈등의 예를 들어줄 수 있겠다. a)에서 멕시코 영토 획득을 선택했다면, Sectional reactions to the Compromise of 1850 and the Fugitive Slave Act 혹은 The rise of the free soil movement across the North 같은 답변 등이다.

c)에 대해서도 “Era of Good Feeling led

to an emphasis on national unity over disunity.” “Even though sectionalism increased after 1820, politicians avoided policies that might cause another major confrontation until the crises of the 1850s”

“Southern efforts to defend and preserve slavery, which were an important element in the tensions that led to the Civil War, arose before 1848, as seen in political speeches by John C. Calhoun and others.” 식의 답변들이 모두 가능하다.

다만 주의할 점은 a), b), c) 세 개가 한꺼번에 한 개의 문항으로 채점된다는 점이다. 즉, 정합성에 (coherence)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a), b)에서 멕시코 영토 획득이 남북전쟁으로 이르는 갈등의 시발점이라고 답해놓고서 c) 1848년 이전에 이미 노예제를 고수하려는 남부의 노력과 남북 갈등의 징후들은 곳곳에서 드러났다는 답을 쓴다면 각각이 아무리 훌륭한 답이어도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들 것이다.

어쨌거나 위의 예는 미국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 AP 시험의 준비기간에는 19세기 미국의 경제적 발전과 영토의 확장이 남부인, 혹은 북부인이라는 정체감 형성에 어떤 역할을 했고, 정치 논쟁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이해해두도록 하자.

정준기 원장 교육 칼럼

2015 미국 명문 대학 정규지원 분석: 하버드

정준기 원장 (보스톤 교육원)

Tel: 339-234-5255 / 5256 / 5257

Fax: 339-234-5258

Email: bostoneducation@hotmail.com

Web: bostonedu.org



매년 그래왔지만 올 입시와 관련하여 특히 많은 말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하버드에 지원하였지만 입학 거절 되었다” 라는 것이다. 사실 하버드 지원자들 중 80% 이상이 입학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두루 갖춘 학생들이다. 그만큼 하버드 입학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서이다. 올해 하버드 지원자들은 총 37,305명이었고 이중 1,990명이 최종 입학허가 되어 총 5.3%의 입학 허가율을 보여주었다.

정시에서 1,013명 그리고 조기 (Single Choice Early Action)에서 977명이 입학허가 되었다. 조기지원에서 입학 보류 (defer)된 학생들이 4,292명이나 되었다. 정규 지원자의 합격률은 2.8%이고 이는 작년 3.1%에 비해 더 떨어진 입학허가율로 매년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수치이다.

특이한 점은 합격자들 중 52%가 남학생들이다. 이는 여학생들에 대한 차별을 의미하는게 아니라 올해 하버드에 지원한 학생들 중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 훨씬 많아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남녀 지원자 들별 합격률도 볼 때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더 높은 합격률을 보였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하버드는 남녀 균형을 중요시하지만 매년 지원한 학생들의 남녀비율에서 일정한 학생들을 뽑기 때문에 매년 남녀 구성비율에 차이가 있다. 그렇다고 내년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입학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입학허가된 학생들을 살펴보면 스페니쉬 계열 13.3%, 흑인 12.1%, 아시아인 21%, 북미 원주민 또는 하와이인 2%, 외국인 학생 10.8%, 이중국적자 7.7% 등이다. 올해 입학허가된 학생들 중 많은 학생들이 사회과학과 인문학 전공을 원하는 학생들이었다. 이중 사회과학 (Social Science) 26%, 인문학 (Humanities) 15%였다. 반면 컴퓨터 전공자는 8%였다.

향간에 이야기되고 있는 하버드가 소수민족 출신 (스페니쉬, 흑인)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입학사정을 하였다는 말은 결코 맞다고 할 수 없다. 흑인과 남미 스페니쉬 계열 학생들이 하버드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높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아시아와 외국인 학생에 대한 문호를 축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는 말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지난해 아시아인 미국인이 총 19.7% 입학허가

되었지만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높은 수치인 약 21%의 학생들이 입학허가 되었고, 외국인 학생 비율을 볼 때 지난해 10.5%에서 올해 10.8%로 지난해보다 더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입학허가 되었다.

주변의 우수한 학생들이 하버드에서 입학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하버드가 아주 이상한 입학 체제로 바뀌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하버드의 입학 절차나 합격자들의 성향은 지난 몇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 다만 모든 학교들이 다양한 학생 구성원들을 가지고 싶어 하고 미래 최고의 리더들을 배출하고자 한다. 이런 측면에서 소수 민족, 경제적 소외계층, 특수한 상황에서도 공부에 대한 끈을 놓지 않는 학생들에게 일정부분 입학에 대한 혜택은 당연하고 앞으로 모든 대학이 가는 길이라는 점을 하버드 입학 결과가 잘 보여주고 있다.

한국 학생들의 대학입시만을 위한 인위적인 준비와 스펙 쌓기, 그리고 비전문 컨설턴트들의 허풍이 많은 우수한 학생들의 명문 대학 진학을 막고있는 요소들이다. 진정 하버드 입학을 원한다면 학원이나 과외교사의 도움으로 간신히 학점을 유지하지 말고, 학생 스스로 아카데미는 관리하며 필요할 경우

학교 선생님을 통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또한 한 분야에만 포커스 맞추지 말고 다양한 분야에 흥미를 보여야 한다. 동시에 자신의 명확한 재능과 열정을 보여 주어야 한다. 또한 학교 생활에 리더로서 그리고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면서 항상 도전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하버드 입학은 가능하다.

단지 높은 학점과 시험점수, 그리고 리서치와 경시 대회 입상을 하버드가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싫어 하지도 않지만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며 모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학생에게 입학허가를 주는 곳이 하버드 대학이다.

필자가 그동안 하버드에 입학허가된 학생들과 인터뷰하고 컨설팅하면서 배운 사항은 “정말 하버드에 갈 수 밖에 없구나” 하고 생각한 학생들이 주로 입학허가 되었고, 그들에게서 학교 생활을 너무 즐기면서 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비록 올해 이곳 동부지역에서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하버드 진학에 어려움을 보였지만 내년에는 정말 우수한 학생들과 리더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입학허가를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www.pospay24.com



POS Pay

작전타임 한번
불러보시죠?

사업도 성공하기 위해선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타이밍이 지금입니다.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 알선:20% 현금다운, 크레딧 700+
상가건물,콘도,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들,런드로맷(Laundromat) 많은
주유소,식당,편의점,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네일살롱, 새 장비들, 매매가격 \$60,000 고급동네

보스톤 서쪽(I-495)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500,000 고급동네

뉴햄프셔(보스톤에서 1시간 거리) 풀 플랜트, 연매상 \$550,000
드랍스토어(연매상 \$345,000 / \$180,000) 각각 매매가능, 좋은위치 고급동네

일식식당 풀 리커 면허증, 연매상 \$700,000 고급동네

드롭 스토어, 연매상 \$165,000 고급동네

드롭 스토어 보스톤 서쪽, 연매상 \$310,000 연매상 \$270,000 각각 매매 가능

보스톤 북쪽 아침, 점심 5일 오픈, 건물안 위치 연매상 \$145,000 매매가격 \$40,000

스프링필드 지역, 부동산,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260,000
21E Test 완료, 은행융자 가능

뉴튼 세탁소: 연매상: \$120,000+ 홀세일, 매매가격 \$50,000

동양식당 변화한 푸드코드, 연매상 \$360,000

보스톤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50,000+ 새 기계들, 부유한 동네

뉴햄프셔 세탁소+런드로맷 연매상 \$120,000 18년만에 은퇴

보스톤 북쪽 드랍 스토어 연매상 \$90,000 매매가격 \$30,000

섬머빌 지역 런드로맷 연매상 \$115,000 좋은 렌트

네일살롱 매매, 여러장소 고급동네

보스톤 세탁소 Full Plant, 연매상 \$150,000 매매가격 \$99,000 32년만에 은퇴

보스톤 서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80,000 이상 소유자 은퇴

런드로맷, 여러 장소, 다양한 규모, 연매상 \$60,000 - \$180,000

커피 카페, 캠브리지 하버드 법대 근처, 매매가격 \$99,000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세탁소 뉴튼지역, 연매상 \$180,000+ 매출 계속 증가, 내부 리모델 완료

스넥(프레첼)가게, 매매가격 \$39,000 연매상 \$300,000 주인 부재

뉴햄프셔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70,000 소유자 은퇴

드롭오프 스토어 연매상 \$155,000+ 부유한 동네

알링턴지역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45,000 변화가 좋은 위치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및 수속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최고 에세이 편집자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섬머/윈터 프로그램

전문적인 관리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가디언 업무

수시 교사 면담및 성적관리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및 실행
다양한 경시 대회준비, 섬머및 교외 활동

아카데믹 프로그램

SAT 1, 2/AP 수업

최고 전문가들의 강의
단기 고득점 완성
실전 문제 중심 수업
상시 참여및 주말수업 가능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학업 과목 개인과외 가능

영어, 수학, 과학, 외국어, 역사,
경제, 심리학, 기타 과목들
개인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3,4월 Spring Break 프로그램

• 사립학교 학생을 위한 SAT I 준비반
기간 : 3.7(토)~3.21(토)

• 공립학교 학생을 위한 SAT I 준비반
기간 : 4.18(토)~ 4.26(일)

• SAT I Class
*주말 SAT 1 Class와 같은 시간구성
*5.02, 6.06일 SAT 시험대비 집중반

• SAT II Subjects Classes
-Math II C, Bio, Phycisc, Chemistry
-그룹및 개인지도 가능
-Skype수업가능

2015 주말 프로그램

• SAT I Class:
9:00-12:00 실전문제 풀이
12:00-1:00 점심, vocabulary test
1:00-4:00 수업(critical reading, writing)
4:00-5:00 실전문제 풀이

• Writing Class
*현직 영어교사 강의
*장기간에 걸친 다양한 장르의
체계적인 글쓰기 교육
*4~5학년:10:00-12:00(토)
*6~8학년:12:00-2:00(토)

• AP 및 SAT II subject test 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개인수업 가능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28 Wheeler Rd. #301, Burlington, MA 01803
Tel.339.234.5255~7 / Fax.339.234.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services@bostonedu.org